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3 한국최초 인천최고
상징아이콘 / 지정게시대 /
공사가림막 / 공공안내판

INCHEON Standard design 3rd
Development project



제출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3차 개발'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과업기간

2015년 7월~2016년 4월

제출일

2016년 4월

주식회사 디자인팩토리

CONTENTS

I 개요

1. 과업 개요	006
----------------	-----

II 기본방향 및 구상

1. 개요	010
2. 인천광역시 현황	011
3. 개발 방향성 도출	013
4. 디자인 방향	017

III 상징아이콘

1. 개요	022
2. 조사 및 분석	023
3. 디자인 개발	026
4. 활용 가이드라인	079

IV 지정계시대

1. 개요	092
2. 조사 및 분석	093
3. 디자인 개발	104
4. 그래픽 가이드라인	127
5. 현수막계시대 시범설치	133

V 공사가림막

1. 개요	136
2. 조사 및 분석	137
3. 디자인 가이드라인	144

VI 공공안내판

1. 개요	176
2. 조사 및 분석	177
3. 디자인 개발	180

부록

1. 과업 추진일정	186
2. 회의록	187
3. 설문조사 결과	194
4. 시민디자인공모전	212

I 개요

1.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목적	006
1.2 과업의 범위	006
1.3 과업의 세부내용	007

1.1 과업개요

1.1 과업의 목적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3차 개발 대상의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에 근거하여 디자인 원칙과 세부 디자인 규정 제시
- 국제성과 심미성을 지닌 표준시설물 개발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1차, 2차 표준디자인과 연계하고 지속적인 개발·보급을 통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방향제시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1차·2차와 연계성을 지닌 일관적인 표준디자인 제시

효과

한국 최초, 인천 최고 등 인천 가치 재창조와 연계한 디자인 개발
일관된 디자인 방향 제시를 통한 통일된 도시 이미지 구축
공공디자인 시책의 군·구 확산을 통해 인천 브랜드 제고 건인

결과

지정계시대 및 공공안내판 등의 표준디자인 개발로 도시미관 개선

1.2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15년 7월 ~ 2016년 4월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

내용적 범위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등 인천 가치 재창조와 연계한 디자인 개발
- 표준디자인 대상시설물 개념과 범위 설정
-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과 위계 검토·기초조사
- 친환경적 측면과 도시 경관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디자인 제시
- 사용자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과 최적의 색채, 형태 및 소재의 제시
- 디자인 유형별 개발 및 매뉴얼
- 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시설계 및 일부 시범설치

1.3 과업의 세부내용

기초조사 및 분석

- 표준디자인 기본방향 및 체계 설정
-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 등 관련 제도적 측면 조사 및 검토
- 선행사업(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1차·2차) 디자인 방향 및 연계 및 수정·보완 사항 도출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의 현황조사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향 제시
- 국내·외 선진 사례조사 및 선진기법의 도입방안 제시

표준디자인 분야별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작성

- 표준디자인 개발 범위

구분	상징아이콘	지정게시대	공사가림막	공공안내판
개발 종류	기본형, 응용형, 기타 상징아이콘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대	가설울타리, 건물가림막, 공사안내판	거주자우선주차, 승용차 요일제, 차없는거리표지판
디자인 개발	●	●		●
가이드라인	●	●	●	

-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관한 네트워크 구축
 -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공모전 실시
 - 상징아이콘과 현수막게시대를 개발 품목으로 지정하여 대학생 및 시민들의 디자인 아이디어 데이터 베이스화
- 상징아이콘 개발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과 연계하고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상징아이콘 디자인 개발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 지정게시대 : ①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고려한 현수막게시대 표준디자인 개발
 - ② 시민게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표준디자인 개발
 - ③ 지정게시대 설치 및 그래픽 가이드라인 작성
 - ④ 지정게시대 실시설계
 - ⑤ 지정게시대 일부 항목 시범설치
 - 공사가림막 : ① 가설울타리 및 건물가림막의 설치·그래픽 가이드라인 작성
 - ② 공사장안내판 표준디자인 개발
 - ③ 공사장안내판 설치 및 그래픽 가이드라인 작성
 - 공공안내판 : ① 거주자우선주차, 승용차 요일제, 차없는 거리 표지판에 대한 표준디자인 개발
 - ② 설치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디자인 타입 제시
 - ③ 안전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표준디자인 타입 제시

II 기본방향 및 구성

1. 개요	010
2. 인천광역시 현황	
2.1 일반 현황	011
2.2 지역 현황	012
3. 개발 방향성 도출	
3.1 개발 방향성 도출 과정	013
3.2 상위계획	014
3.3 관련계획	015
3.4 개발 방향성	016
4. 디자인 방향	
4.1 디자인 컨셉	017
4.2 디자인 기본전략	018
4.3 디자인 기본방향	019

2.1 개요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의 현황분석을 통해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 설계
-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배려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 국내 · 외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 및 디자인 방향점 도출
- 관련법규 및 계획을 분석하여 실용적이며 선행사업과 연계된 디자인 방향점 도출



1. 상위계획 및 선행사업과 연계한 디자인

인천광역시 상위계획 및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1차, 2차 개발과 연계를 통해 일관성 유지

2. 시설물 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시설물이 지닌 고유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이 반영된 디자인

3. 누구나 이용하기 쉬고 편리한 디자인

연령과 국적,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배려한 위계와 그래픽 체계를 반영한 표준디자인

4. 주변 환경과 시설물 간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

가로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 및 표준디자인 간 연계성을 지니는 디자인

2.2 인천광역시 현황

2.2.1 일반 현황

인천시의 국내 입지현황



01 국내 중심부인 수도권에 속하는 도시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충청도와 인접

02 물류중심지에 위치한 물류도시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물류도시
인천항을 통한 해상물류도시
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한 육상물류도시

인천시 교통체계



국내 최대 규모의 공항,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대 규모
최다 노선을 지닌 공항
국내외 관문 역할 수행



수로와 육로가 유기적으로 연계

수출항인 인천항과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고속도로의 연계된
교통체계 구축



국내 최초의 철도, 경인선

서울 지하철과 직결
운행되어 인천 - 서울 간
교통 편의 증진



지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 지하철

인천공항철도와 인천
도시철도, 수인선을
통해 타 도시와
원활한 이동이 가능



수도권과 왕래가 활발하며, 국내 입국 시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첫 도시

2.2.2 지역 현황

대상		일시
중심상업 및 개발권역	영종권역	-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국제진출입관문 -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공항지원, 항공물류, 관광레저단지 개발
	청라권역	- 주거지 및 공업지역 혼재지 - 서북부 청라 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국제금융과 위락단지를 조성하여 국제신도시 목표로 개발
	송도연수권역	-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권역 -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국제 업무와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으로 개발
	공항진출입권역	국제진출입관문으로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권역
	공항진출입권역	- 신도시 주거지 및 공업지역이 공존 '신도시-공업지-자연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개발
일반권역	임해항만권역	- 서해안의 관문으로서 우리나라 해상교통의 요충지 - 인천항은 환황해권의 중심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부두와 터미널 건설, 배후부지 개발을 진행 중
	남동권역	- 행정, 문화, 금융, 경제의 주요기관이 입주해 있는 물류상권의 중심지 - 인천의 중심지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병존하고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남동공단과 소래포구가 위치
	도심권역	- 인천 역사의 발상지이자 변천사를 간직한 문화 중심지인 남구가 위치 - 개발 중심보다 있는 것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문화·창조도시로 거듭나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음
자연경관 우세권역	부평계양권역	안정적인 주거지와 생기있는 상업지역이 공존
	강화권역	수도권에 위치하며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며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역사 관광지
영흥 · 옹진도서권역	영흥 · 옹진도서권역	- 북한과 인접한 서해의 접경지역 - 서해 최북단 100개의 섬이 위치, 섬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천연의 해변을 갖고 있어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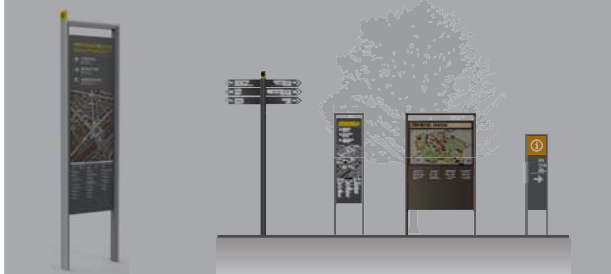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09' 에서 발췌



국제도시의 인문 경관과 바다 및 산악, 도서 등 다양한 자연 풍광 등
다채로운 경관을 품은 도시

2.3 개발 방향성 도출

2.3.1 개발 방향성 도출 과정



상위 및 관련계획 · 법규

인천시 환경과 조화로운 가로경관 연출 /
인간 중심의 정주환경 조성 /
역사, 문화를 존중하는 시설물 디자인



공공시설물 현황

일관성이 부족한 디자인, 그래픽 기준 /
이용행태 고려가 부족한 정형화된 디자인 /
심미성이 부족한 시설물 디자인



국내 · 외 사례

모듈 형식의 현수막 게시대 디자인 /
시각 혼잡도를 고려한 최소 색채 사용 /
견고하면서 간결한 구조



설문조사

지정게시대 전문가, 인천시민 대상 설문 /
공사가림막, 공공안내판 및 상징아이콘
관련 인천시민 대상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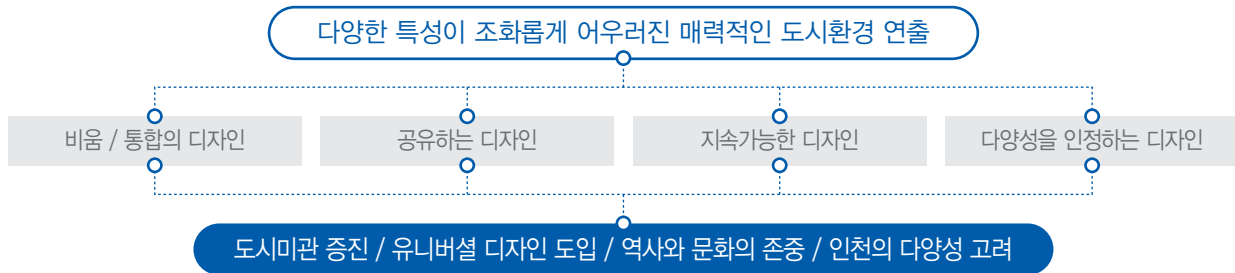
디자인 공모전

인천시민, 인천 소재 대학교 학생 대상 /
전문가에 의한 수상작 선별 /
수상작 우수 디자인 요소 분석 후 수정보완

2.3.2 상위계획

2009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다양한 역사와 자연의 공존, 발전 및 계승을 통한 공공디자인 인천다움 완성
- 인천만의 다양한 특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공디자인 계획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2009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기본원칙 및 세부 지침 제시
-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침 제시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상징성 :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한 공공시설물 만들기	1 영역 구분 시각정보를 포함한 공공시각매체
기능성 : 본래의 기능에 충실 한 공공시설물 만들기	2 문제점 진단 정보량 과다 / 시스템 부재
안전성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견고 한 공공시설물 만들기	3 접근방향 비움 · 통합 / 체계 구축
심미성 : 보편적인 미적기준을 만족 하는 공공시설물 만들기	4 목표 잘 읽히는 도시 / 찾기 쉬운 도시
편의성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가능 한 공공시설물 만들기	
통일성 : 원칙을 가진 일관 된 공공시설물 만들기	
경제성 :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간편 한 공공시설물 만들기	

2025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 인천의 역사를 기반으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해양 국제문화도시 경관 형성

국제도시	해양도시	역사문화도시	정주도시
국제도시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자연-해양-도시가 연계된 독창적 경관계획	역사 · 문화 · 삶이 연계된 경관계획	신/구도시를 접목하는 인간중심형 경관계획
국제관문지역의 특화경관 창조	자연을 보전 활용하는 경관 창조	역사문화자원의 개발과 체험, 활용	인간중심형 정주환경 조성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2010

- 색채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전 국제도시의 위상 정립 및 디자인믹스 실현

주거지구	해안지구	상업지구	역사문화지구
주조색-고채도, 저명도의 밝고 산뜻한 YR, GY, BG 계통사용	바다색과 조화되는 White ~ Blue계열	지구 특성상 색상사용 폭은 자유롭게 하되 자극 색상 억제	전통 이미지의 Brown, YR계열 / 무채색, 저채도의 색상

2.3.3 관련계획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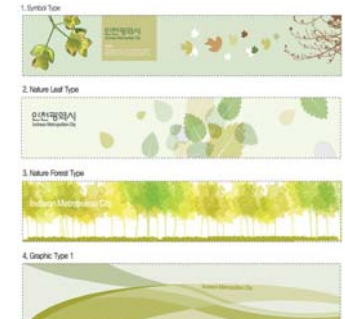
- 공공시설물의 표준을 확립하고 모듈화하여 통일성있는 디자인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물 간 연계성 확보
- 개발 대상 : 통합지주, 택시승차대, 버스풀사인, 공사가림막, 맨홀덮개 (5종 55 Type)



도로폭에 따른 디자인 적용기준



경관별 가림막 그래픽



- 공공시설물 색채는 다양한 도시이미지와 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무채색, 중·저명도, 저채도의 주·보조 색채 선정
- 인천광역시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색채 대표색에 기초한 색채 선정
-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과도한 원색 및 다양한 색채 배제, 차분한 배색 사용

공공시설물 주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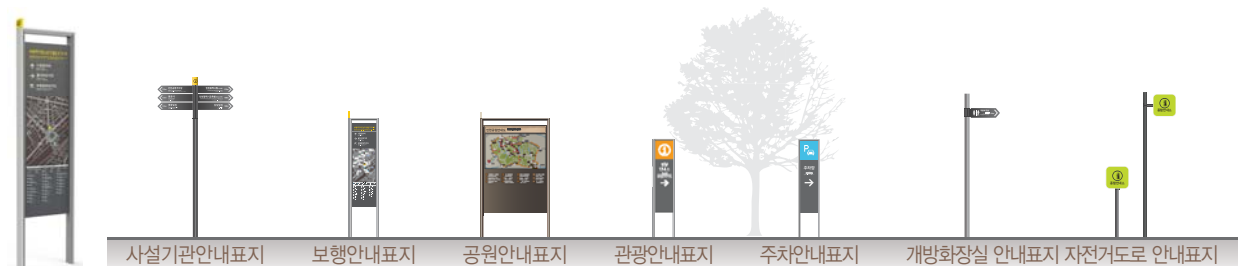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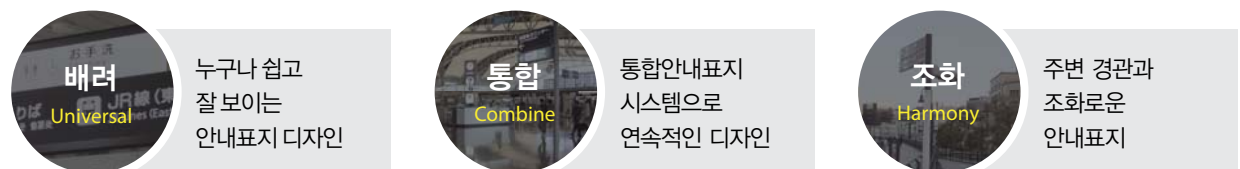


공공시설물 보조색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2차

- 인천광역시 도시정체성을 반영하여 연계성을 지닌 안내표지 디자인 개발
- 디자인 세부전략 : 유니버설디자인, 정보 위계화, 기능별 특성화, 그래픽 체계화
- 개발 대상 : 사설기관 및 보행, 주차, 공원, 관광, 자전거도로, 화장실안내표지 (7종 31 Type)



2.3.4 개발 방향성

상징아이콘

- 상징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
- 디자인 공모전 수상장의 우수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여 과업 컨셉에 맞게 수정 및 보완

지정계시대

- 관련법규 검토와 설문조사를 통한 지정계시대 인식 사항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및 배치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이용하기 편한 현수막계시대 디자인 개발 및 그래픽 가이드라인 수립

공사가림막

- 관련법규 검토를 통하여 기본원칙 및 방향 수립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1차 과업의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분석 후 보완 지침 제시

공공안내판

- 기존 일관성이 부족한 안내판의 통합화를 위하여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지니는 디자인 제시
- 설치 이용성과 편의성을 위한 설치 양식의 다양화 검토

2.4 디자인 방향

2.4.1 디자인 컨셉

공공시설물 7대 원칙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계)

상징성

지역적 특성을 반영

- 지역적, 장소적 특성을 활용하여 디자인
- 보편적인 인친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색채, 형태로 디자인

기능성

본래의 기능에 충실

- 시설물 용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기본 기능과 연계 가능한 기능들을 통합하여 디자인

안전성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견고한 시설물

-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
- 친환경적이며 인체에 무해한 재료 사용

심미성

보편적 미적 기준을 만족

- 장식적 조형요소와 직접적인 상징도안, 과도한 원색 사용 지양
- 단순하며 간결한 형태, 저채도 및 중채도 · 저명도의 색상 지향

편의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물

- 사회 및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사용가능한 무장애 디자인
- 시설물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통일성

원칙을 가진 일관된 공공시설물

- 시설물 간 유사한 형태, 색채, 재질, 상징 요소를 활용하여 디자인
- 주변 환경, 특히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디자인 지향

경제성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간편한 공공시설물

-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유지 및 관리비용 효율을 높임
-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적 재료 지향

소통

상호 간 소통하는
디자인으로 매력적인
인천시 조성

배려

Universal

통합

Combine

조화

Harmony

2.4.2 디자인 기본전략



상징 · 연계

- 인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활용한 상징아이콘 개발로 인천만의 이미지 브랜드 확립
- 표준디자인 1, 2차와 연계한 디자인(색채, 형태, 그래픽)으로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 조성

표준화 · 규격화

- 설치공간에 따른 형태, 색채, 재질, 그래픽 등 요소별로 통일된 설치기준을 제시

경량화

- 공사 규모, 설치위치, 기간 등의 따라 그 규모와 정도가 달라지며 조립, 해체가 쉽고 반복 사용이 가능한 재료 적용
- 안전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적 형태를 지양하고, 기능 위주의 단순한 형태를 기본으로 구조 최소화

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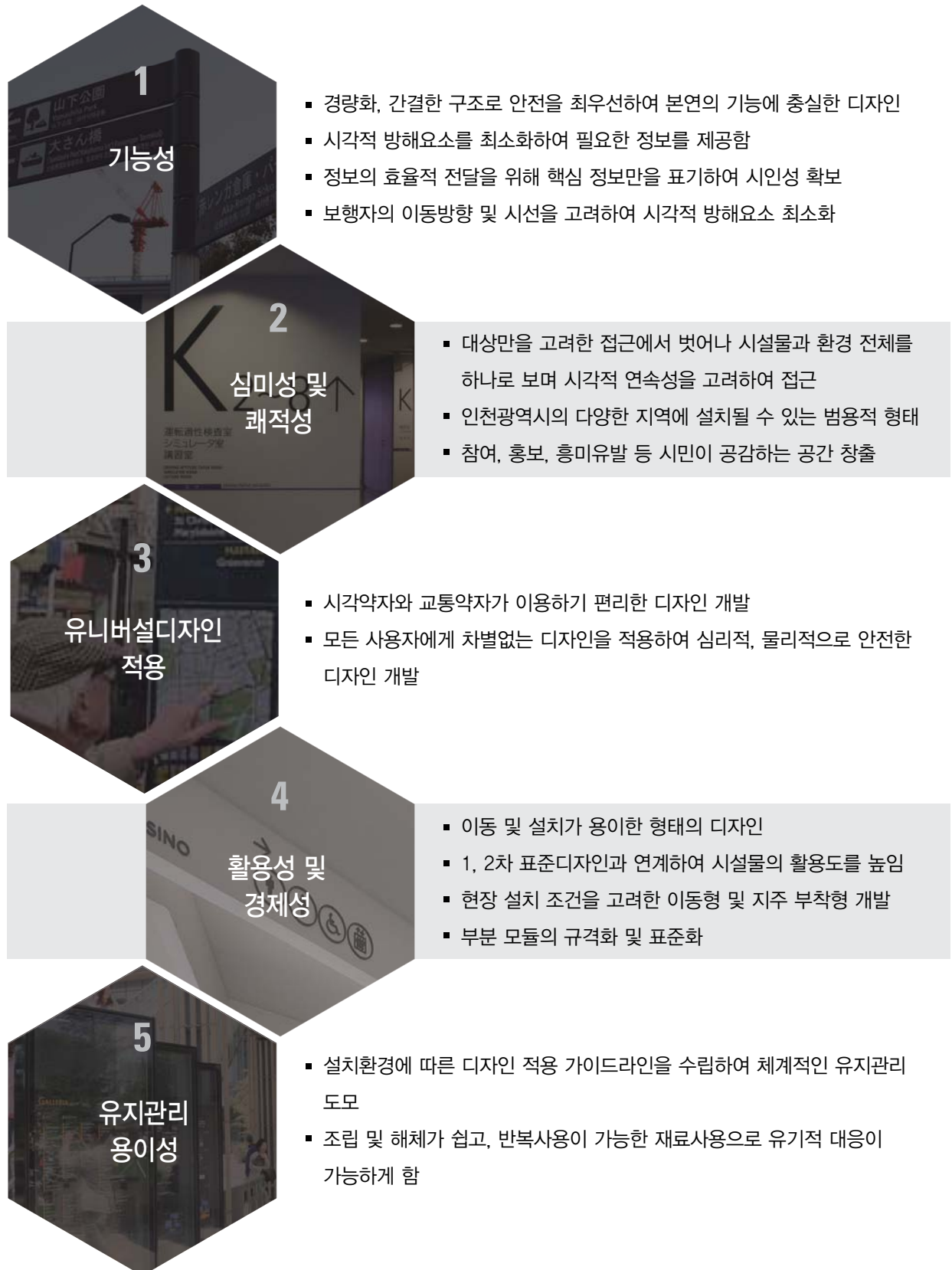
- 다양한 사용자 (계획, 설계, 시공)의 활용과 상황에 따른 적용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실행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 분야 : 공간에 따른 합리적인 디자인

설계 분야 : 안전 및 기능적인 설계

시공 분야 : 실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시공

2.4.3 디자인 기본방향



III 상징아이콘

1. 개요	022
2. 조사 및 분석	
2.1 관련 계획	023
2.2 시민디자인공모전	024
3. 디자인 개발	
3.1 개요	026
3.2 상징아이콘 100선	028
3.3 기타 상징아이콘	078
4. 활용 가이드라인	
4.1 상징아이콘 적용 가이드라인	079
4.2 상징아이콘 활용계획	084

3.1 개요

개발 배경

- 인천광역시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 장소를 통해 인천의 가치를 재발견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상징아이콘 개발을 통해 인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

상징아이콘 정의

- 본 과업의 상징아이콘은 인천의 자랑거리를 보다 쉽게 홍보하기 위해 특징을 조형화한 상징적 이미지

개발 목적

- 인천광역시의 문화유산을 상징아이콘을 통해 알리며 그 가치에 대한 중요성 제고
- 단순하며 친숙한 방향으로 인천시민에게 역사 · 문화유산 홍보
-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현대적 방식과 모양으로 아이콘화하여 범용적 활용방법 마련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관련 부서 및 기관(문화재과 등)의 개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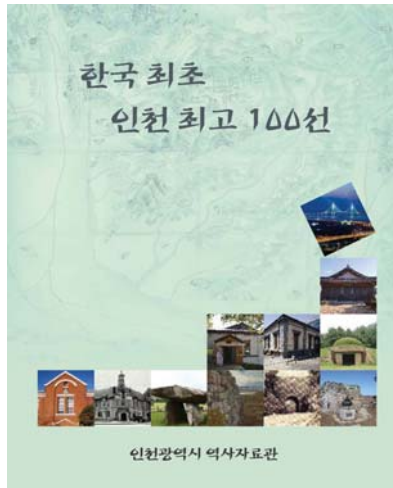
추진 절차 및 일정



3.2 조사 및 분석

3.2.1 관련 계획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 인천광역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 중 주요 문화유산 100개 항목을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에서 선정하여 2015년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이라는 도서로 발간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의 항목을 역사적 발생 시기 (전근대, 근대, 현대) 순으로 분류하여 상징아이콘화

I 전근대

1. 강화 부근리 고인돌
2. 문학산성
3. 능허대
4. 전등사

5. 참성단
6. 마니산
7. 강화도
8. 7대어항

9. 상정고금예문
10. 팔만대장경
11. 강화도 고려왕릉
12. 교동향교

13. 원도사
14. 연평파시
15. 외규장각
16. 학산서원

I 근대

17. 서양인이 기록한 인천
18. 강화 연무당
19. 축구와 야구의 출발지
20. 조약 체결지
21. 이화양행
22. 인천감리서
23. 인천해관
24. 인천 외국인묘지
25. 각국조계
26. 청관

27. 세창양행 사택
28. 우체국의 효시
29. 대불호텔
30. 신상협회
31. 내리교회
32. 세창양행 광고
33. 각국공원
34. 답동성당
35. 일본 제18은행
36. 성 누가병원

37. 인천전환국
38. 담손이 방앗간
39. 영화학당
40. 이운사
41. 양무호
42. 조선수사해방학당
43. 해성보육원
44. 최초의 시외전화
45. 협률사
46. 인천미두취인소

47. 인천항재판소
48. 엽원청년회
49. 인항여성회사
50. 경인선
51. 성교회 강화성당
52. 제물포구락부
53. 예포
54. 동양연초주식회사
55. 하와이 이민
56. 팔미도등대

57. 제령학교
58. 광제호
59. 대한천일은행 인천지점
60. 사이다
61. 아라뱃길
62. 인천전기(주)
63. 붉은 벽돌 쌀 창고
64. 오포
65. 인천공립보통학교
66. 주안염전

67. 흥예문
68. 송헌배수지제수변실
69. 상계월보
70. 짜장면과 짬뽕
71. 비누
72. 인천도로원표
73. 수준원점
74. 이중 갑문식 '독'
75. 조선인촌주식회사
76. 경인가차통학생친목회

77. 인천의 양조공장
78. 월미도 조탕
79. 웃터골
80. 인천부립도서관
81. 훈맹정음
82. 인천기상대
83. 수인선
84. 경인공업지역

I 현대

85. 애스컴
86. 인천시립박물관
87. 대중일보
88. 인천상륙작전

89. 새나라 자동차
90. 극동방송
91. 인천판유리
92. 한국화약

93. 부평지하도상가
94. 경인고속도로
95. 쫄면
96. 인천국제공항

97. 인천경제자유구역
98. 인천대교
99. 녹색기후기금
100. 동북아무역타워

3.2.2 시민디자인공모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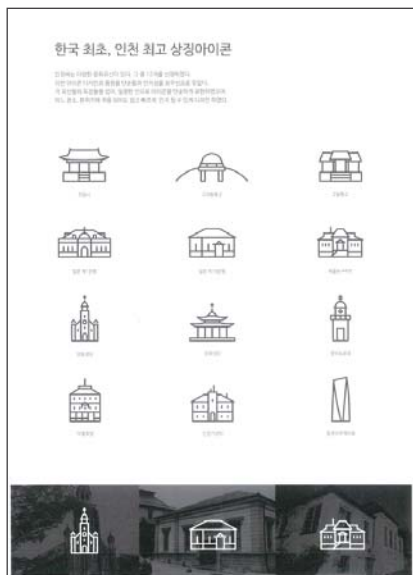
분류	내용			
공모 목적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3차 개발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유형 발굴 목적			
공모 분야	[그래픽 부문]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상징아이콘			
시상 내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부분 통합	그래픽 부문	그래픽 부문	부분 통합
	1명	1명	4명	5명

시민공모전 진행과정



수상작

I 대상 (한인애 · 인천시민)



II 최우수상 (오윤아 외 2명 · 경인여대)



III 우수상 (권예슬 외 5명 · 경인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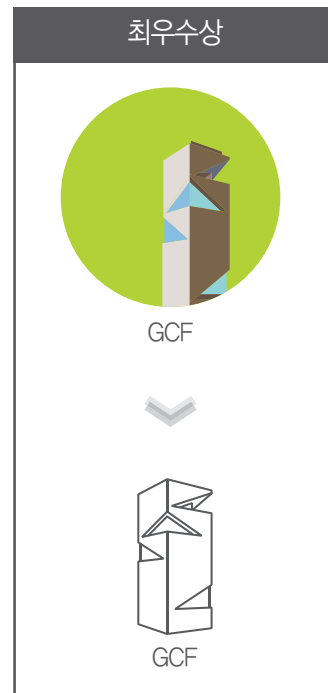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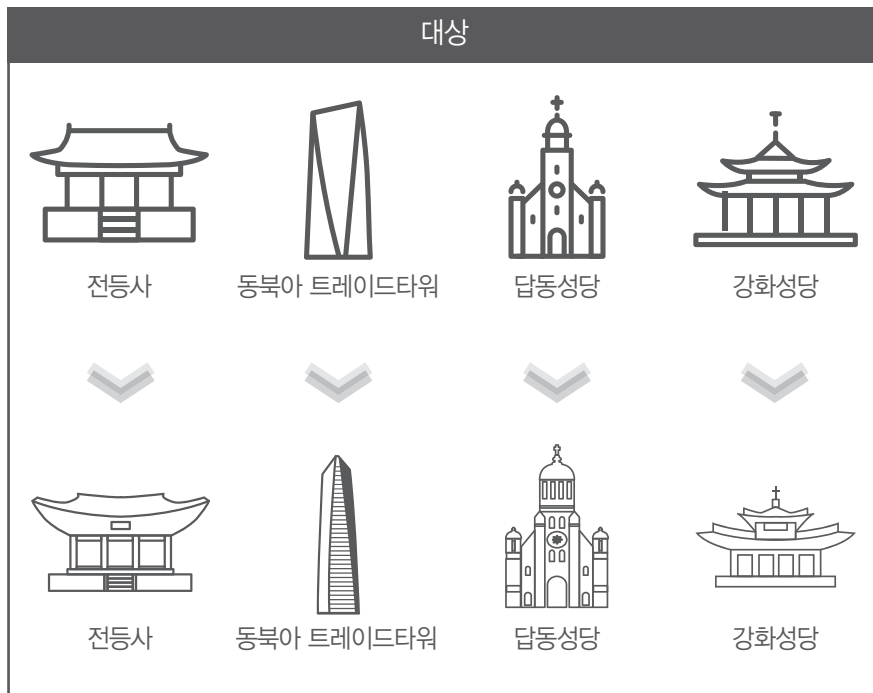
IV 특별상

(김민경 외 5명 · 인천시민)



수상작 디자인 수정 반영

- 수상작의 우수한 디자인 요소를 지닌 항목은 역사 · 문화적 특징이 나타나도록 수정하여 상징아이콘 디자인에 반영



3.3 디자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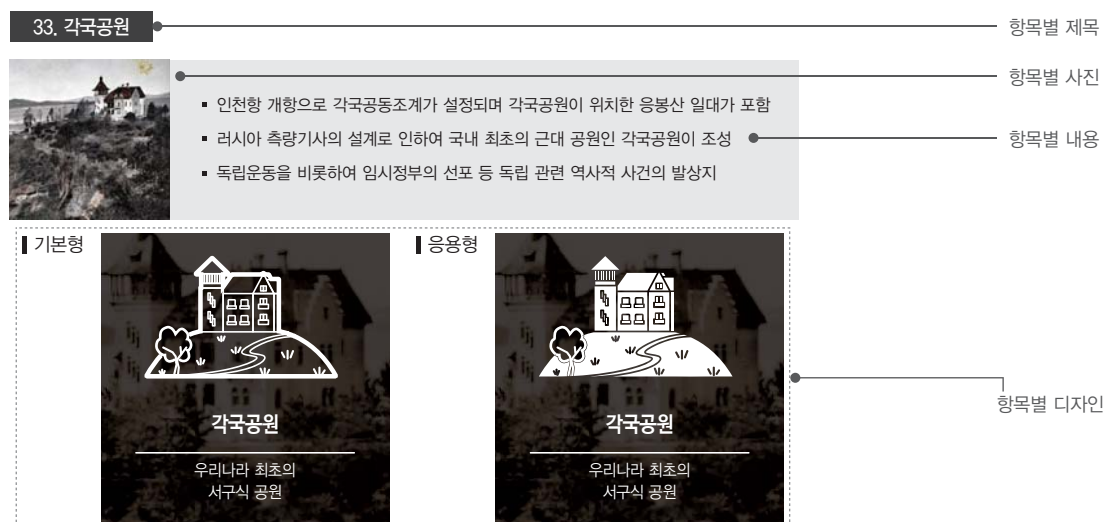
3.3.1 개요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을 검토하여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고 요소를 상징화
- 100선 상징아이콘은 하단에 선형으로 이루어진 기본형과 면형으로 이루어진 응용형으로 구분하여 디자인 제시
- 상징아이콘의 페이지는 최상단에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의 항목별 내용을 요약하여 표기

디자인 프로세스



페이지 구성 예시



100선 상징아이콘 목록

1. 강화 부근리 고인돌	26. 청관	51. 성공회 강화성당	76. 경인기차통학생친목회
2. 문학산성	27. 세창양행 사택	52. 제물포구락부	77. 인천의 양조공장
3. 능허대	28. 우체국의 효시	53. 예포	78. 월미도 조탕
4. 전등사	29. 대불호텔	54. 동양연초주식회사	79. 웃터골
5. 참성단	30. 신상협회	55. 하와이 이민	80. 인천부립도서관
6. 마니산	31. 내리교회	56. 팔미도등대	81. 훈맹정음
7. 강화도	32. 세창양행 광고	57. 제녕학교	82. 인천기상대
8. 7대어항	33. 각국공원	58. 광제호	83. 수인선
9. 상정고금예문	34. 답동성당	59. 대한천일은행 인천지점	84. 경인공업지역
10. 팔만대장경	35. 일본제18은행	60. 사이다	85. 에스컴
11. 강화도 고려왕릉	36. 성누가병원	61. 아라뱃길	86. 인천시립박물관
12. 교동향교	37. 인천 전환국	62. 인천전기(주)	87. 대중일보
13. 원도사	38. 담손이 방앗간	63. 붉은 벽돌 쌀 창고	88. 인천상륙작전
14. 연평파시	39. 영화학당	64. 오포	89. 새나라 자동차
15. 외규장각	40. 이운사	65. 인천공립보통학교	90. 극동방송
16. 학산서원	41. 양무호	66. 주안염전	91. 인천판유리
17. 서양인이 기록한 인천	42. 조선수사해방학당	67. 흥예문	92. 한국화약
18. 강화 연무당	43. 해성보육원	68.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93. 부평 지하도상가
19. 축구와 야구의 출발지	44. 최초의 시외전화	69. 상계월보	94. 경인고속도로
20. 조약 체결지	45. 협률사	70. 짜장면과 짬뽕	95. 쫄면
21. 이화양행	46. 인천미두취인소	71. 비누	96. 인천국제공항
22. 인천감리서	47. 인천항재판소	72. 인천도로원표	97. 인천경제자유구역
23. 인천해관	48. 엽윳청년회	73. 수준원점	98. 인천대교
24. 인천 외국인묘지	49. 인항어상회사	74. 이중갑문식 '독'	99. 녹색기후기금
25. 각국조계	50. 경인선	75. 조선인촌주식회사	100. 동북아무역타워

3.3.2 상징아이콘 100선

01. 강화 부근리 고인돌



- 강화 부근리 고인돌(사적 제137호)는 청동기시대에 건립된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로 주변에 있는 고인돌군 중에서도 거대한 규모를 자랑함
- 고인돌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문화에서 나타나는 거석기념물의 일종으로 지난 2000년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하게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 역대 한국 세계유산 중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유산

기본형



응용형



02. 문학산성



- 문학산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성
- 삼국시대 이후 문학산성은 왜국의 침입이 잦았던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주민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임진왜란 때 왜군을 격파하기도 함
-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6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기념물 제 1호 지정

기본형



응용형



03. 능허대



- 연수구 청량산 끝자락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조그만 봉우리를 형성
- 과거 중국 사행(使行) 길에 오르는 사신들이 배를 탔던 곳으로 전해짐
- 바다와 맞닿은 반도형의 소구릉으로, 동쪽 끝에는 '소독' 이라고 불리는 작은 인공 제방이 있어 포구 역할 수행(이 포구를 일컬어 '한나루' 라고 함)

기본형



응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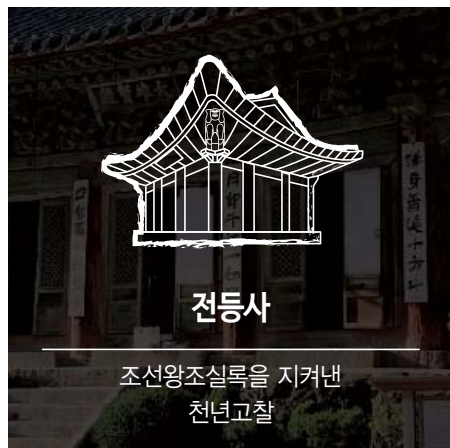


04. 전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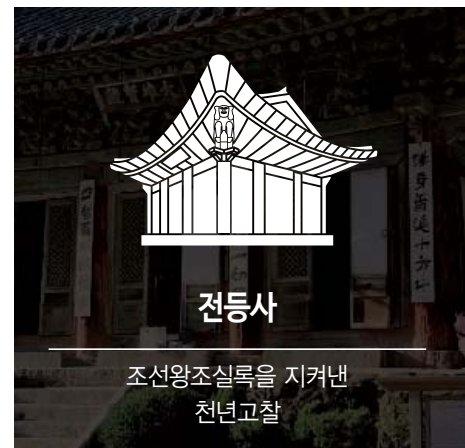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 381년(소수림왕 11년)에 맨 처음 창건된 절로서 옛 이름은 진종사이며, 현재로서 '현존하는 최고의 사찰' 임
- 진종사(전등사의 옛 이름)는 글자대로 참된 종교 또는 참된 믿음 추구하는 곳이라는 뜻
- 1707년(숙종33)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정족산사고를 관리하는 사찰이 되어 정부의 지원을 통한 관리 및 경기 서부 일대의 사찰을 관장하는 수사찰 지위 승계

기본형



응용형



05. 참성단



- 강화도에 위치한 남한 유일의 단군 관련 유적으로 단군이 하늘에 제사하던 곳
- 원형으로 쌓은 하단 위에 방형의 제단을 둔 모양이며 위의 네모난 것은 땅을, 아래의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여 음양이 서로 교차하게 되면 조화를 이루어 만사가 형통한다는 의미로 해석
- 제천의식 뿐만 아니라 1955년 이후 전국체전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화 채화

기본형



응용형



06. 마니산



- 개천대제와 성화가 채화되며, 1949년 지정된 개천절 행사의 공식 의례 장소인 참성단이 위치한 강화도의 역사적 명산
- 백두산과 한라산의 중앙에 위치하는 마니산

기본형



응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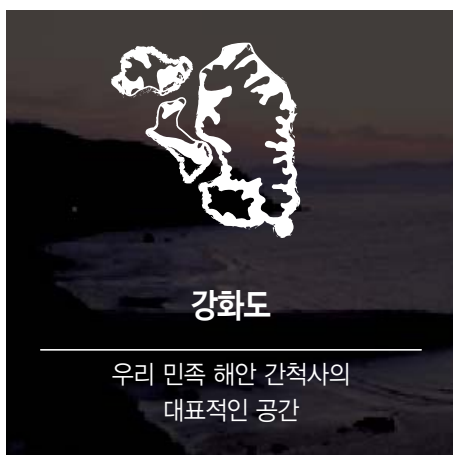


07. 강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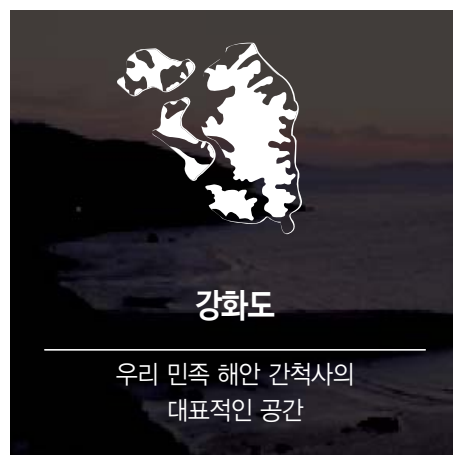


- 고려시대에 몽골침입으로 인한 도성주민들의 자급자족을 위한 간척사업이 강화도에서 시작
- 조선후기 강화와 교동이 군사적 요충지가 된 이후로 대규모 인력동원이 가능해져 강화도 간척사업이 더욱 확대 됨
- 1706년(숙종 32) 강화유수민진원에 의해 군병 11만 명이 참여하여 대규모 토목사업인 선두포 축언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얻어진 땅은 1천여 섬지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

기본형



응용형



08. 7대어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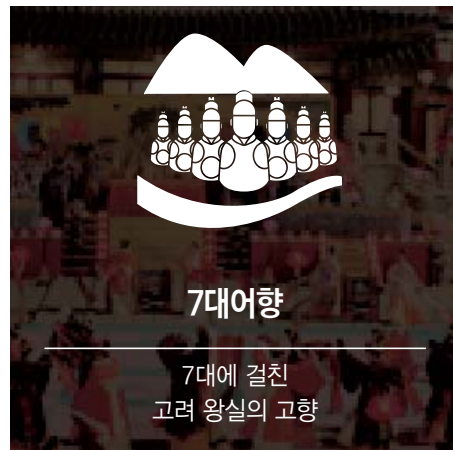


- 공명왕은 고려 말, 고려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조상을 높이고 알리려는 뜻에서 인주를 부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읍호를 환원
- 왕의 고향을 의미하는 어향의 뜻을 확대하여 7대 동안 인천이 왕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칠대어향이라고 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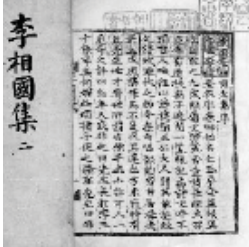
기본형



응용형



09. 상정고금예문



- 1234년 (고종 21)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책으로 강화시대에 팔만대장경 간행 등 정신력의 결집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하였음
- 고려 인종 때 최윤의 등 17명이 왕명으로 고금의 예의를 수집·고증하여 50권으로 엮은 전례서

기본형



응용형



10. 팔만대장경



- 불교 연구에 관한 자료 문헌을 총 망라한 불교총서
- 고려시대 1011년(현종 2)에 처음 조판되고 빠진 것을 보완하여 제4차 팔만대장경 조판
- 1236년(고종 23)대장도감 설치 후 16년에 걸쳐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적의 침략을 물리치겠다는 정신력으로 8만여 판의 경판 간행에 착수하여 1251년(고종 38) 완성
- 우수성과 문화사적 의의는 세계기록유산(2007)으로 등재

기본형



응용형



11. 강화도 고려 왕릉



- 왕릉은 왕족의 지위 및 예법에 맞게 세심하게 건축된 복합시설
- 남한유일의 고려왕릉군으로 강화도에 2개의 왕릉과 2기의 왕비릉이 위치
- 고려시대 왕릉들은 신라 방식으로 지어졌지만 산등성이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시냇물 사이에 지어지는 야상, 또한 고려 왕릉은 돌을 쌓아 단을 만들고 돌계단을 만들어 그 상단에 봉분을 조성

기본형



응용형



12. 교동향교



- 향교는 수도 이외의 각 지방에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한 관학 교육기관
- [교동읍지]에 의하면 고려 인종대 전반에 설치되었으며 [교동지]의 옛 교동읍지 내용 중 우리나라 첫 번째 향교임을 언급함
- 현재까지 공자화상을 처음 모셨던 공자묘(孔子廟)의 수위(首位)가 되는 묘전(廟殿)으로 추앙

기본형



응용형



13. 원도사



- 낙섬은 조선시대에 원도라 불리며 서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국가와 지방관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제사로 원도사에서 지냈음
- [조선왕조실록] 1437년(세종 19) 3월, 1527년(중종 22) 5월에 국가제사와 관련되어 원도의 제사는 인천 부근의 여러 섬들의 제례를 합사시킨 것

기본형



응용형



14. 연평파시



- 서해의 조기어업의 중심지로 5~6월에 어장을 이루는 연평도에 수십 억 마리의 조기를 따라 형성되는 시장이 곧 파시임
- 일제강점기부터 발동선의 보급과 어구·어망의 개량으로 조기 어획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1960년대 말 마구잡이 어획으로 조기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연평도의 조기파시는 막을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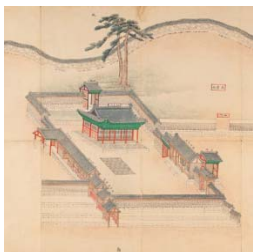
기본형



응용형



15. 외규장각



- 1782년(정조 6) 2월 14일 정도는 규장각의 분관인 외규장각을 강화 행궁에 설립하여 왕실 물품, 어제와 어필, 의궤, 서적류 등 왕실의 중요한 물품과 서적을 봉안
- 외규장각에 봉안된 의궤의 경우 임금이 보는, 어람용 의궤로 다른 의궤에 비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이었음
- 현재 외규장각 건물은 2003년 강화군이 복원

기본형



응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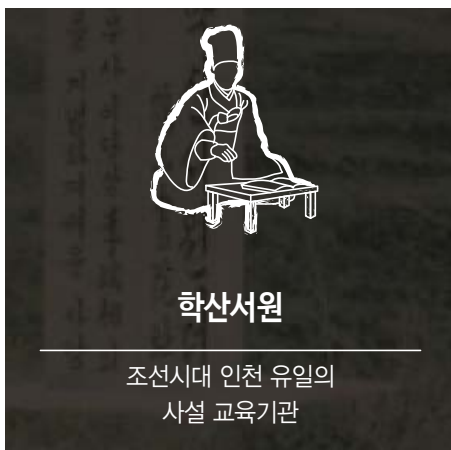


16. 학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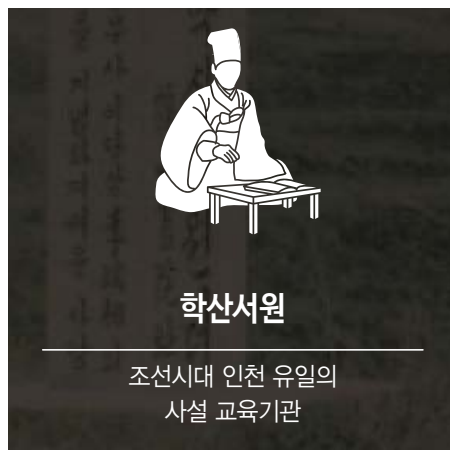


- 서원은 16세기 이후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교육과 선현을 제향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곳으로 인천지역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 서원중 학산서원이 유일함
- 1708년(숙종 34) 설립된 사액서원으로 인천부사 이단상을 추모하여 건립되어 인천 지역의 인재양성 및 풍기교화 담당
- 근래 학산서원 터를 찾아 지표석을 세우고 그 정신적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 거행

기본형



응용형



17. 서양인이 기록한 인천



- 서양인의 기록 중 인천과 관련한 첫 기록은 동인도회사에 근무하던 해군장교 홀(Basil Hall)의 서해 5도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인 [조선서해탐사기]
- 인천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상은 대개 개항장 제물포의 풍광 소개 및 각 조계지의 건물과 활기찬 거리와 사람들의 모습 서술

기본형



응용형



18. 강화 연무당



- 1876년 2월 27일 한국 최초의 국제조약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이 인천 강화산성 서문 건너편에 있는 연무당에서 체결
- 1870년(고종 7)에 창건된 연무당은 우리 민족의 암울했던 과거사를 잊지 않기 위해 기적비가 세워져, 민족 자주의식을 드높이 간직해야 한다는 경고 표출

기본형



응용형



19. 축구와 야구의 출발지



- 인천은 축구의 도입과 최초의 팀창단 지역으로, 1882년(고종 19) 인천항에 상륙한 영국 군함 플라잉 피시(Flying Fish)의 승무원들을 통해서라고 전해짐
- 국내 야구의 시발지인 인천은 일제시대부터 '구도'로 불릴 만큼 야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컸으며, 항상 야구에 대한 자긍심이 자리잡고 있었음

I 기본형



II 응용형



20. 조약 체결지



- 1882년 4월 6일(양력 5월 22일) 제물포에서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서구 열강과 맺게 되는 최초의 조약임
- 조미조약, 제물포조약, 영국, 독일과의 조약체결 장소는 지금의 자유공원으로 가는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 부근에 천막을 치고 맺었던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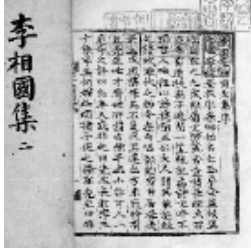
I 기본형



II 응용형



21. 이화양행



- 1883년 한국에 제일 먼저 진출한 최초의 서양 무역회사
- 이화양행은 중국식 이름으로 본래 상호는 자딘메티슨이며, 1832년 영국의 윌리엄 자딘과 제임스 매티슨이 중국 광저우에 설립한 상사
- 조선과의 협약에 따라 인천과 상해를 연결하는 한국 최초의 정기 항로 개설 및 광산채굴권 획득

기본형



응용형



22. 인천감리서



- 개항장에서의 통상사무, 외국인의 입출국, 개항장의 내·외국인 문제 등을 관장·감독 할 행정기관으로 감리서를 최초로 설치
- 인천항 감리서는 부산, 원산 등의 개항장과 함께 1883년(고종 20) 8월 19일 감리가 임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개항장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제물포 항구 인근에 감리서 건립

기본형



응용형



23. 인천해관



- 한국 최초의 해관인 인천해관은 1883년 6월 16일부터 수세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인천해관의 창설은 관세행정의 효시로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
- 화물이나 인원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현장의 기상을 위하여 1883년 9월 1일부터 정기적인 해양 기상관측이 시작되었고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인천해관에서 종합적인 연안기상관측 시작

기본형



응용형



24. 인천 외국인묘지



- 1883년 사실상 국내 최초의 외국인 묘지로 북성동 1가 1번지에 설치, 최초 매장은 1885년 11월 미국인 조셉 티몬스(Joseph Timmons)임
- 1965년 도시 계획에 따라 현 연수구 청학동 야산의 새 묘역으로 이전하였고,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등에서 왔던 외국인들의 묘비 66기가 남아있음

기본형



응용형



25. 각국조계



- 조계는 개항장의 일정 지역에 외국인 전용 거주 지역을 획정하여 그곳의 지방 행정권을 외국인에게 위임한 것
- 각국공동조계는 1884년 11월 체결된 [조영수호동상조약]에 의거, 조선과 미국, 영국, 청, 일 5개국이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을 체결함으로써 확정
- 인천(1884.10), 진남포, 목포, 군산, 성진, 마산 등 6개 항구에 개설되었으나, 제대로 기능한 것은 인천의 신동공사(자체 행정기관)가 유일

기본형



응용형



26. 청관



- 오랫동안 조공무역체제를 유지했던 청국과 1882년 자유무역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청국과 조선정부는 1884년 4월 [인천구화상지계장정]을 체결하여 청국전관조계를 확정, 이후 인천은 상업발달과 함께 대외무역도 크게 증가

기본형



응용형



27. 세창양행 사택



- 인천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주택으로 1883년 상사 설립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에서 온 세 명의 사원을 위한 기숙사
- 건물의 외관은 성탑처럼 생긴 4각형 2층 누각이 높이 서 있는 황백색의 벽돌조 지상 1층 건물이었으나 인천상륙작전 중 소실되었음

기본형



응용형



28. 우체국의 효시



- 우표만을 붙여 지역 간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시로서 가히 혁명적인 일이며 그 출발점은 인천과 서울이었음
- 광복 후 1949년 8월 인천우편국은 우리의 '인천우체국' 으로 돌아왔고, 현재 우체국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한국 최고, 최초의 우체국으로 198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 8호로 지정

기본형



응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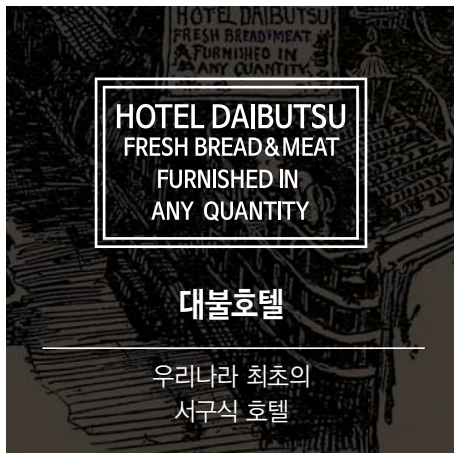


29. 대불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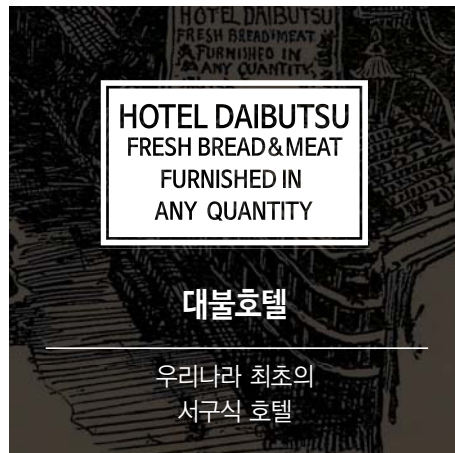


- 개항 후 인천항으로 들어 온 외국인들을 위한 숙박 시설
- 일본인 호리 리키타로가 세웠으며 1887년 착공, 1888년 준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설계했다고 전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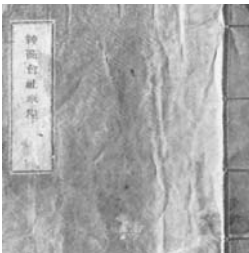
기본형



응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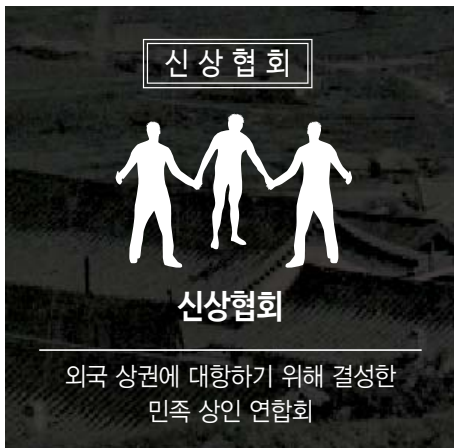


30. 신상협회



- 인천항신상협회는 인천객주회를 모체로 한 단체로서 외국 상인들의 상권침탈에 대항하여 민족상인의 상권 옹호하고 민족상인의 사업자세를 혁신코자 촉구하였으며 당시 민족주의 운동의 주요한 측면인 육영사업을 지원
- 인천항신상협회 회원들이 1905년 7월 2일 설립한 근대적 성격의 상업회의소가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임

기본형



응용형



31. 내리교회



- 인천에서 한국 최초의 감리교 예배를 드린 것은 인천이 서양 문물의 출입구로 기능하였기 때문
- 제물포를 통하여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아펜젤러는 1885년 6월 28일 외국인을 위한 감리교 예배를 인도, 얼마 후 한국 최초로 풍금을 들여와 찬송하며 예배를 봉헌 함
- 1891년 11월 내리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화이트 채플이라 명명함

기본형



응용형



32. 세창양행 광고



- 1884년 6월 조선에 진출한 두명의 외국인에 의해 설립된 무역회사로 광고를 통해 회사의 인지도를 높였던 관계로 '세창' 이라는 상표를 조선 대중에게 각인
- 세창양행이 1886년 2월 22일 [한성주보]에 실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 상업광고로 진정성과 공정성, 친밀성을 지닌 전략을 통하여 광고 게재

기본형



응용형



33. 각국공원



- 인천항 개항으로 각국공동조계가 설정 시 여러 개의 구역을 나눠 정리하면서 러시아 측량기사 사바찐의 설계로 1888년 최초로 서구식 근대공원 조성
- 각국공원은 광복 후 만국공원으로 불렸으며, 임시정부의 수립, 선포 결정 등 역사적 사건의 발상지

기본형



응용형



34. 답동성당



- 1886년 한국과 프랑스 간 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선교가 가능해지자 파리외방전교회에서 1889년 7월 1일 폐낭신학교에 있던 빌렘 신부가 인천 최초의 천주교 성당인 답동성당 (당시 제물포성당)을 설립하고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
- 최초 성당 설립 후, 몇 번의 개축공사가 있었지만 비교적 옛 모습 그대로 보존

기본형



응용형



35. 일본 제18은행



- 일본 나가카시에 본점을 둔 제18은행은 인천과의 무역량이 증대하면서 1890년 설치된 것으로 해외에 세운 최초의 지점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0호인 건물은 리모델링되어 2006년부터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활용

I 기본형



II 응용형



36. 성누가병원



- 1891년 10월 16일, 미국인 의사 랜디스가 인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성 누가 병원 설립
- 랜디스 사망 후 잠시 폐쇄 후 임시로 러시아영사관으로 사용되었고 1956년 6월 23일 같은 부지에 새 성당을 건립하고 성 미가엘 성당(내동 교회)으로 명명함

I 기본형



II 응용형



37. 인천전환국



- 인천전환국은 1892년 5월 착공되어 11월에 준공되고, 이상의 신식화폐조례에 따라 5냥 은화, 1냥 은화, 2전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를 주조함
- 인천전환국에서 최초로 제조된 화폐에는 '대조선개국오백일년'이라는 국호와 연기가 표기됨

기본형



응용형



38. 담손이 방앗간



- 1892년 타운센드(W.D.Townsend)는 일본인 오쿠다 사다지로와 합작으로 한국 최초로 근대식 스팀 동력기를 도입한 정미소를 인천에 설립
- 타운센드 상회에서 운영하는 정미소가 담손이 방앗간이라 불림
- 인천은 국내 최대의 미국 집산지이면서 수출항으로 급부상하고 인천 공업에서 정미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

기본형



응용형



39. 영화학당



- 1892년 우리나라 서구식 초등교육기관인 영화학당 설립
- 1917년 인천 최초 유치원 부설, 1926년 부속 여학교 설립, 1930년 유치원 부설
- 1911년 완공된 영화학당의 교사가 일부 남아있는 건축물은 2001년 4월 2일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이라는 명칭으로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39호로 지정

I 기본형



II 응용형



40. 이운사



- 1893년 1월 이운사(利運社)라는 해운회사 설립
- 개인화물과 보통여객의 운송까지 취급하는 명실상부한 해운기업으로 우리나라 최초 근대 민간해운업의 효시가 되는 회사로 규정

I 기본형



II 응용형



41. 양무호



- 개항을 전후로 국력의 상징은 해군력에 있어 군함을 보유하는 것이 국력 상승으로 연결
-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군함으로 '나라의 힘을 키운다'는 뜻의 양무호가 1903년 4월 15일 인천항에 들어옴
- 1903년 8월 시운전을 거쳐 우리 군함으로 정식 등록
하지만,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무단 징발되었다가 1909년 경매를 통해 다시 일본에 매각

기본형



응용형



42. 조선수사해방학당



- 해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수사해방학당(水師海防學堂)을 별도로 설치
- 군사교육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어 청일전쟁 발발 및 국내외 압박이 심해졌으나 차후 군함 도입을 추진하는 계기 마련
- 학당이 위치하고 있던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61번지 일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49호로 지정

기본형



응용형



43. 해성보육원



- 1894년 설립된 한국 최초 보육기관으로서 인천에서 근대적 아동 보육이 시작
- 당시 인천에서는 보릿고개가 극심하고 가난으로 버려지는 고아가 많았고 이들을 맡아 보육
- 1946년 한국 정부로부터 후생시설(보육원)으로 정식 인가되었고, 해성보육원 설립 이후 지금까지 1만여 명이 넘는 아동이 이곳을 거쳐감

I 기본형



II 응용형



44. 최초의 시외전화



- 1902년 3월 서울-인천 간 전화가설(가입자 5명), 6월 시내교환전화가 가설되며 인천우편국에서 전화교환 사무 시작, 1905년 전화통화 사무 시작
-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에는 우리나라 최초 전화 가입자를 대한 천일은행 본점과 인천 지점으로 기록

I 기본형



II 응용형



45. 협률사



- 1895년 정치국이 개관한 인천 지역 조선인 최초의 공연장
- 개항 이래 격동의 긴 시간만큼 인천 문화예술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
- 오늘의 애관(愛館)의 전신으로서 일청전쟁 중(1894년~1895년)지었던 단층 창고를 연극장으로 전용
- 1912년 '축항사' 라고 명칭을 바꿈

기본형



응용형



46. 인천미두취인소



- 1896년 5월 5일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에 개설되었으나 일제가 미국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설립한 기관임
- 당초 7가지 상품 거래를 하다가 1904년부터 운영상의 문제로 거래품목 한정
- 미두취인소의 거래 방식은 오늘날 증권 거래와 거의 비슷함

기본형



응용형



47. 인천항재판소



- 1895년 (고종 32년) 5월 일제가 재판제도의 개혁 요구한 것을 계기로 개혁 법률 제 1호인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설치
- 주요 업무로는 민사·형사 사건 및 외국인 관련 민사사건 처리
- 1905년 11월 을사조약 강제 체결로 외부의 모든 기능 정지로 인한 소멸

기본형



응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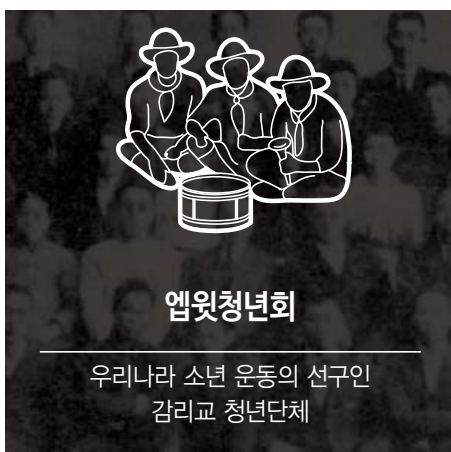


48. 엽윳청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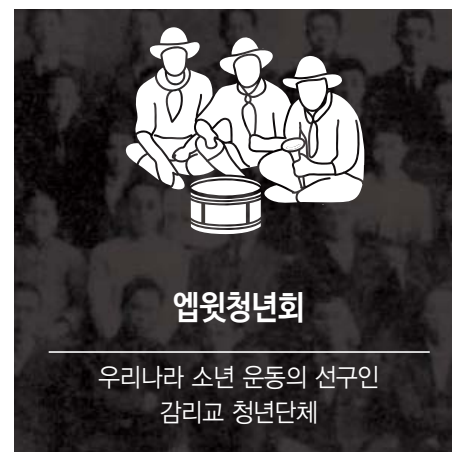


- 1889년 미국에서 창설된 감리교 내 청년 단체로 1897년 내리교회 내에 한국 최초의 엽윳청년회가 조직됨
- 우리나라 소년 운동의 선구적 역할 수행을 하였으며 인천 지역에서 일제의 침략에 대해 초기에는 계몽활동으로 대항하다 애국운동으로 발전
-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 후 1908년 재조직, 1923년 남녀 엽윳청년회 통합하여 소년회 조직

기본형



응용형



49. 인항어상회사



- 1899년에 조선인이 설립한 유일한 어시장 인천항어상회사
- 인항어상회사는 어민들이 잡은 어류를 '할인'하여 매입한 후 판매 방식 사용
- 1911년 조합원 총 52명의 어상조합으로 변경
- 일본인들이 설립한 인천수산주식회사는 현재의 인천 수협이 전신이 됨

기본형



응용형



50. 경인선



- 경인철도는 1897년 3월 29일 기공, 1899년 9월 18일 개통된 한국 최초 철도
- 1899년 9월 13일 인천과 노량진 사이를 운행하는 경인철도의 임시영업 시작
- 개통 당시 경인선은 증기기관차 4대와 객차 6량, 화차 28량으로 운영되었고, 7개 역으로 하루 2차례 왕복

기본형



응용형



51.성공회 강화성당



- 1900년 성공회(聖公會, The Anglican Domain)에서 지은 한국 최초의 한옥 성당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 한옥과 서양 건축양식이 어우러져 건축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424호 (2001년 1월 4일 지정)로 지정

기본형



응용형



52. 제물포구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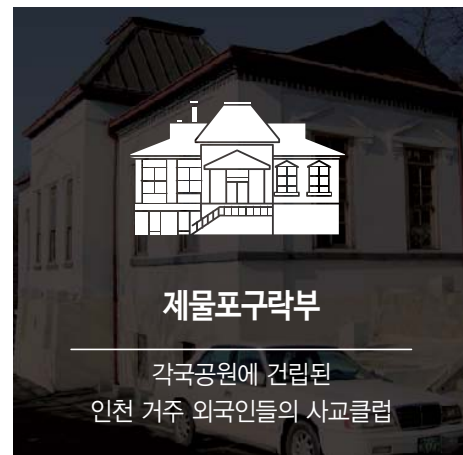


- 1891년 청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사교클럽
- 서울 정동에 결성된 정동구락부(1894)보다 3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사교클럽

기본형



응용형



53. 예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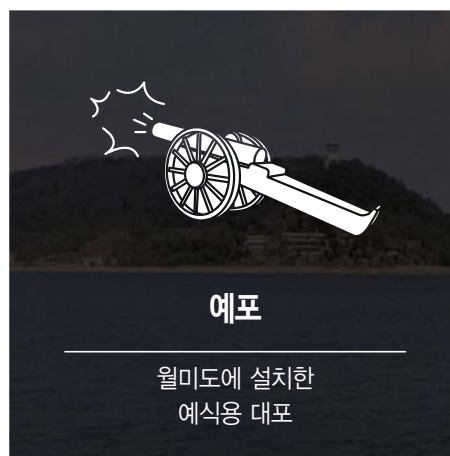


- 국가 · 부대 함정을 공식 방문하는 내외국의 국가원수, 고위관리 등이 도착하거나, 군함이 외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등 각종 의례시 그 수례 대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 군대나 군함이 일정수의 공포탄을 발사하는 예식절차
- 고종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국대사를 맞이하는 포대를 월미도에 설치

기본형



응용형



54. 동양연초주식회사



- 동양연초주식회사는 1902년 5월 그리스인 밴들러스 필립이 영국인과 합자하여 자본금 3만원으로 빈정(濱町:사동)에 설립한 인천 최초의 담배 제조 · 판매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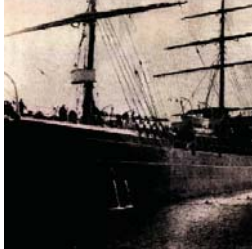
기본형



응용형



55. 하와이 이민



- 1902년 12월 22일 121명이 인천 제물포에서 하와이를 향해 출발한 한국 최초의 정식이민, 이후 1905년 이민이 금지될 때까지 총 64회 7,400여 명의 이민 활동

기본형



응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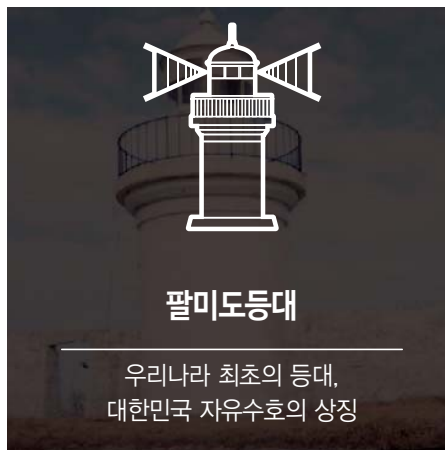


56. 팔미도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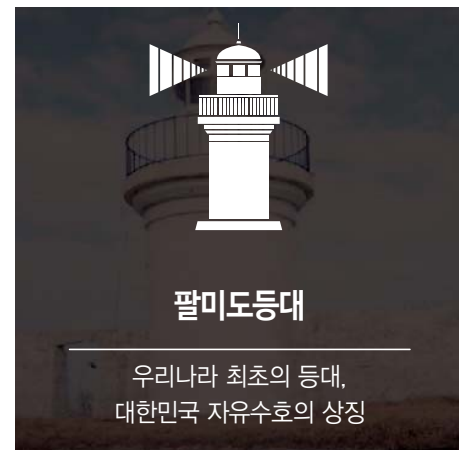


- 1903년 6월1일 팔미도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
- 조선 정부가 인천에 '해관등대국(海關 燈臺局)'을 설치한지 1년여 만에 이룬 우리 해양사(海洋史)의 쾌거이자 신기원

기본형



응용형



57. 제녕학교



- 1903년 6월 설립된 인천 최초 민간인이 경영하는 학교
- 내동 강응원 양조장 자리 근처에 신식건물이 아닌 초가의 형태의 학교 건물 건립
- 민족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설립된 인천신상협회가 애국계몽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설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큰 의의
- 1907년 6월 1일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에 통합

기본형



응용형



58. 광제호



- 서해안 경비를 위해 만들어진 '광제호'는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군함으로 무선전신시설이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
- 광제호는 자체 시운전을 거쳐 1904년 12월 20일 대한제국 정부에 인도되었고 해안경비, 등대순시 및 세관 감시 등에 이용됨

기본형



응용형



59. 대한천일은행 인천지점



- 1899년 1월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1911년 조선상업은행, 광복 후 상업은행으로 개칭)이 설립
- 당시 일본 자본의 증가와 함께 일본은행 설립으로 외국 금융침투가 심각해지자 서울의 유력한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을 주도하고 황실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순수 민족은행
- 1899년 5월 대한천일은행의 인천지점을 개설한 국내 금융기관 최초의 지점 개설은행

기본형



응용형



60. 사이다



- 1905년 2월 일본인 히라야마 마츠타로가 인천 탄산수제조소를 신흥동 해광사 인근에서 창업하며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다

기본형



응용형



61. 아라뱃길



- 2012년 5월 25일, 인천 오류동과 서울 개화동을 잇는 총 길이 18km, 폭 80m의 대수로가 개통되었고 정부는 이 운하를 ‘경인아라뱃길’로 명명
- 한강의 수해방지를 위한 방수로 건설과 수리시설 개선, 교통망의 확충, 매립지 확보를 위한 토사 채취 등 산업적 목표로 추진

기본형



응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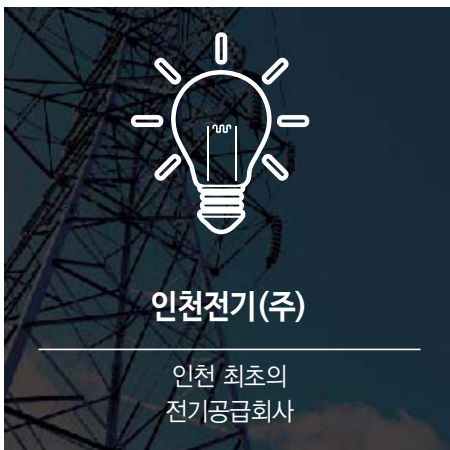


62. 인천전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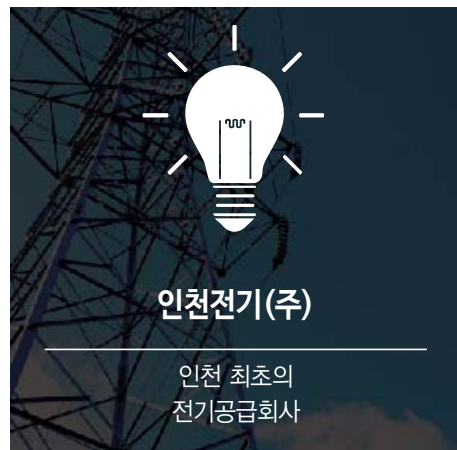


- 인천에서 전기 사업은 1905년 6월 각국 외국인이 모여 공동 출자한 인천전기주식회사가 시초
- 일본인, 서구인, 청국인이 주주가 되어 자본금 12만 5천 원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1906년 인천이사청의 특허를 얻고 지금의 중구 송월동 2가 한국전력 인천지점 창고 자리에 발전소를 차림
- 1906년 4월 인천전기가 영업을 개시하였고 러일전쟁 이후 전등 수요도 폭증

기본형



응용형



63. 붉은 벽돌 쌀 창고



- 1905년 9월 6일 '공동창고조례' 발표 후 창립 된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가 세워지면서 현대적 창고업무를 시작하였고, 1906년 인천과 강경 등지에 각각 출장소를 설치해 창고 업무 확대
- 인천 창고 영업은 이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인천출장소에서 시작 됨. 1912년 천일은행 합병 후 조선상업은행으로 개칭해 조선상업은행 인천지점 역할 수행

I 기본형



II 응용형



64. 오포



- 오포(午砲)는 포(砲)를 사용하여 정오(正午)를 알리는 것
-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보는 1906년 2월 9일 시작되었는데 매일 낮 12시 정각이면 한번씩 공포를 쏘았던 탓에 관측소가 있던 응봉산은 '오포산'이라 불리기도 함
- 1931년 7월 1일 홍예문 위 인천상비소방소 감시탑에서 사이렌으로 대체되기까지 계속됨

I 기본형



II 응용형



65. 인천공립보통학교



- 인천공립보통학교는 창영초등학교의 옛날 이름으로 1907년 5월 6일 개교
- 순수 민족 자본으로 세워진 조선인을 위한 인천공립보통학교는 초등교육을 담당하였고, 주변에는 최초의 서구식 초등교육기관인 영화학교와 고서점 거리가 자리하여 이 일대가 인천지역 교육의 중심지
- 창영초등학교 구 교사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16호로 지정되어 있음

기본형



응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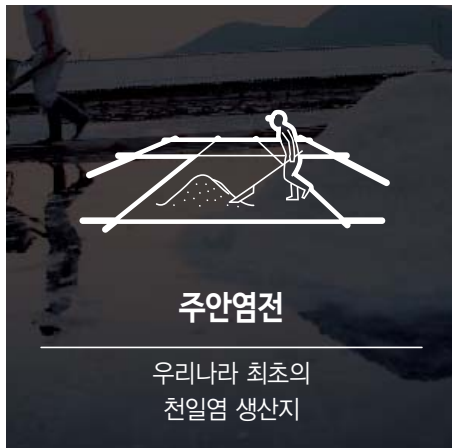


66. 주안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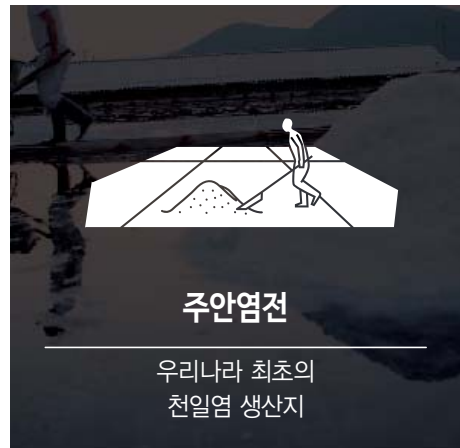


- 1907년 인천의 주안면 십정리에 최초로 시험용 염전 축조 후 이를 토대로 1909년부터 본격적인 한국 최초의 천일염 생산에 들어가게 됨
- 인천은 지형, 기후, 토질 면에서 천해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거대한 배후시장이 있어 경인철도를 통해 신속한 물류가 가능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 1968년 주안염전이 폐염되어 산업단지로 조성

기본형



응용형



67. 홍예문



- 해안의 조계지와 내륙을 연결하는 응봉산 마루턱을 깎아서 길을 내고 그 정점에 세운 무지개 모양의 돌문
- 화강암과 연와(벽돌)를 혼용하여 만들었으며, 1905년에 기공하고 1908년에 완공
- 일제강점기 당시의 토목 공법과 재료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

기본형



응용형



68. 송헌배수지 제수변실



- '노량진~인천' 사이에 수도관 부설 후 1910년 12월 10일부터 인천으로 급수를 시작함
- 동구 송헌동 23-5번지에 위치한 송헌배수지는 인천 최초의 상수도 시설로 현재 제수변실과 23단의 화강석으로 된 장대석 계단, 철제 정문 등이 남아 있음
- 송헌배수지 제수변실은 2003년 11월 10일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3호 지정

기본형



응용형



69. 상계월보



- 일본인 상권 독점을 위해 배포하던 상업회의소월보에 대응해 1912년 인천조선인 상업회의소 화두였던 최응삼에 의해 최초의 월간지인 『상계월보(商界月報)』 창간
- 1912년 5월 11일 발간된 이 책자가 인천 최초의 출판물로 매월 발행이 계속되어 1915년 4월 15일 제36호까지 이어짐

기본형



응용형



70. 짜장면과 짬뽕



- 2006년 7월 문화관광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상징' 의 하나로 짜장면을 선정
- 인천은 중국의 짜장면의 원류인 '자지앙미엔' 과 '시나우동' 또는 '잔폰'가 유사한 짬뽕을 처음 먹기 시작한 장소

기본형



응용형



71. 비누



- 1912년 10월 비누 생산 설비를 갖춘 인천에 위치한 애경사에서 비누 광고 실시
- 1958년 '미향 비누'를 한달에 100만개를 팔아 경인 간의 화물차량 대부분 '애경유지' 차량이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애경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비누회사

I 기본형



II 응용형



72. 인천도로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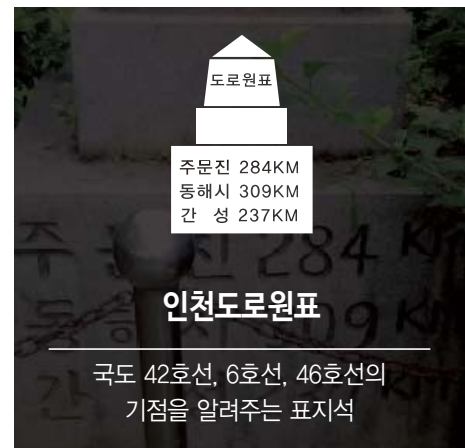


- 도로원표(道路元標)는 도로의 기점(起點), 종점(終點) 또는 경과지를 표시한 것
- 인천 도로원표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위치이며, 이곳이 다른 지역과의 거리를 표시할 때 기점이 되는데 이처럼 도로원표는 지역마다 그곳 도로의 근원이 됨

I 기본형



II 응용형



73. 수조원점



- 우리나라에서 1913년 12월부터 1916년 6월까지의 2년 7개월간 관측한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0.00m로 하여 이를 육지에서 높이의 기준면으로 한 최초의 수조원점은 중구 항동 1가 2번지에 있었음
- 2006년 4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247호로 지정되었으며 국토 높이 측정의 기준점이 되는 국가적 시설물로 학술적 · 역사적 가치가 큰 근대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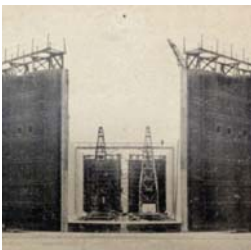
기본형



응용형



74. 이중 갑문식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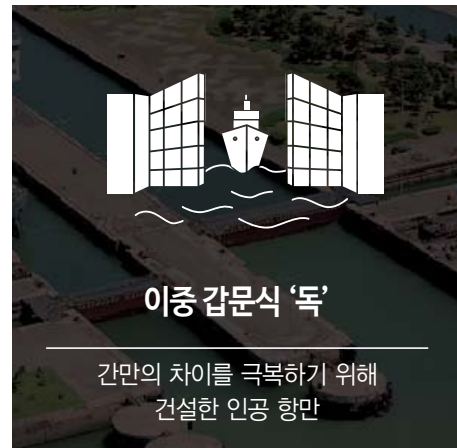


- 무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항만시설 개선이 필요하였으나 인천항의 10m가 넘는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 1911년부터 항만 설비확장공사 실시
- 4500톤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크기의 인공(人工)항만 제1선거 축조를 시작했으며 이 항만은 최초의 근대적 갑문식 도크공사로 1918년 10월 완공

기본형



응용형



75. 조선인촌주식회사



- 인천 최초의 성냥 공장은 1917년 10월 금곡리에 설립된 조선인촌주식회사
- 패동, 우록표(羽鹿票), 쌍원표(雙猿票) 등의 성냥을 연간 7만 상자를 생산하였으며 금곡동과 송림동 지역의 다가구에서 성냥갑을 만들어 공장에 납품하는 등 인천지역 최고의 가내수공업으로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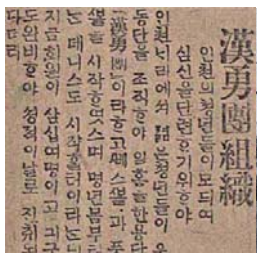
기본형



응용형



76. 경인기차 통학생 친목회



- 경인기차를 타고 인천에서 서울로 통학하던 조선인 학생들이 친목회 조성
- 경인기차 통학생은 꿈과 희망과 야망을 갖고 있었고, 기차는 이동 교실이나 도서관, 연구실도 되었음
- 인천 민족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던 경인기차통학생 친목회는 인천 젊은 지성의 요람

기본형



응용형



77. 인천의 양조공장



- 개항 이후 인천이 미국 집상지가 되면서 정미업과 양조업 발전
- 『인천부사』에 인천 5대 소주 공장으로 최승우의 양조장 기록
- 1919년 10월 한국 최초로 조일양조주식회사라는 소주양조회사가 설립
- 금강표라는 소주는 양조계의 대표적 생산품이며 국내는 물론 만주, 사할린에서도 각광

기본형



응용형



78. 월미도 조탕



- 1920년대 바닷물을 데워 목욕물로 사용한 우리나라 최초, 유일의 조탕이 월미도에 만들어짐(해수탕의 원조)
- 숙박과 휴게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서구식 무대장치가 마련된 연무장 설치 등 당시로서는 첨단의 시설을 자랑하는 전국 최고의 휴양시설

기본형



응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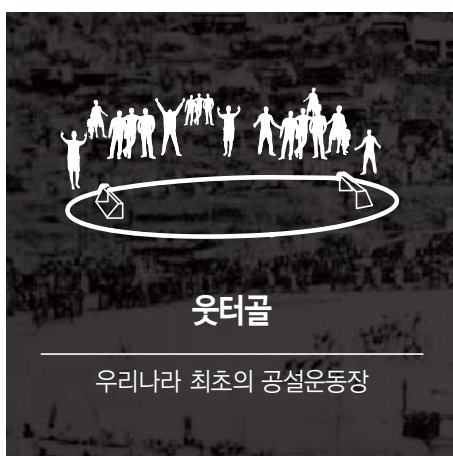


79. 윗터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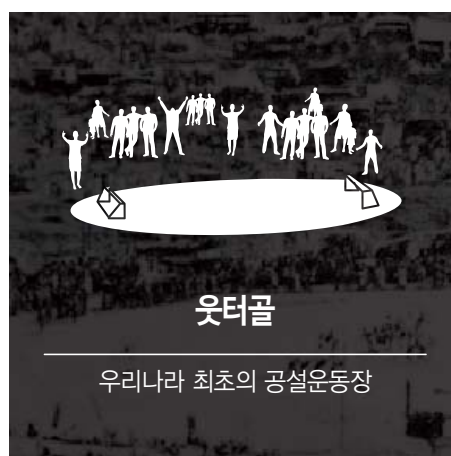


- 윗터골운동장은 시내 어디에서나 쉽게 올라다볼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분지
- 분지 형태의 윗터골은 1920년 11월 고르게 닦고 넓혀 인천의 공설운동장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최초의 공설운동장
- 윗터골운동장은 한국 체육의 성지이고 인천 체육의 메타

기본형



응용형



80. 인천부립도서관



- 1922년 1월 6일, 인천 중구 송학동 '청광각(淸光閣)'에 공공도서관 성격을 띤 인천부립도서관 개관 (청광각: 한국 최초의 서양식 건물 세창양행 사택)
- 부산 · 대구 · 서울에 이어 한국에서 네번째로 개관한 공공도서관
- 2013년 7월 19일 유네스코에서 인천을 우리나라 최초로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

기본형



응용형



81. 훈맹정음



- 1926년 11월 4일, 강화 출신 송암(松庵) 박두성이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창안하여 반포
- 이 점자를 '맹인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맹정음(訓盲正音)'이라고 함
-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하고, 1999년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내 송암박두성기념관과 송암점자도서관 설립

기본형



응용형



82. 인천기상대



- 1904년 4월 6일 러일전쟁시 전쟁에 필요한 기상관측을 위하여 제물포에 일본중앙기상대 제3임시관측소를 설치하였고, 일본군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날씨 예보와 폭풍우 경보
-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통신국 소속의 조선총독부 관측소로서 신식 기상관측의 중심지로 주목
- 1929년 9월, 적도의(赤道儀) 설치 후 한국 최초의 망원경에 의한 천문관측 시작

기본형



응용형



83. 수인선



- 1937년 7월 19일 개통되어 58년간 인천과 시흥, 안산, 수원에 여객과 화물운송 철도
- 협궤선(狹軌線)인 수인선은 수원-인천간을 1시간 40분에 연결하였고 개통 후 중부내륙지방과 인천항간에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기능 수행

기본형



응용형



84. 경인공업지역



- 1930년대 후반 조선총독부가 경성과 인천을 연결하는 대규모 공업지대 조성을 구상, 착수함에 따라 인천에 본격적인 대공장 설립
- 주로 기계공업이 대부분이었으며 1939년에는 육군조병창(陸軍造兵廠)이 부평에 설립됨으로써 공작기계공업도 크게 발전

기본형



응용형



85. 애스컴



-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 처음 도착한 미 제24군단이 접수한 부평 인천육군조병창과 군수공장 일대를 '애스컴시티(ASCOM CITY)' 라고 명칭
-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 설치된 하야리아 부대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미군기지
- 애스컴은 주한미군 부대에 전쟁 물자와 식량을 보급하는 보급창 역할을 하였고 1973년 6월 30일 공식 해체

기본형



응용형



86. 인천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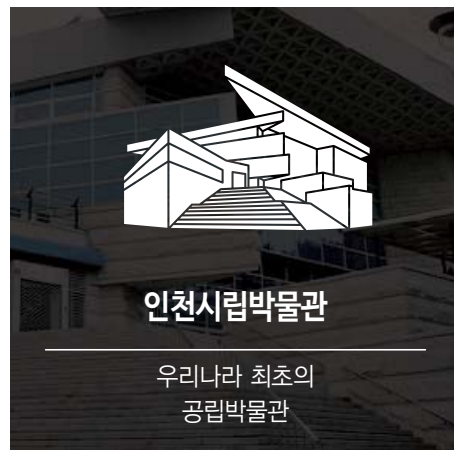


- 1946년 4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부립박물관(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만국공원 내 향토관(옛 세창양행 사택) 자리에서 개관
- 광복 후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때 문화재 밀반출을 염려하여 이를 제지하고 문화재를 수장·전시할만한 공간 필요에 따라 건립 추진
- 1953년 4월 1일 제물포 구락부 건물로 이전하여 다시 개관 후 1990년 5월 4일 연수구로 청사를 이전 개관

기본형



응용형



87. 대중일보



- 광복 후 서울 '조선일보' 나 '동아일보' 가 복간되기 전 1945년 10월 7일 인천에서 발행된 우리말 신문, '대중일보' 탄생
- 대중일보는 인천 언론인들의 자부심이며 인천 언론의 뿌리로 자리매김

기본형



응용형



88. 인천상륙작전



-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하여 전쟁을 반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1950년 9월 15일 새벽2시, 인천상륙작전을 알리는 함포사격 시작
- 상륙작전 이후 10일 만에(28일) 서울을 탈환한 것은 전투 일수 1/3 단축 및 아군의 병력 14만 명과 국민 200여 만 명의 피해를 줄인것으로 평가되며, 6.25전쟁의 반전의 발판 마련

기본형



응용형



89. 새나라 자동차



- 1962년 자동차공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재일교포 박노정씨가 일본 닛산과 기술제휴 통해 부평에 새나라자동차 설립
- 유선형의 세련된 외형을 지닌 새나라 자동차는 현대식 조립라인 갖춘 한국 최초 자동차 조립에 해당함

기본형



응용형



90. 극동방송



- 1956년 인천시 학익동 동양화학 본사 자리에서 최초 대외방송으로 기독교 복음방송 전파
- 선교사의 파송이 불가능한 공산권지역의 주민들에게 기독교 전파의 목적으로 설립
- 인천의 중요한 행사의 현장을 중계하면서 지역사회를 알리는 역할 등 극동방송과 사회간의 유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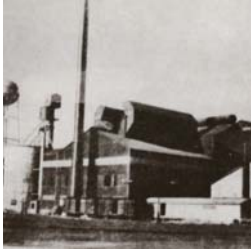
기본형



응용형



91. 인천판유리



- 1905년 3월 송월동에 설치된 구야(久野)유리제조소가 인천 최초 유리제조소
- 1956년 동구 만석동 석탄공사 저탄장 자리에 인천판유리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1957년 9월 30일에 준공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원료와 기술로 만든 판유리 공장이 인천에 설립

I 기본형



II 응용형



92. 한국화약



- 1957년 10월 김종희는 인천화약공장에서 국내 최초 순수 우리 기술로 다이너마이트 개발에 성공하여 1958년 상업화
- 수입화약의 국산화와 생산을 이루어낸 인천화약공장은 한국 화약산업의 발상지

I 기본형



II 응용형



93. 부평 지하도상가



- 최초의 지하도상가인 '새서울지하상가'가 개통되기 4년전인 1963년 인천에는 '동인천지하도'가 건설(1963년 2월 15일부터 같은 해 11월 20일 완공)
- 현재 인천에 5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총 15개 지하도상가가 있으며 부평지하도상가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하쇼핑센터로 2014년 11월 미국 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단일면적 최대 지하상가 점포 수' 세계기록으로 공신 인증

기본형



응용형



94. 경인고속도로



- 인천과 서울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1967년 3월 24일에 착공하여 1968년 12월 21일 양평동에서 가좌 나들목 구간 우선 개통에 따라 기존 1시간에 달하는 운행 시간을 18분으로 단축시켜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전국 1일 생활권 구축 서막
- 1981년 현재와 같이 경인고속도로 명칭 공식화

기본형



응용형



95. 쫄면



- 쫄면 유래로 여러가지 이설이 있으나 1970년대 초 인천 중구 경동에 위치한 '광신제면'에서 냉면을 만들다 실수로 우연히 나온 굵은 국수 가락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정설
- 2002년 일본 신주쿠에서 열린 '한국 10대 도시 향토요리 전시회'에서 인천의 대표 음식으로 선정되어 국제적 관심 고조

기본형



응용형



96. 인천국제공항



- 2001년 3월 29일 한국 최대 인천국제공항 개항
- 2004년~2012년까지 국제공항협회가 실시하는 공항서비스평가에서 연속 세계 1위 최우수 공항 선정
- 2006년~2014년까지 9년 연속 미국의 여행전문지 글로벌트래블러가 선정한 세계 최고 공항상 수상

기본형



응용형



97. 인천경제자유구역



-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 국제도시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 동북아시아의 물류, 비즈니스, 레저, 관광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3년 연속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확보

기본형



응용형



98. 인천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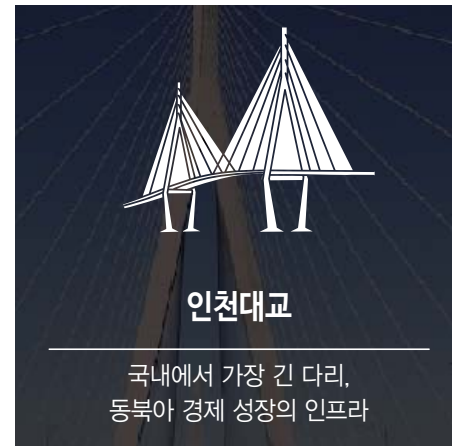


-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길이 21.348km의 국내 최장의 다리
- 2005년 7월 착공하여 2009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세계적인 공사담게 교량에 관한 최신 첨단 기술과 공법을 집약하여 건설
- 인천대교 완공으로 동북아 경제의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기본형



응용형



99. 녹색기후기금



-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는 한국 최초로 유치한 유엔(UN)산하의 국제기구로, 2013년 12월 4일 국제도시 송도에 설립
- 자본금 1,000억 달러 규모의 국제금융기구를 인천에서 출범하였다는 점과 유럽과 미국에 편중된 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

기본형



응용형



100. 동북아무역타워



-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있는 지상305m, 68층 초고층 건물로, 약칭 NEATT (Northeast Asia Trade Tower)라 함
- 2014년 11월 기준 세계에서 73번째로 높고 국내에선 가장 높음
- 동북아무역센터는 오피스와 호텔, 전망대 등 복합시설로 전망대와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

기본형



응용형



3.3.3 기타 상징아이콘

표기방법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에 포함된 100개 이외의 대표 상징물 또는 앞으로 새롭게 선정되는 상징물에 대하여 상징아이콘 개발 전 표기 방법

I 기본형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Korea first, Incheon Best



I 응용형 ▶ **한국최초 인천최고** KOREA FIRST, INCHEON BEST



3.4 활용 가이드라인

3.4.1 상징아이콘 적용 가이드라인

베이직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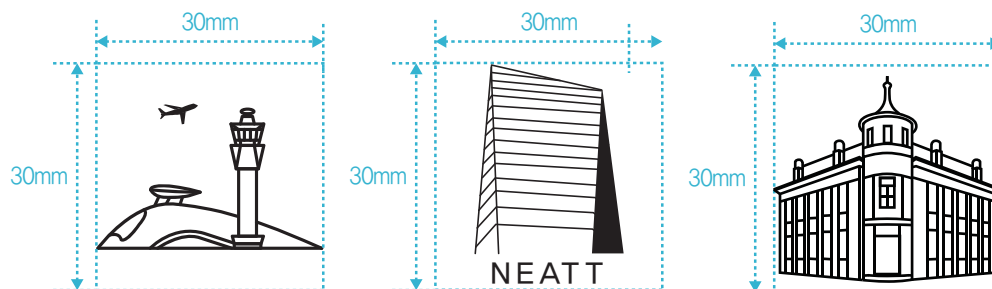
■ 기본구성

- 상징아이콘은 문화재 및 역사적 장소를 상징하는 심볼마크와 명칭으로 구성
- 심볼마크는 상징아이콘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로 문화재 및 역사적 장소의 특징을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
- 따라서 형태나 색상 등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



■ 최소규정

- 문화재 및 역사적 장소별 특징이 달라 대표 심볼마크를 이용한 수치적 공간규정은 어려움
- 따라서 최소 크기는 아이콘 크기의 정비례에 의해 장변 30mm으로 설정



■ 서체 기본원칙

- 상징아이콘 명칭은 심볼마크와 더불어 상징아이콘을 구성하는 디자인 요소로 심볼마크 이미지와 조화성을 고려하여 조합
- 상징아이콘 명칭은 각각의 글꼴 형태에 따라 비례 조정된 것이므로 글자의 형태, 굵기, 비례 등 임의 변경 불가

■ 서체 규정

- 한글과 숫자는 나눔바른고딕_Bold를 적용
- 상징아이콘 적용 가능 면적의 장변이 100mm 일 경우, 서체는 18pt로 적용
- 가로장평은 -25, 세로장평은 110% 적용

나눔바른고딕
_Bold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세로장평 110%

가로장평 -25

- 영문은 Frutiger 57 Condensed_Regular를 적용
- 상징아이콘 적용 가능 면적의 장변이 100mm일 경우, 서체는 14pt로 적용
- 가로장평은 0, 세로장평은 100% 적용

Frutiger 57
Condensed
_Regular

AaBbCcDdEeFfGgHhIiJjKkLlMmNnOoPpKk

세로장평 100%

가로장평 0

■ 한글, 영문 조합

인천국제공항

18pt (10a)

7.2pt (4a)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색채 기본원칙

- 상징아이콘 BI의 주조색은 Black과 White, 색채의 재현은 본 매뉴얼의 색채 시스템 기준
- 활용 매체에 따라 명도, 채도 등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 필요

	Cyan : 0% Magenta : 0% Yellow : 0% Black : 100%	Red : 0% Green : 0% Blue : 0%		Cyan : 0% Magenta : 0% Yellow : 0% Black : 0%	Red : 255% Green : 255% Blue : 255%
---	--	-------------------------------------	--	--	---

- 인쇄 매체 등의 적용 시 발색 지정을 통해 정확한 색상 구현 권장
- 인쇄 매체 적용 시 상징아이콘의 색상 구현은 CMYK 값으로 적용
- 영상 매체 또는 웹 상에 적용시 상징아이콘의 색상 구현은 RGB 값으로 적용



■ 색채 적용

- 주조색은 상징아이콘이 배치되는 바탕면의 색상에 따라 적용
- 명도대비를 활용하여 상징아이콘의 시인성을 확보
- 바탕면 색상의 명도가 높을 경우 주조색 Black을 적용
- 바탕면 색상의 명도가 낮을 경우 주조색 White를 적용



- 다양한 색에 의하여 그라데이션 효과가 적용된 바탕면에 적용하거나 복잡한 배경 위 적용하는 경우 가독성이 좋은 주조색 적용



■ 시그니처

- 심볼마크와 랜드마크 이름을 최적의 비례로 조합한 것으로,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상하조합 또는 좌우조합의 시그니처 타입 선택 · 사용

상하조합

- 구성요소 조합 배치 시 랜드마크 이름부터 배치 후 심볼마크 크기 결정



좌우조합

- 적용 가능 면적의 가로 폭 길이가 높이 길이보다 2배 이상 길 경우 적용



외곽선

- 심볼마크의 상징성 강화를 위하여 심볼마크 외곽선을 강조
- 전근대에 발생한 역사적 장소 및 사건과 동양적 느낌의 장소 및 사건은 붓 느낌의 선을 이용하여 강조
- 이 외의 상징아이콘의 심볼마크는 매끈한 느낌의 선을 이용하여 외곽선 강조

붓 느낌의 외곽선 강조



매끈한 느낌의 외곽선 강조



3.4.2 상징아이콘 활용계획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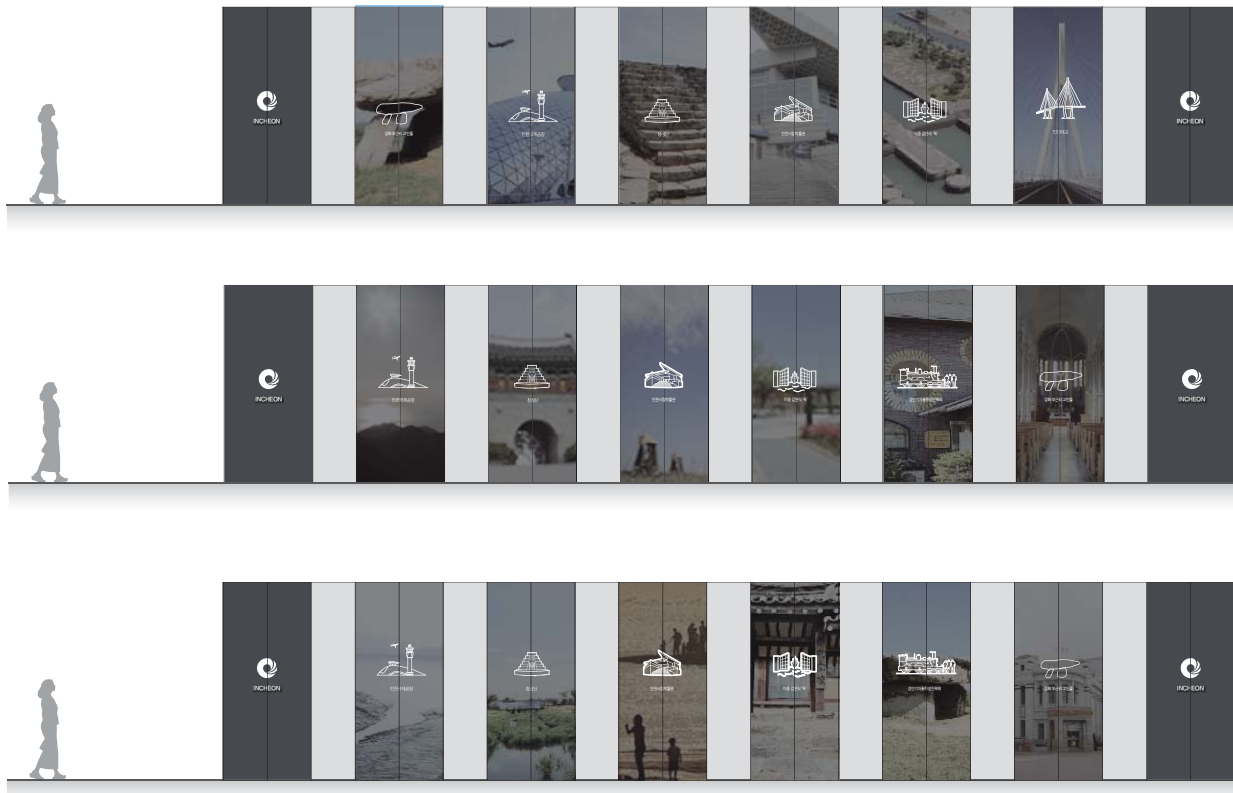
사무용품 적용

- 인천의 상징아이콘을 다양한 사무용품에 자유롭게 적용



공사가림막 적용

- 상징아이콘을 공사가림막에 조화롭게 구성하여 문화재 및 역사적 공간에 대한 관심 유도 및 분위기 개선
- 상징아이콘과 인천 관광지를 공사가림막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인천에 대한 호기심 강화



I 테이크아웃 컵 적용

- 인천의 상징아이콘을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자유롭게 적용



I 미추홀 참물 생수병 적용

- 인천에서 생산하는 미추홀참물 생수병 라벨에 적용하여 자연스럽게 인천을 알리는 홍보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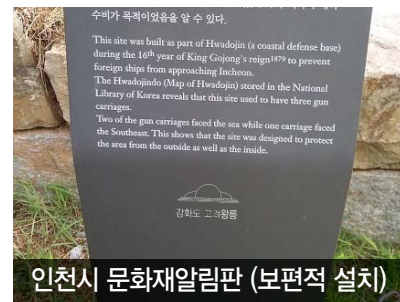
I 각종 기념품 적용

- 인천의 상징아이콘을 다양한 기념품 및 쇼핑백 등 적용하여 인천을 알리는 홍보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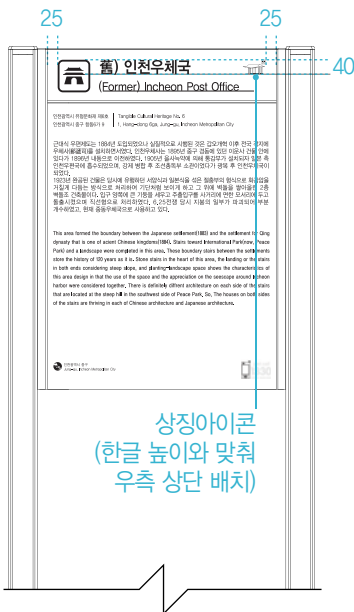


문화재알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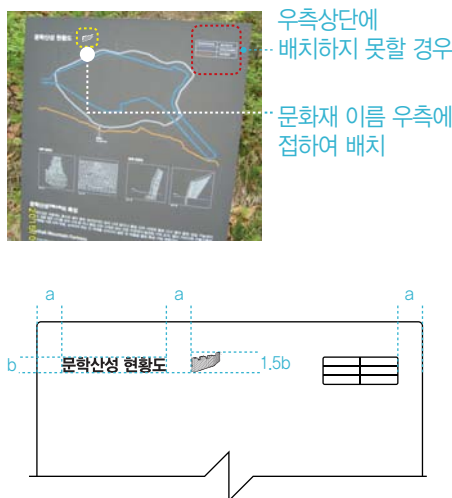
- 인천시 소재 문화재알림판에 적용
-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안내판에 배치할 경우 명칭이 표기된 문화재안내판 우측 상단 배치 원칙
- 자체적으로 설치된 인천 소재 문화재알림판에 다른 표기 요소로 인하여 배치하지 못할 경우, 문화재 이름 우측에 접하여 배치
- 보편적으로 설치된 인천시 문화재알림판의 경우, 하단의 여유공간에 중앙정렬하여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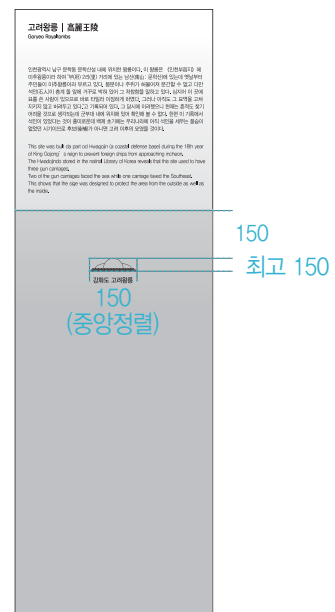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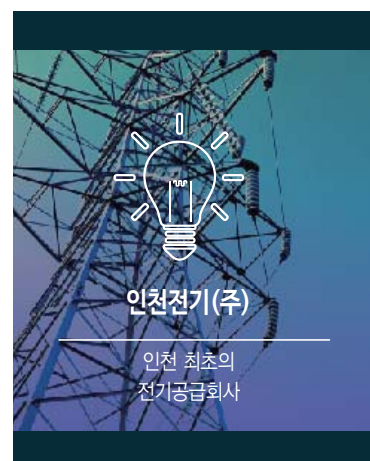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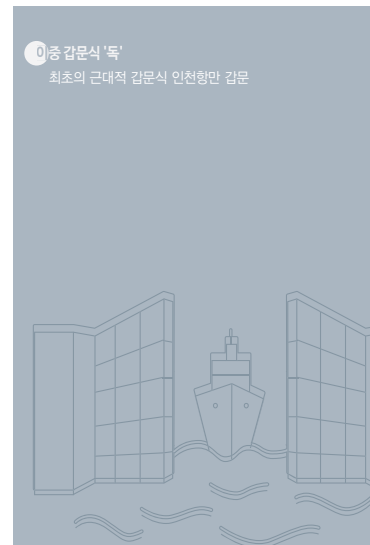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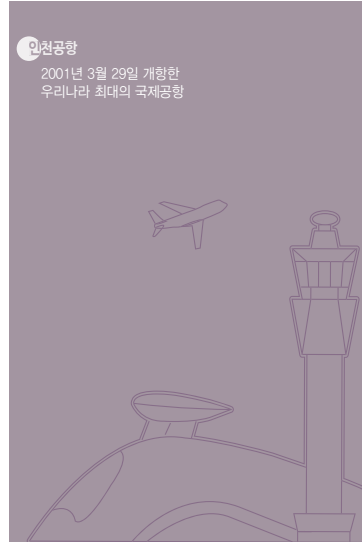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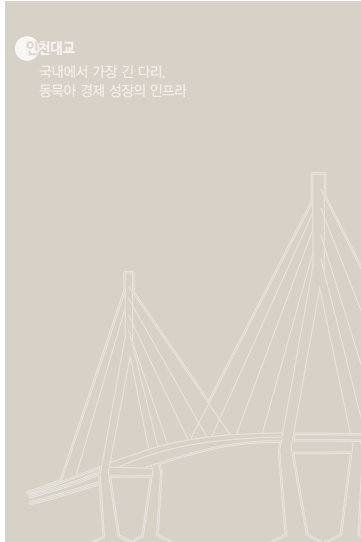
인천 소재 문화재알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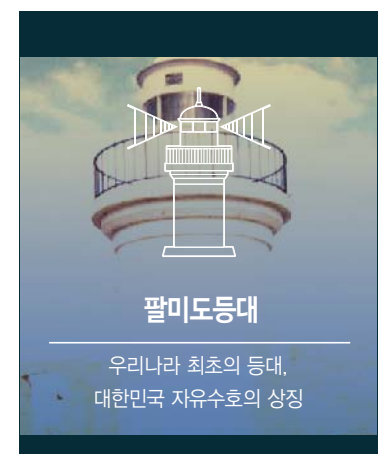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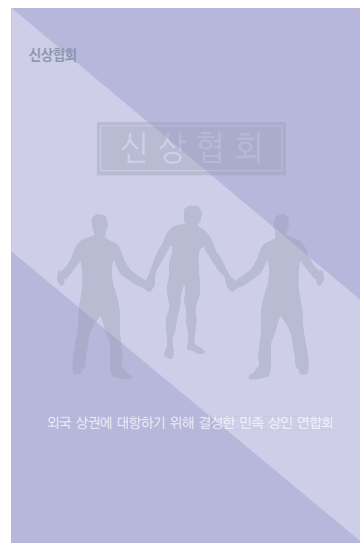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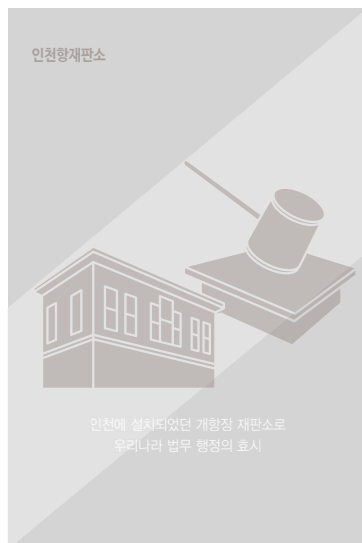


인천시 문화재알림판



상징아이콘 적용 예시









IV 지정게시대

1. 개요	092
2. 조사 및 분석	
2.1 설치 현황	093
2.2 관련법규	099
2.3 FGI	102
2.4 조사 및 분석 결과	103
3. 디자인 개발	
3.1 기본방향 및 구상	104
3.2 현수막게시대	105
3.3 시민게시대	120
3.4 지정게시대 고유번호 가이드라인	125
3.5 광고 콘텐츠	126
4. 그래픽 가이드라인	127
5. 현수막게시대 시범설치	133

4.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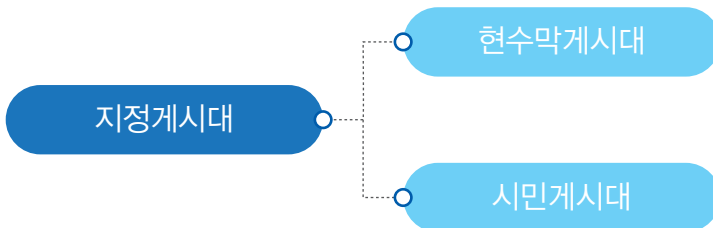
개발 배경

- 도시에 불법적으로 난립하는 광고물의 제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 설치
- 일관성없는 디자인과 설치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 공공안내판 등에 대한 표준화된 디자인 개발 필요
- 일관된 디자인 방향을 지닌 표준형 지정게시대 설치로 인한 통일된 도시 경관 조성 필요성 인식
- 차량과 보행자 모두가 이용하기 쉬운 지정게시대 설치 필요성 인식



지정게시대 정의

- 현수막 및 종이로 이루어진 옥외광고물을 자치구의 제도권 내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관리 및 광고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 정해진 지정게시대의 위치에 현수막을 게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광고의 정보를 대중에게 표출하는 시설물
- 지정게시대는 현수막게시대와 시민게시대로 구분



개발 목적

- 기존 설치된 지정게시대의 개선안 제시와 표준디자인 신규 제작 · 설치로 일관성 확보 및 가로 미관 증진
-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지정게시대 개발
-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한 깨끗한 도시 이미지 구축

4.2 조사 및 분석

4.2.1 설치 현황

자치구 별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대 수량

- 자치구 별 현수막게시대 수량은 549개소, 시민게시대 수량은 864개소 위치

자치구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대	
	관리주체	수량	관리주체	수량
경제청 (송도)	-	-	-	-
경제청 (영종)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11	-	-
경제청 (청라)	-	-	-	-
중 구	중구시설관리공단	27	중구시설관리공단	74
동 구	마운트애드	36	마운트애드	54
남 구	남구시설관리공단	69	남구시설관리공단	234
연 수 구	마운트애드	51	마운트애드	120
남 동 구	도시관리공단	91	도시관리공단	100
부 평 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58	부평구시설관리공단	50
계 양 구	계양구시설관리공단	55	계양구시설관리공단	82
서 구	마운트애드	57	마운트애드	150
강 화 군	강화군	61	-	-
웅 진 군	웅진군	33	-	-
계		549		864

※ 2015년 기준

주요 자치구 별 현수막게시대 설치 현황

남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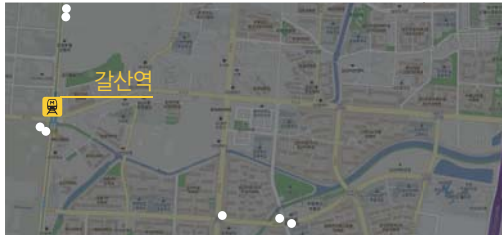
-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들과 일관성없는 디자인의 노후된 현수막게시대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 특색없는 디자인 및 지주의 기반부 노출로 인해 지역의 미관을 해침



- 게시대 위치는 교차로 및 차량이 정지하는 차량속도 저감시설과 인접하여 설치
- 상단 조명광고를 제외하고 천 재질의 현수막 광고 게재 (최고 7개 광고 동시 게재)
- 광고의 내용은 분양, 공연 및 문화, 요식업 및 판매 홍보, 의료 관련 광고 게재

부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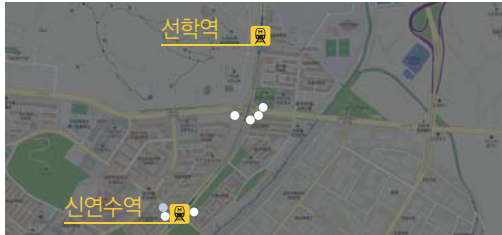
- 일관성있는 디자인, 시정홍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부평구만의 이미지 구축
- 각 시설물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시스템 구축



- 최하단의 현수막은 지면으로부터 600mm 이격되어 관목류에 의해 정보 차폐
- 상단 지역명 부분을 제외하고 천 재질의 현수막 광고 게재 (최대 6개 광고 동시 게재)
- 분양, 공연 및 문화, 요식업 및 판매 홍보, 의료 관련 광고 게재

연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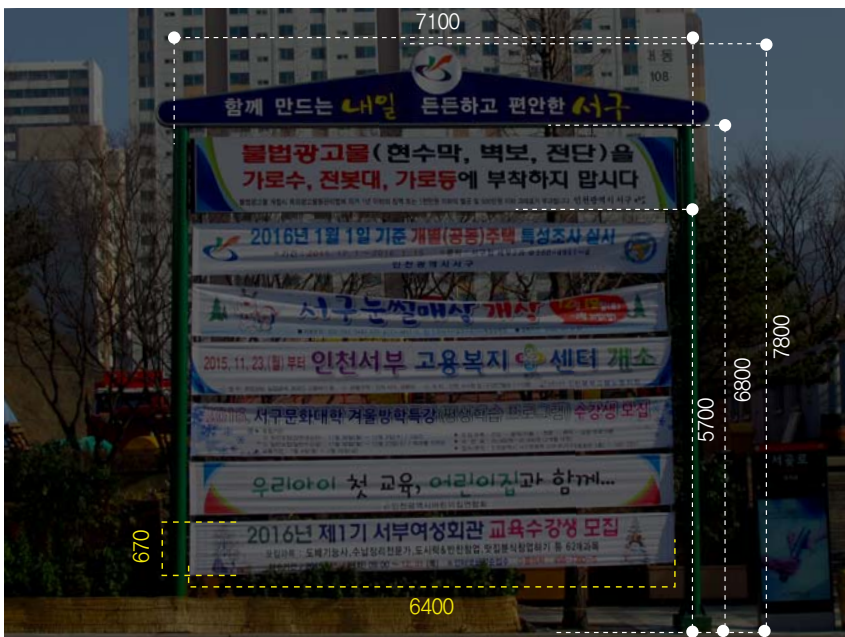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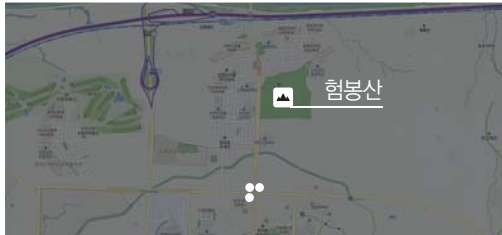
- 동일 시설물 간 일관성없는 디자인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 지역 정체성이 없는 디자인 및 지주의 기반부 노출로 인해 지역의 미관을 해침



- 최하단의 현수막은 지면으로부터 1,000mm 이격되어 설치
- 천 재질의 현수막과 상단의 조명광고를 포함하여 최대 7개 광고 동시 게재
- 분양, 공연 및 문화, 요식업 및 판매 홍보, 의료 관련 광고 게재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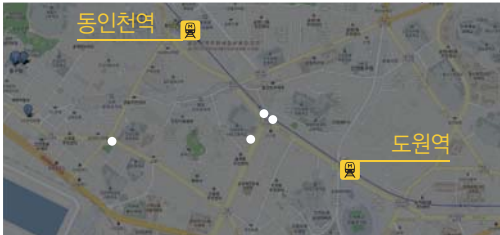
- 디자인의 일관성은 있으나, 도로변에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 특색없는 디자인 및 지주의 기단부 노출로 인해 지역의 미관을 해침



- 게시대 간 일관성은 디자인 적용
- 상단 지역명 부분을 제외하고 천 재질의 현수막 광고 게재 (최대 7개 광고 동시 게재)
- 분양, 공연 및 문화, 요식업 및 판매 홍보, 의료 관련 광고 게재

중구

-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들로 인해 주변 도시미관 저해
- 지역 정체성이 보이는 일관된 디자인, 하지만 그래픽 기준 부재로 인한 시각적 이미지 저해



도로 사이의 보도에 위치하여
차량 간 시야 차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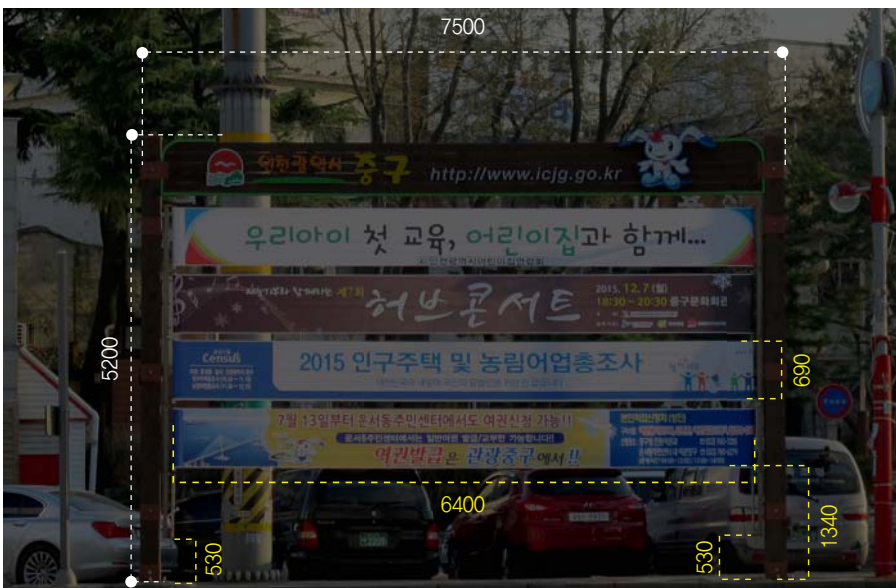
도로 쪽 보도 측면에 위치하여
보행자와 차량 간 시야 차폐 발생



유효보도폭이 확보되지 않는
게시대 배치



게시대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들로 인해 공간 혼잡도 상승



- 비대한 규격과 각진 형태의
지주로 미관 및 보행자 안전
저해
- 상단 지역명 부분을 제외
하고 천 재질의 현수막 광고
게재
(최대 5개 광고 동시 게재)
- 광고의 내용은 분양, 공연 및
문화, 요식업 및 판매 홍보,
의료 관련 광고 게재

4.2.2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행정자치부)

제2조 정의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인천광역시청)

제12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지정게시대는 군수·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
 -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군지역은 1회 15일 이내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제3조 보행권의 보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안전처)

제25조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다. 안내시설

- 1) 해당 보행자전용길의 특성에 맞는 상징이나 색채, 문양 등을 도안하여 모든 안내 시설 및 편의시설에 통일성있게 사용하고,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제25조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가. 보도 등의 장애물은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최소 1.5미터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 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환경부)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빛방사허용기준

1. 영 제2조 제1항 제1호의 조명기구

구분	시간	제1종 관리구역	제2종 관리구역	제3종 관리구역	제4종 관리구역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10이하 (lx)			25이하 (lx)

2.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조명기구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구분	시간	제1종 관리구역	제2종 관리구역	제3종 관리구역	제4종 관리구역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10이하 (lx)			25이하 (lx)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500이하cd/m ²	4000이하cd/m ²	8000이하cd/m ²	10000이하cd/m ²

4.2.3 FGI (Focus Group Interview)

전문가 집단

문제점

- 거대한 규모로 인해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부족
- 광고의 동시 게재 개수가 적음
- 노후된 지주의 게시대로 도시미관 저해
- 지정게시대 인근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 고채도의 현수막 색상으로 도시미관 저해

개선방향

- 구조의 간결화, 경량화를 고려한 디자인
- 여러 광고를 동시 게재할 수 있는 Type 개발
- 우수한 내구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질 사용
- 현수막 게재 개수 증가를 통한 불법현수막을 게시대 내 게재으로 유도
- 금지 색상 제시를 통한 게시대 주변 혼잡도 완화

군구담당자 집단

문제점

- 과도한 규모의 게시대로 보행자 시야 방해 우려
-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디자인
- 디자인 질적 수준 향상이 요구되는 현수막
- 지형, 건물 등 지형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
- 현수막의 수동적 게재 방식 적용
-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어려운 디자인

개선방향

- 구조의 경량화와 현수막 간 이격 설치로 개방성 확보
- 간결한 형태와 저채도 · 저명도 색상을 적용한 디자인
- 유형별 현수막 그래픽 구성 가이드라인 제시
- 설치 제한 규정 제시
- 현수막 체결 방식 제시로 선택 적용하도록 유도
- 다양한 설치공간에 설치 가능한 현수막게시대 제시

시민 집단

문제점

- 과도한 디자인의 게시대로 미관 저해
- 게시대 간 밀집된 배치로 답답함
- 다양한 색상의 현수막이 혼재
- 현수막 간 간격이 너무 촘촘함
- 현수막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현수막이 너무 큼

개선방향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간결하며 직선적인 디자인
- 게시대 간 배치 간격 제시
- 금지 색상 제시를 통해 게시대 주변 혼잡도 완화
- 현수막 간 최소 간격 제시
- 유형별 현수막 그래픽 구성 가이드라인 제시
- 작은 현수막이 게재되는 현수막게시대 제시

4.2.4 조사 및 분석 결과

설치 현황

-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으로 미관 저해
- 그래픽 기준의 부재로 시각적 이미지 저해
- 기단부 노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

국내 · 외 사례

- 독립된 개체를 반복적으로 설치
- 한정된 색상을 사용하여 혼잡도 낮춤
- 간결하고 풍압에 강한 구조 적용

관련계획 · 법규

- 현수막게시대의 규격, 금지 색채 규정
- 전기 사용 금지 및 현수막 게시기간, 체결 시 주의사항 규정

FGI

- 군구담당자 및 옥외광고물협회 의견 수렴
- 현수막게시대의 문제점과 개선점,
- 디자인 시안의 보완사항 수렴

시사점 도출

현수막게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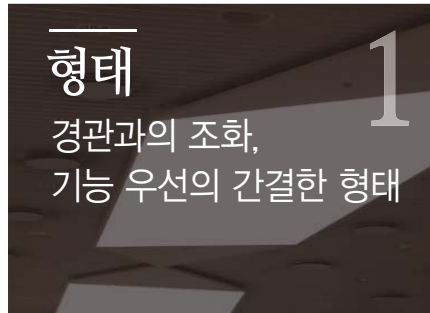
-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이용하기 편한 디자인 개발
- 법규 개정을 대비하여 혁신안 디자인 제안
- 사회약자와 교통약자를 비롯하여 보행자가 이동하기 편하도록 설치 및 배치 가이드라인 수립
-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현수막 게재를 위하여 그래픽 가이드라인 수립

현수막게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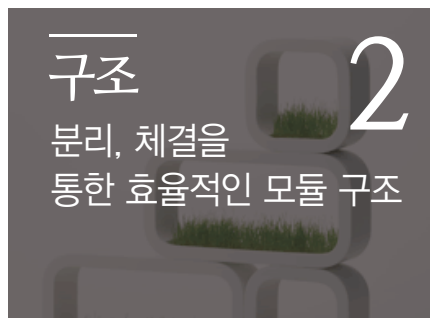
- 인천시 전역과 조화로운 범용적인 디자인 개발
- 시민게시대 전후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유형 개발
- 타공 패널을 이용하여 개방적인 이미지의 유형 개발

4.3 디자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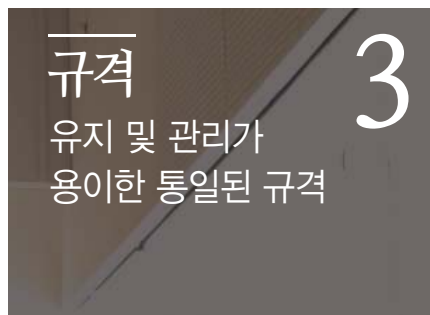
4.3.1 기본방향 및 구상



- 모듈 구조와 간결한 형태를 통한 쾌적한 경관 조성
-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여 과도하지 않은 심플한 형태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함
- 통일성있는 시설물 구성으로 일관된 경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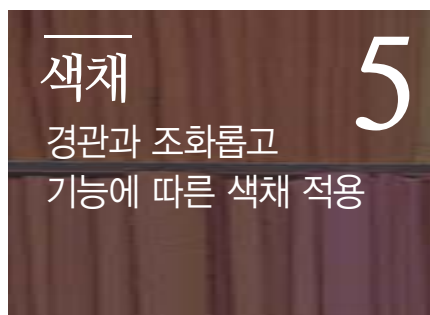
- 설치환경 여건에 맞추어 구성되도록 모듈 구조로 설계
- 압출 기동을 사용하여 가볍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
-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분리, 체결 구조
- 모듈시스템을 통하여 부분별 유지보수 및 교체가 가능



- 주요 자재의 규격을 통일시켜 운반 및 설치 용이하도록 규격 설정
- 동일한 규격품 사용으로 유지보수시 효율적인 관리



- 외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구성 및 견고성을 고려한 재료사용



-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도시이미지 및 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무채색, 중/저명도, 저채도의 주/보조 색채 선정
-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색채 대표색에 기초한 색채 선정



4.3.2 현수막게시대

■ 게첩용



기본형

기본형_원형기둥

기본형_타공슬라이드

양립형

■ 설치용



연립형

폴형

■ 혁신안



지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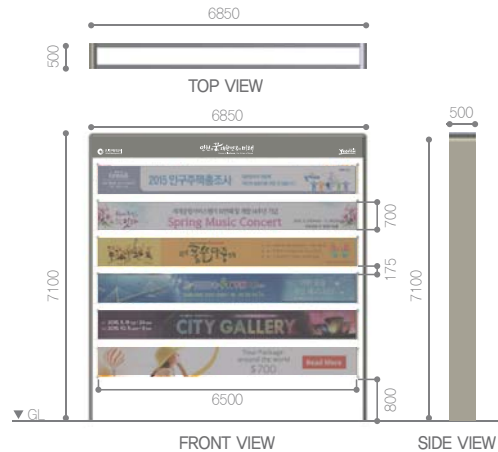
원통형

디지털 복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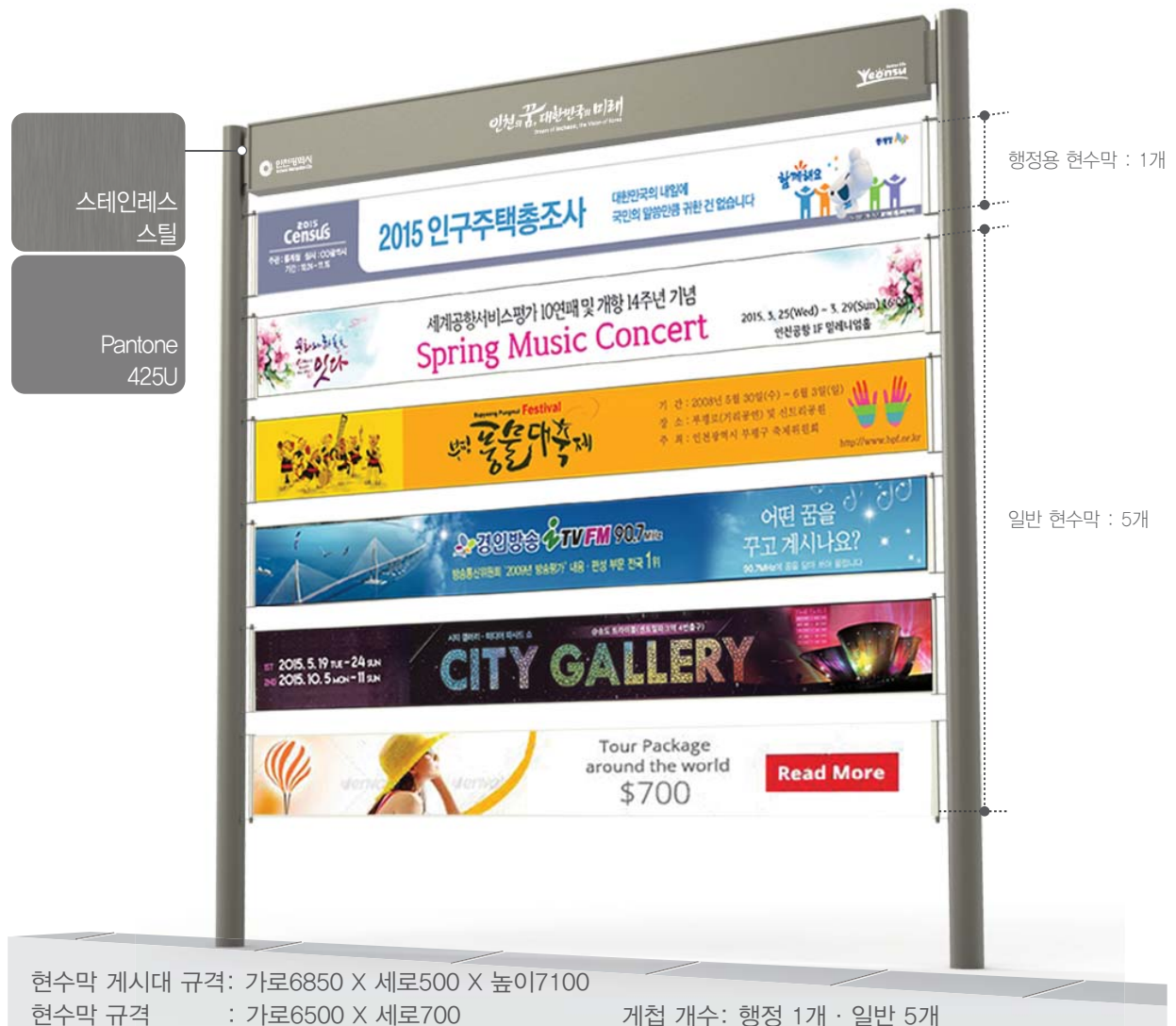
1 계첩용 현수막게시대 디자인

기본형

- 현수막 간 간격은 현수막 높이의 25% 만큼 이격하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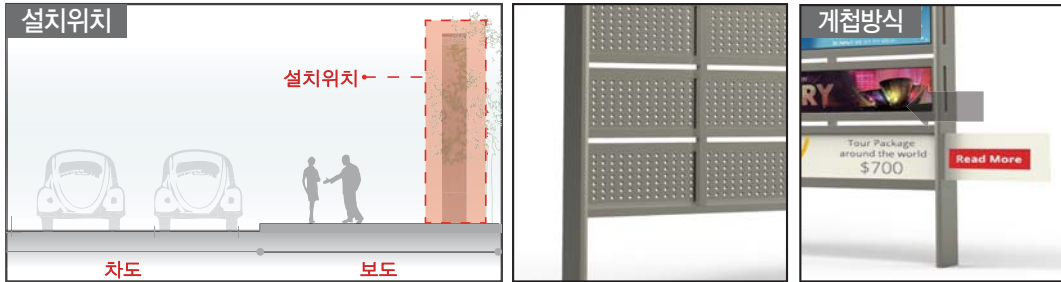


I 기본형_원형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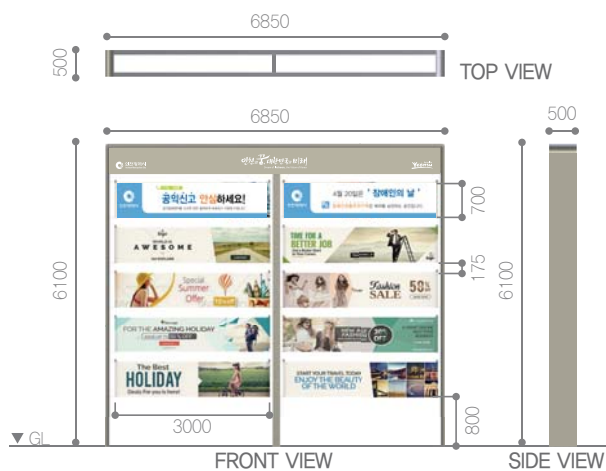
기본형_타공슬라이드

- 현수막 뒷면이 노출되어 경관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경우, 타공판을 활용하여 미관 저해 최소화



양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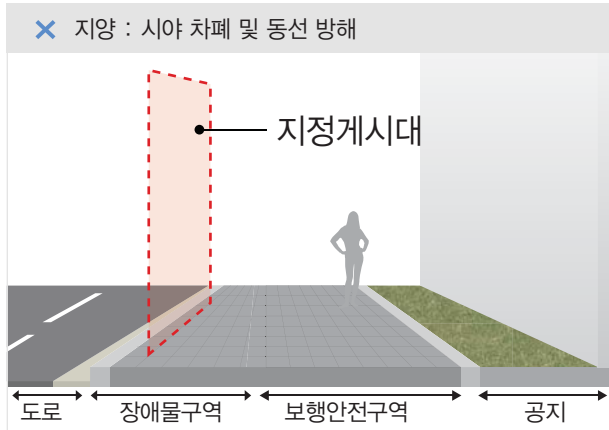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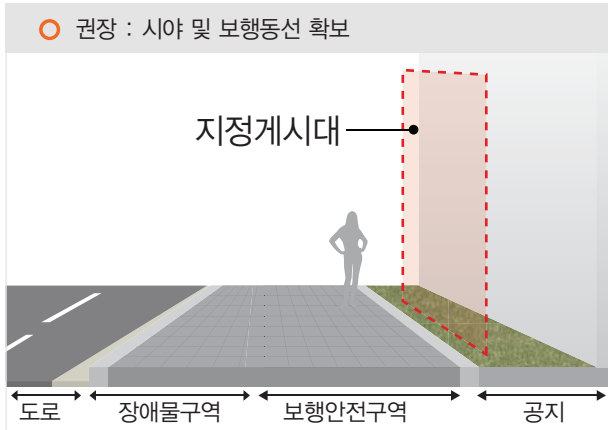
- 핵심 내용을 표기한 광고를 한 게시대에 집약 배치하여 광고 효과 상승



② 계첩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가이드라인

▮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배치

- 보행자 및 사회약자의 보행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 설치



▮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배치

-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고 이동하기 편한 공간에 설치



▮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간에 배치

- 안전한 주행을 위해 차량 운전자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 공간에 배치



■ 게첩용 현수막게시대 배치 간격

- 게첩용 현수막게시대가 연속적으로 설치될 경우 게시대 간 간격은 게시대 가로폭의 1/2 이상 이격하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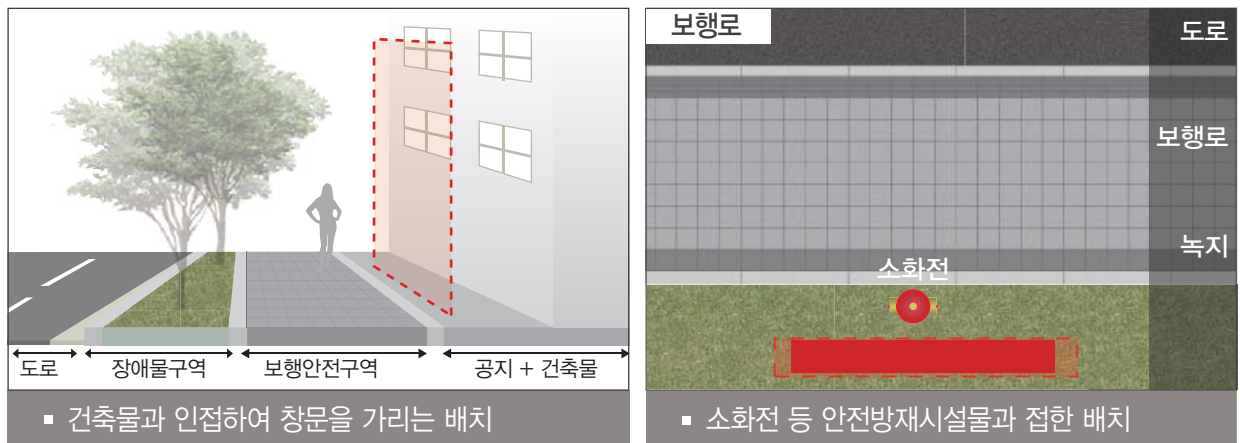
■ 현수막 배치

- 시각적 정돈을 위하여 현수막은 상단부터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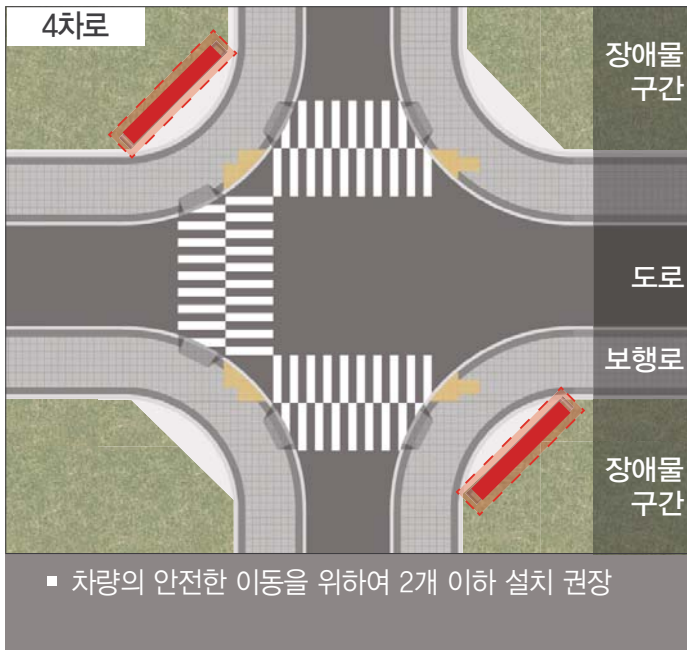
현수막의 최하단은 지피 및 관목식재에 의한 정보 차폐를 고려하여 지면으로부터 800mm 이격하여 설치



■ 지양예시



교차로 배치예시



기본형 설치기준 및 설치위치



설치기준

표준형 디자인으로서 직선도로 및 교차로에 일반적으로 설치

권장 설치위치

시설물에 의한 차폐가 발생해도 가로 경관 유지와 교통 흐름에 지장없는 곳, 교통 신호에 의해 차량이 정차하는 도로변과 교차로

지양 설치위치

교통 흐름 및 신호에 영향을 주는 지역, 안전방재시설물 및 문화재, 학교 주변

양립형 설치기준 및 설치위치



설치기준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률이 높아 광고효과를 향상시키고 싶을 경우 설치 권장

권장 설치위치

기본형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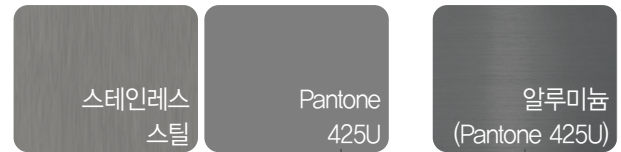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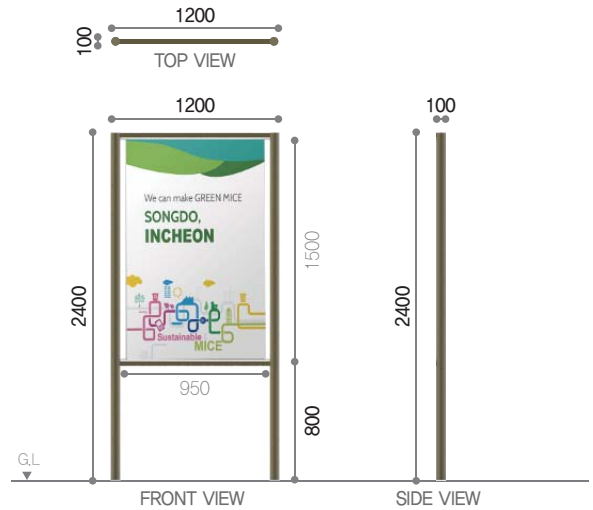
지양 설치위치

기본형과 동일

③ 설치용 현수막게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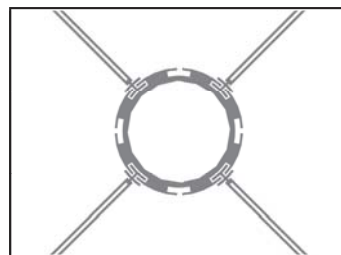
I 연립형

- 모듈 형식으로 공간의 특성에 맞도록 배치가 가능
- 보행량에 따라 정보면 설치 갯수 조절 가능



폴형

- 한 지주에 4면의 현수막을 설치
- 설치위치에 따라 정보면, 설치 갯수 조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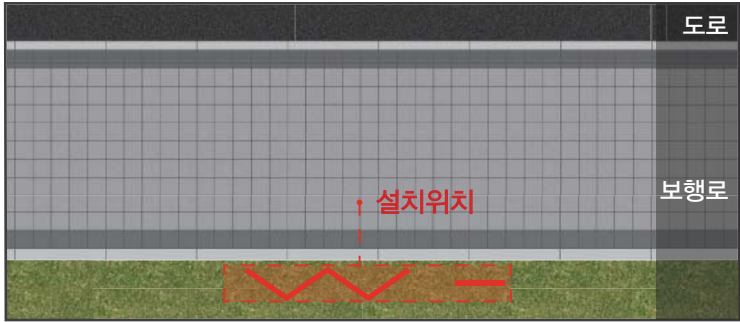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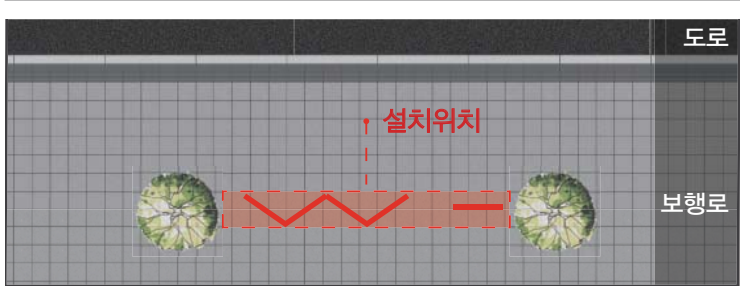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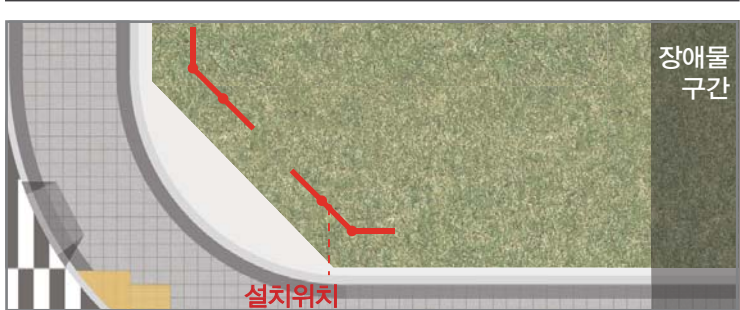


- 압축을 이용한 설계로 다양한 방향에 현수막 거치 가능



4 설치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가이드라인

I 연립형 설치 세부 지침

	도로와 보행로 배치 이용자가 보행 및 공공 시설물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자 동선과 충돌되지 않는 공간 (예: 녹지)에 배치
	보행로 설치시 - 가로수 사이의 유휴공간에 효율적 배치 - 현수막을 앞뒤면에 모두 게시 유휴 공간에 활용을 높임
	곡선부 설치시 모듈을 지형의 특징에 맞춰 게시대 배치

II 설치기준 및 설치위치

설치기준

지장물 면적을 제외한 유효보도폭이 5m 이상 확보되고 곡선인 구간을 광고 효과를 증진시키고 싶을 경우 권장

권장 설치위치

녹지를 비롯한 공지, 보행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간, 보도 중앙에 식재된 가로수 사이의 유휴공간

지양 설치위치

안전방재시설물 및 문화재, 학교 주변

III 설치 유의사항

- 연립형 모듈의 연속적 배치로 인한 개방성 저하 최소화를 위해 모듈은 최대 4개, 길이 4m를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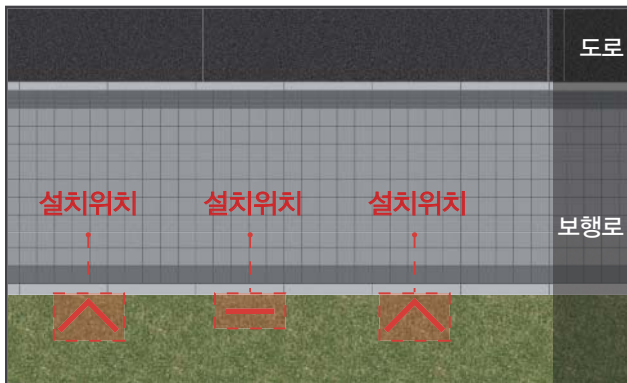


모듈 4개 이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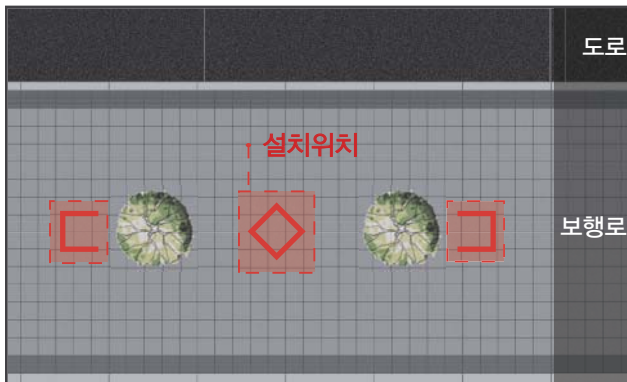
길이 4m 이하 설치

폴형 설치 세부 지침



도로와 보행로 배치

- 이용자가 보행 및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자 동선과 충돌되지 않는 공간 (예 : 녹지)에 배치
- 설치위치에 따라 게시물의 갯수 조절



보행로 설치 시

- 가로수 사이의 유휴공간에 효율적 배치
- 설치위치에 따라 게시물의 갯수 조절

설치기준 및 설치위치

설치기준

지장물 면적을 제외한 유효보도폭이 5m 이상 확보되는 구간 중 광고 효과를 증진시키고 설치 면적이 협소할 경우 권장

권장 설치위치

공지 및 녹지, 보행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간, 보도 중앙에 식재된 가로수 사이의 유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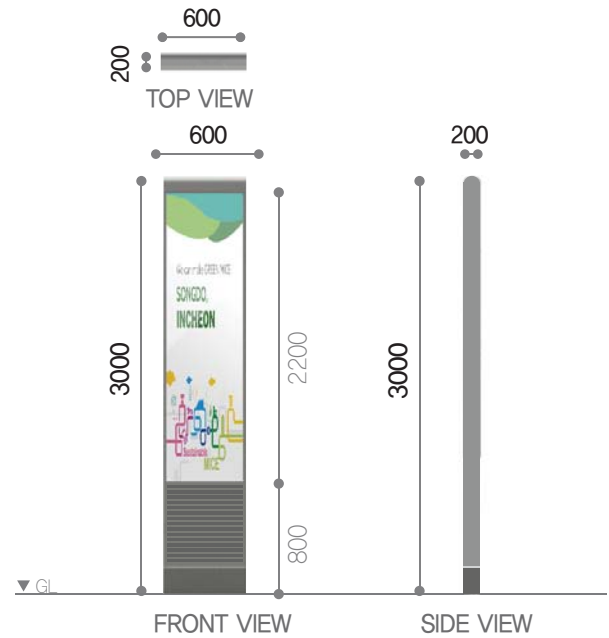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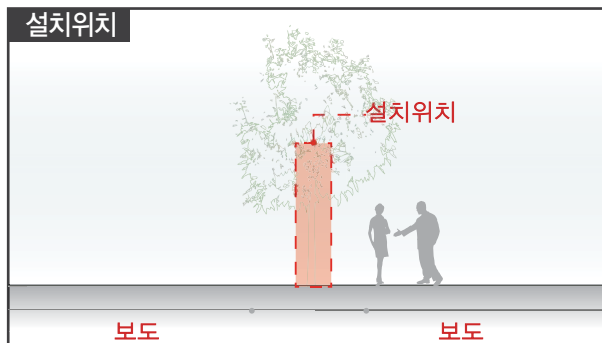
지양 설치위치

안전방재시설물 및 문화재, 학교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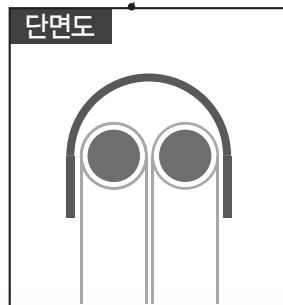
5 현수막게시대 혁신안

I 지주형

- 일정 시간의 간격으로 정보면이 교체되어
시간 차에 의한 다양한 광고 표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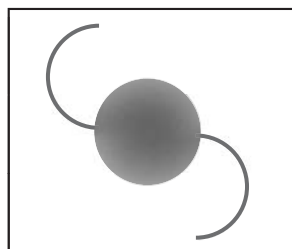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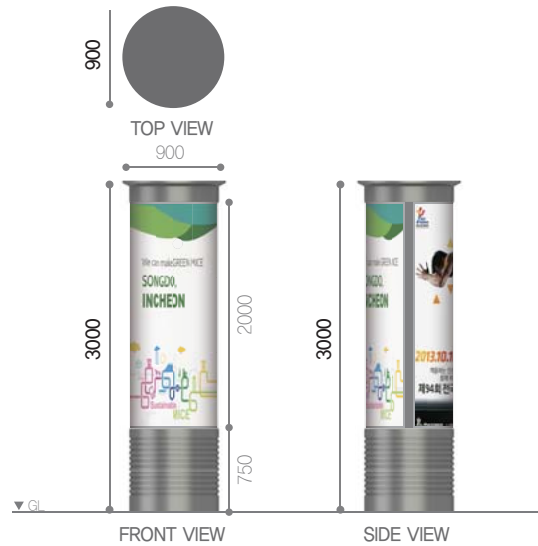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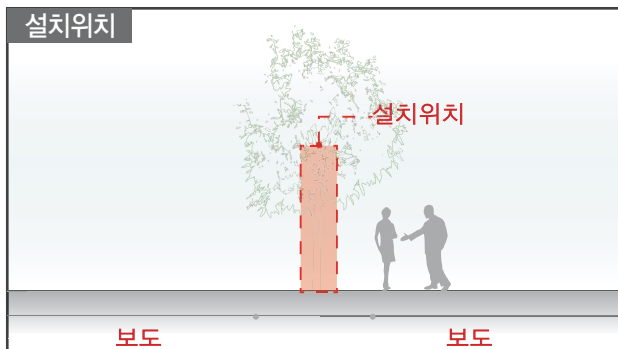
도르레형식의 내부 구조로
용이한 정보교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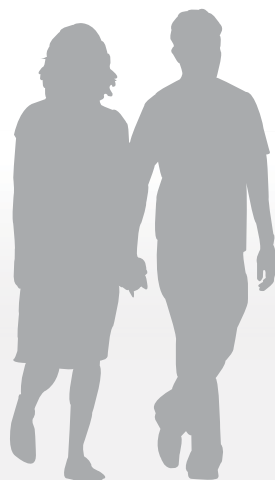
현수막 규격 : 가로550 X 세로2200
현수막 개수 : 4개

원기둥형

- 일정 시간의 간격으로 정보면이 교체되어
시간 차에 의한 다양한 광고 표출 가능



- 개폐식 구조로 현수막 교체
등 유지 관리에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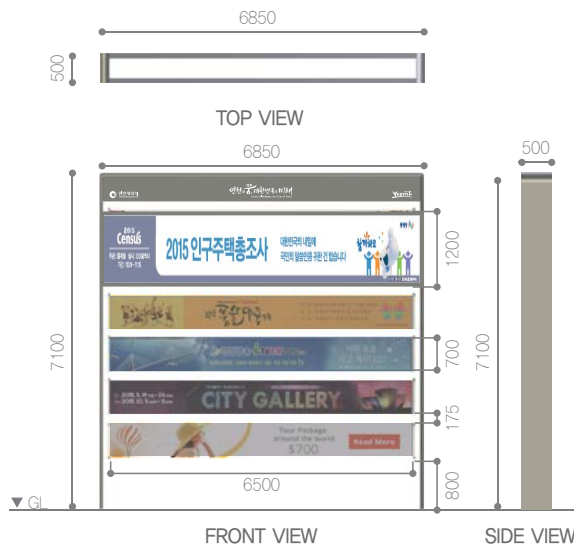


현수막 규격 : 가로900 X 세로2000



■ 디지털 복합형

- 상단부분 디지털 사이니지 적용으로 주목성 강화
- 여러 개의 현수막을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표출가능



■ 야간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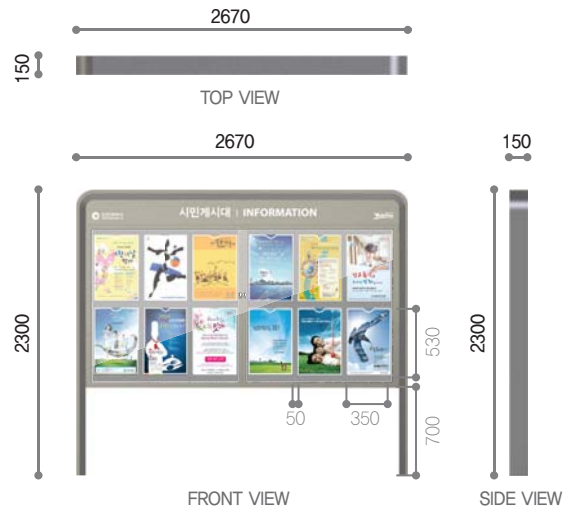
현수막 게시대 규격: 가로6850 X 세로500 X 높이7100
 현수막 규격 : 가로6500 X 세로700

4.3.3 시민게시대

1 시민게시대 디자인

기본형

- 강화유리 도어로 설계하여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명한 정보 전달



아크릴 광고 게재면을
제작 · 설치하여
광고가 각 게재면에
삽입되도록 함



I 주거지역



(스테인레스 스틸_도장 마감)

II 상업지역



(스테인레스 스틸_금속 갤러리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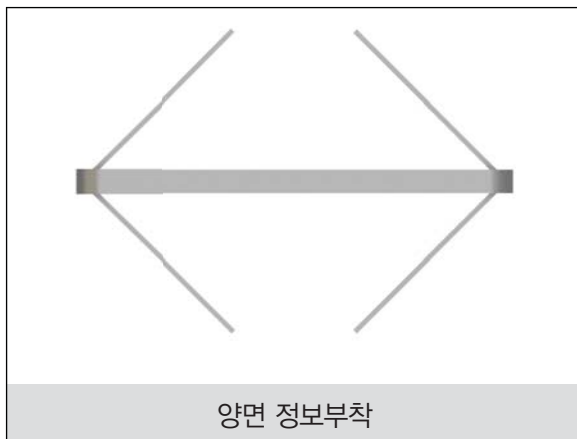
III 역사·문화지역



(스테인레스 스틸_합성목재 마감)

유지관리

- 강화유리 도어로 개선하여 내구성 강화 및 정보 내용 교체가 용이, 양면형으로 다량의 정보 관리 가능



I 벽부형

- 관공서 등 벽면에 설치하여 지주설치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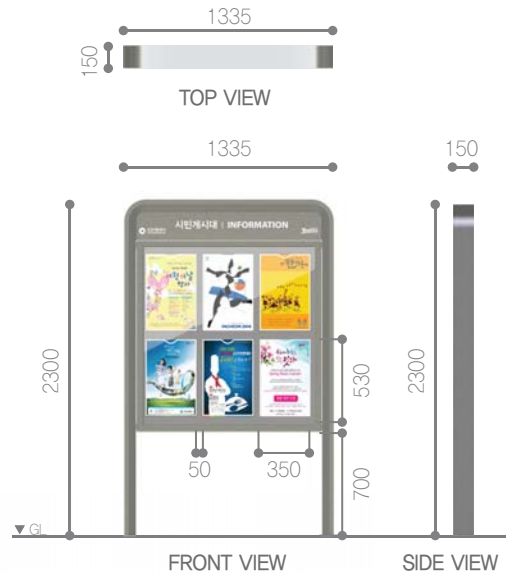
II 상단광고형

- 상단에 대형광고 설치 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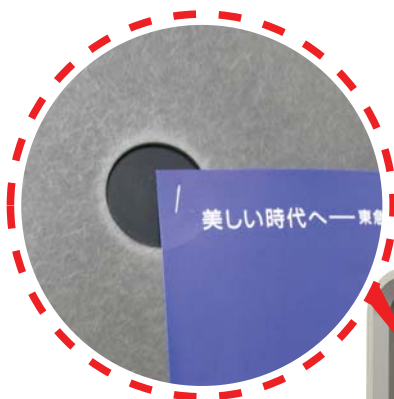
소형

- 장소가 협소한 경우 설치가 용이



I 타공형

- 타공형 게시패널 설계로 후면 시야확보 및 경량화된 디자인



고무패킹을 활용하여
압정 또는 스탬플러로
광고 고정



② 시민게시대 설치 가이드라인

	도로와 보행로 배치 (공원 및 광장 포함) 이용자가 보행 및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자 동선과 충돌되지 않도록 녹지에 배치
	건물 출입구 배치 출입구 측면의 벽면과 인접한 배치 또는 녹지에 배치하여 건물 출입 시 보행 및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

설치기준 및 설치위치

설치기준

관공서와 보행자가 집중되는 광장 및 보도폭 5m 이상의 보도에 권장 (관공서 : 시정홍보 위주 이 외의 공간 : 일반광고 위주)

권장 설치위치

관공서 출입구 주변 (벽면과 인접한 배치) / 보도와 사유지 사이의 녹지 / 공원 입구 주변의 녹지 / 학교 주변

지양 설치위치

안전방재시설물 및 문화재, 학교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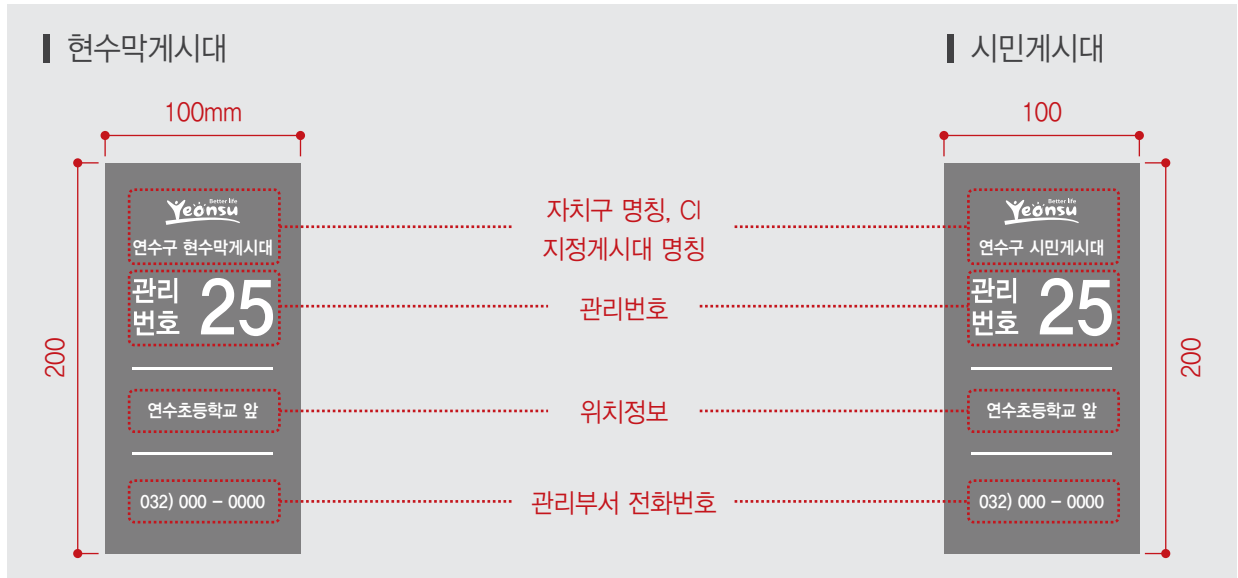
광고 배치

- 광고 간 정보 간섭 최소화를 위하여 광고의 간격은 50mm 이격하여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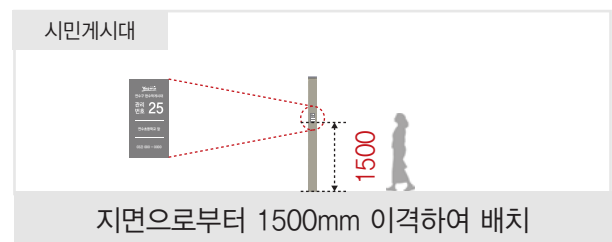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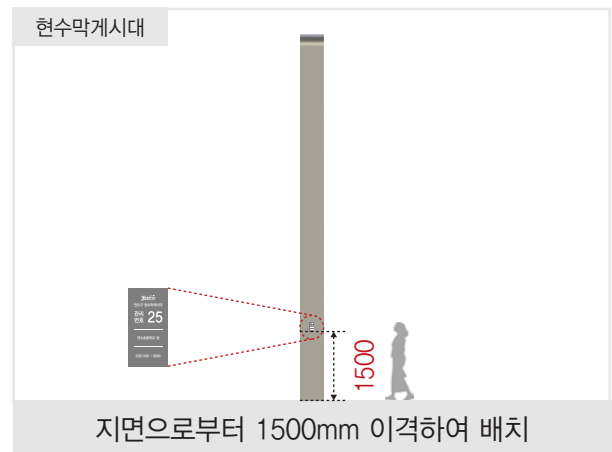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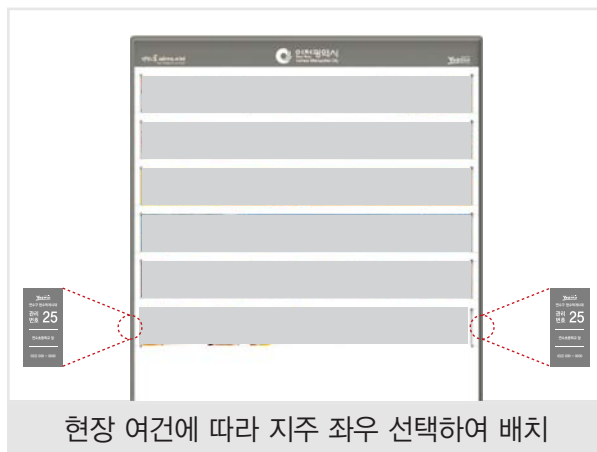
○ 권장 : 광고 간 충분한 간격을 이격하여 배치	✗ 지양 : 밀집된 광고의 배치
------------------------------------	--------------------------

4.3.4 지정게시대 고유번호 가이드라인

-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 별 고유번호를 부여
- 고유번호는 위치정보와 관리번호, 담당 부서 연락처로 구성



- 고유번호는 지정게시대 지주 측면에 배치 (현장 여건에 따라 좌우 배치 선택)
- 고유번호는 지면으로부터 1500mm 이격하여 배치



4.3.5 광고 콘텐츠

광고 설치 허용 및 금지 규정

- 주거지와 학교, 상업지역 등 공간적 특징이 뚜렷한 장소에 따라 현수막게시대에 게재되는 광고의 종류를 제한
- 시정홍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모든 게시대에 게재 가능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금지광고물은 모든 지정게시대에 게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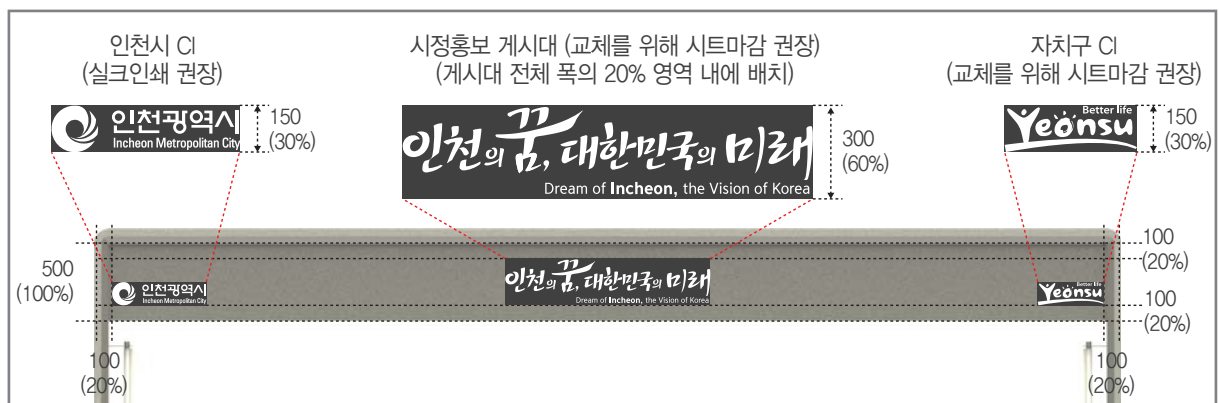
■ 금지광고물

1. 국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계층, 지역, 장애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3.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광고
4.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광고
5. 음란 또는 선정적 내용으로 성도덕 관념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 선전에 해당하는 광고
8. 음주나 흡연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광고
9.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광고

4.4 그래픽 가이드라인

게시대 상단 그래픽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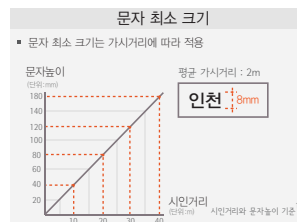
- 지정게시대 간 디자인적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일관된 게시대 상단 구성을 적용
- 게시대 상단은 인천시와 자치구 CI, 시정홍보를 이용하여 구성
- 인천시 CI는 게시대 상단 좌측에 적용
- 자치구 CI는 게시대 상단 우측에 적용
- 시정홍보는 게시대 상단 중앙정렬로 배치하되 게시대 전체 폭의 20% 면적 내로 구성



현수막 그래픽 가이드라인

크기

- 문자 위계에 따라 서체 크기 조절
- 적정 여백과 간격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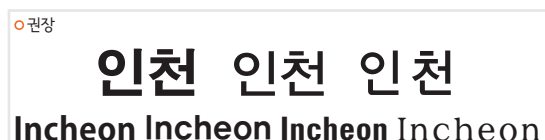
여백

- 전체 높이에서 현수막에 상하 10%를 제외한 80% 면적 내에 내용 표기
- 전체면을 활용한 광고를 권장하되 디자인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개념도를 따라 광고 구성 권장
- 광고 내용과 업주 정보면의 비율은 7:3 구성하여 광고 내용 및 정보 배치



글꼴

- 1~2개 이내의 글꼴로 광고내용 전달 권장
- 시인성 높은 고딕 계열의 서체 권장



현수막 색채

지양

× 지양 : 공공정보의 색상과 유사한 색

- 공공정보사인과 혼란을 줄 수 있는 교통, 안전 방재 관련 색채 사용 지양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목: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유사색상



- 주변과 조화로운 저명도, 저채도 색채 적용
- 공공정보 등 혼란시킬 수 있는 바탕색 지양

도로교통표지판 색상 : 청색, 녹색
긴급·안전 사인 색상 : 적색

× 지양 : 바탕색에 공공정보 색채 사용



조화

- 광고면에 많은 색 사용시 주목성 저하되므로 2~3가지 이하의 색 권장
- 많은 색을 사용해야 할 경우 같은 계열 색채 활용



× 지양 : 공공정보의 시인성을 침해하는 색상



○ 권장 : 공공정보 및 시각적으로 안정감 주는 색채

명도차

- 강조 할 내용은 고명도차를 주어 주목성 향상

저명도차



배경 광고문구

고명도차



배경 광고문구

유형별 현수막 그래픽 구성

- 현수막게시대 인근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하여 현수막 광고의 그래픽 구성 규제
- 모든 현수막 광고의 그래픽은 게시대에 게재 전 자치구의 디자인 심의를 득한 후 게재를 원칙
- 정돈된 현수막 광고의 그래픽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본 지침 적용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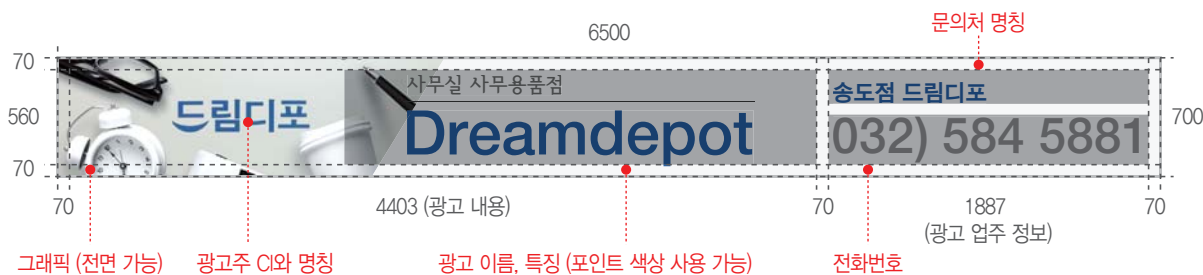
기본형 (원형기둥, 타공 슬라이드 포함)
현수막 구성 예시

행정용

※ 통계청에서 주관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현수막 참고



민간용





양립형
현수막 구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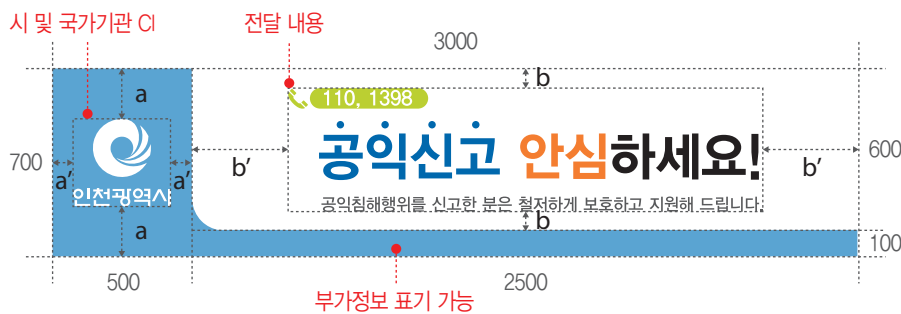
행정용

- 행정기관 CI 및 BI를 사용할 경우와 사용하지 않을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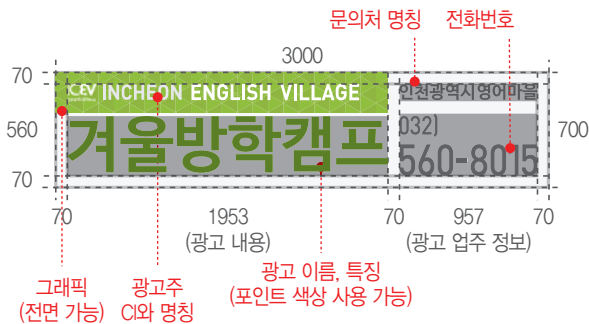
행정기관 CI 및 BI 사용 시



행정기관 CI 및 BI 미사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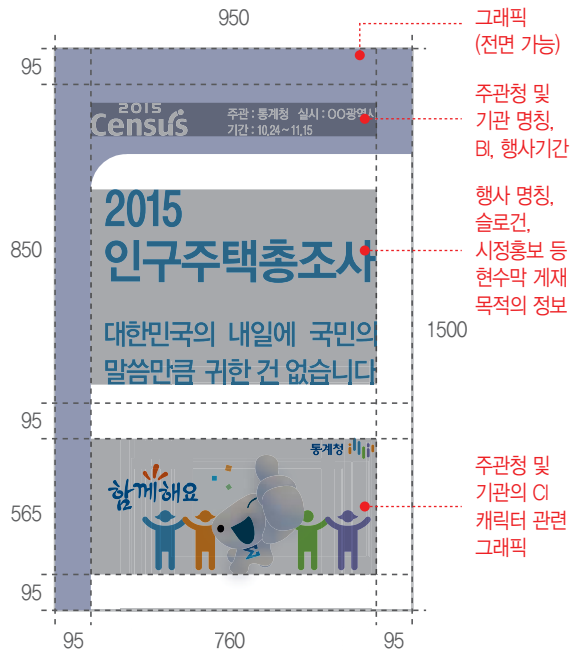
민간용





연립형
현수막 구성 예시

I 행정용



I 민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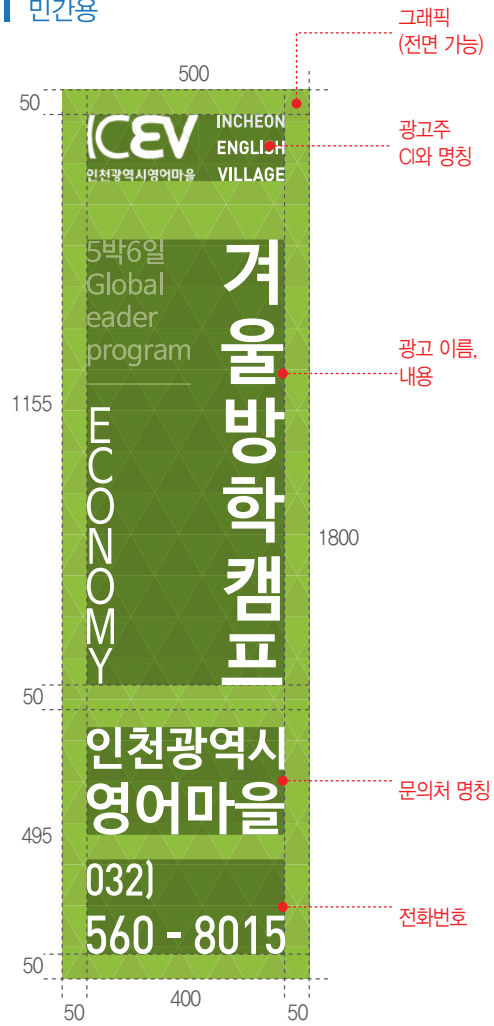
폴형

현수막 구성 예시

행정용



민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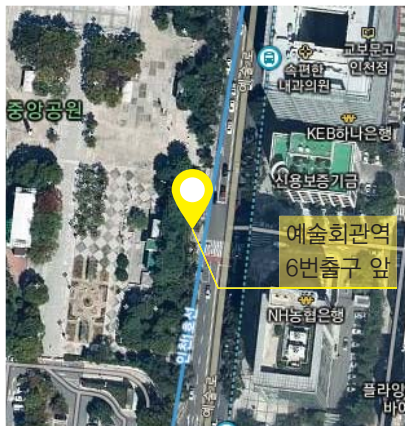


4.5 현수막게시대 시범설치

설치 개요

- 개발된 현수막게시대 표준디자인 중 1개 타입을 시범설치
- 시범설치 장소는 인천광역시 소재 자치구 및 기관에 시범설치 수요조사를 통해 후보군을 선정
- 설치 장소 후보군 중 차량과 보행 유동률이 높고 현수막 정보가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곳을 최종 선정
- 시범설치되는 현수막게시대는 현재 게재된 현수막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는 연립형으로 설치

설치장소



- 해당 예정지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가 없음
- 삼거리 교차점으로 백화점 진출입로가 접하여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잦은 구역
-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중랑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보행량이 잦은 구역



시범설치 결과



V 공사가림막

1. 개요	136
2. 조사 및 분석	
2.1 설치 현황	137
2.2 사례 분석	139
2.3 관련 법규	140
2.4 상위계획	142
2.5 조사 및 분석 결과	143
3. 디자인 가이드라인	
3.1 가설울타리	144
3.2 공사안내판	165
3.3 건물가림막	172

5.1 개요

공사가림막 정의

- 공사가림막은 공사 현장을 시각적으로 차폐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시설물
- 가설울타리는 도로와 접한 가림막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 건물가림막은 건물의 공사 시공 과정 중 발생하는 시각적 및 청각적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개발 배경

- 도로와 보도 폭의 관계와 심미성이 결여된 채 공사 현장에 공사가림막이 설치
- 일관성없는 공사가림막의 제작 · 설치로 인하여 도시와 가로의 미관 저해
- 인천시의 특징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도시 미관 증진 필요성 인식

개발 목적

- 인천시를 상징하는 그래픽을 적용한 가림막을 일괄적으로 설치하여 도시의 미관 및 연계성 증진
- 유명 미술작품 및 예술품을 가림막에 적용하여 인천시민의 문화적 수준 함양
- 1차 과업에 포함된 공사가림막 가이드라인을 수정 · 보완하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반영되도록 유도

개발 범위



추진 절차 및 일정



5.1 조사 및 분석

5.2.1 설치 현황

가설울타리 설치 현황

- 일관성이 없는 규정으로 가로경관의 저해요소로 작용
- 과도한 규모의 그래픽면으로 가로환경의 혼잡도 상승
- 난해하고 과도한 패턴의 그래픽과 좁은 보도폭으로 심리적 압박감과 시각적 혼돈 유발



공사안내판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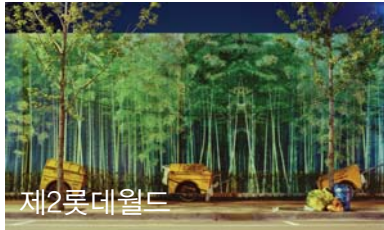
- 공사장 환경에 맞는 다양한 타입의 안내판이 필요함
- 구체적인 제작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래픽체계가 통일되지 못함



5.2.2 사례 분석

가설울타리

- 지역 특색과 관광지 정보를 이용하여 디자인적으로 그래픽화
- 야간의 원활한 보행을 위하여 안전 위주의 조명 설치



제2롯데월드



판교 신도시



인사동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부산 해운대

건물가림막

- 유명 미술작품 적용 및 예술가와 협업하여 건물 가림막 디자인
- 건축물이 가지는 특색이나 지역 랜드마크를 그래픽 요소로 활용



청담동 국립 현대미술관



명동 전세계 백화점



광화문

5.2.3 관련법규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인천광역시청)

제6장 도시미관의 개선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장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행위
 2.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제20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④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 및 토목시설물 등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를 목적으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시공사 또는 발주기관 등을 알리거나, 공사 안내, 공공의 목적 광고물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광고를 표시하는 가설울타리의 배경색은 하나의 색상으로 하여 주변의 평균 채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를 거친 풍경사진 등의 표시는 하나의 색상으로 본다.
 5. 가설울타리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의 내용과 기법 등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설울타리에 표시한 광고내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디자인 등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광고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의 기준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설공사표준시방서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주위에 EGI 패널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4. 대중의 통행과 기존 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의 협의하여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 도시 환경디자인 요소로서 건설현장의 가림막에 관한 연구, 안미자 저자 논문에서 발췌

5.2.4 상위계획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설치기준) 및 디자인 개발안 제시

가림벽의 높이는 최소 2.4m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망의 높이는 0.8m 이상이어야 한다.

가설울타리의 최소 높이만 규정

그래픽 종류에 따른 적용 가능 지침만 규정

A		B		C
폭 20M 이상 도로 대규모공사 (사건추위원회 심의대상)	폭 20M 이상 도로 소규모공사	폭 20M 미만도로 대규모공사 (사건추위원회 심의대상)	폭 20M 미만도로 소규모공사	인접 도로 없는 보행로
전면디자인 적용	전면디자인 권장	전면디자인 권장 / 부분디자인 적용	부분디자인 적용	부분디자인 적용

도로 기준인 폭 20m의 기준 근거 부족,
대규모 및 소규모 공사 간 기준 정의 필요

* 그래픽 타입 및 규격기준 예시

전면디자인 적용
소형 조형물을 통한 부분적 입체 표현 특화디자인 권장
실사율확대 이미지 부착

게이트를 제외한 도로인접면에서
그래픽구간 8 : 일반구간 2 비율 적용

8 2

그래픽의 규격, 이격 거리 기준 보완 필요

→ 부분 디자인으로 설치하는 경우 디자인이 전하없는 여백면이 "20m"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20m 이내

여백면

부분디자인 구간

진출입부 및 문주에 대한 그래픽 규정 부재

동일로고 반복 적용 기준

→ 동일 로고 적용시에는 일정 간격을 이격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동일로고 적용시

정사각 비례기준

폭 6m 이상

정사각 비례기준

2가지 이상 로고 적용시

정사각 비례기준

정사각 비례기준

수치를 이용한 지침이 적어 실적용이 어려움

자자체 로고표시 기준

→ 설치되는 정사각 비례기준(1:1, 3m높이시 폭 3M이내) 구간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로고의 높이기준은 50cm - 1m 이며, 폭 기준은 50cm - 2m 이다.
→ 로고등 마크가 과도한 크기로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1m이내)

1m 이내

2m 이내

로고 규격 및 배치 높이 등 기준 제시 필요

중심상업 및 개발구역

전개방향	행동사 이미지
인천시의 상징성 및 국제도시 이미지 적용 예술가와 외의 연계를 통한 창의적 표현 권장	다이나믹한, 모던한, 화려한, 내용결함, 점많은

바탕색 적용

Munsell N 9.5	Munsell 9.8GY 9.0/0.8
------------------	--------------------------

그래픽요소 적용

Munsell 1.69B 7.0/5.0	Munsell 1.18B 6.7/4.9
Munsell 9.8B 8.0/3.7	Munsell 3.48G 7.5/3.4
Munsell 7.4B 8.7/2.2	Munsell 6.38G 8.2/2.3

이미지 콘텐츠 방향
인천시 상징, 도시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방향

구역 설정에 따른 구역별 색채 지침

5.2.5 조사 및 분석 결과

설치현황

- 일관성없는 규정으로 인한 가로환경 저해
- 보행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보행자의 심리적 압박감 유발
- 무분별하고 과도한 규모의 그래픽 활용으로 공간 혼잡도 상승

사례분석

- 지역 및 건축물, 지역 랜드마크를 상징하는 요소를 그래픽화하여 디자인
- 보행자의 안전한 야간 보행을 위한 조명 설치
- 예술·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감성 고취

관련 법규

- 공사가림막 설치 시 제한 및 금지, 최소 설치사항 규정
- 가설울타리에 광고 허용 최소 기준 규정

상위계획

- 설치 구성요소의 규격, 그래픽 요소의 규격, 색채 등에 대한 최소한 지침 제시
- 지침 별 기준의 근거가 부족하고 정량적 수치에 의한 지침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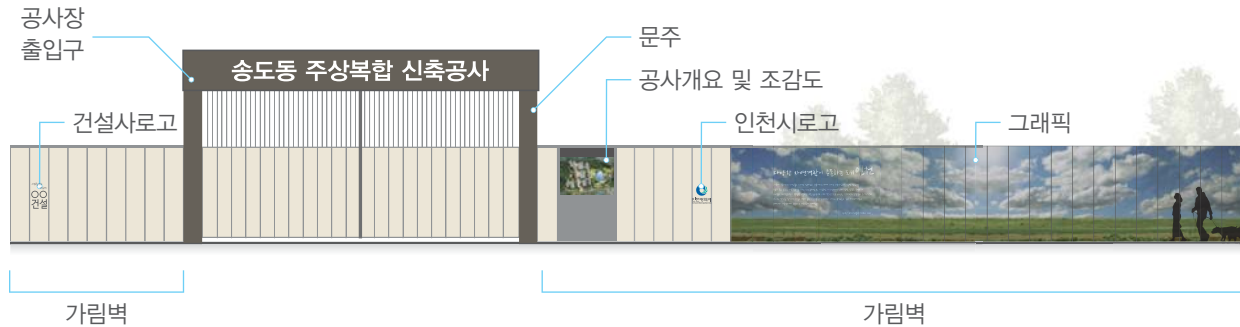
시사점 도출

- 1차 과업(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과 연계한 가이드라인 작성
- 설치 기준과 그래픽 기준의 세부 지침 제시
- 지침 별 기준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정 및 제시
- 정량적 기준은 가급적 비율이 아닌 수치화하여 지침 제시
- 설치장소의 다양성을 위한 지침 제시

5.3 디자인 가이드라인

5.3.1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요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 가로 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준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양한 설치환경에 따른 디자인 적용 기준을 수립하여 도시경관에 부합하도록 지침 제시
- 인천광역시 상징 디자인 요소를 가설울타리에 적용하도록 체계적인 표기 기준을 마련
- 지역적 특성 및 장소성 맥락이 반영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 가림막 설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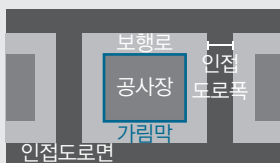
- 디자인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디자인 개발방향 준수
- 도로 폭원을 고려한 높이 설정으로 공사현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사장 입구 우측에 공사 현황 안내판 및 조감도 설치
- 건설사 로고와 광고는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따라 설치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의 모든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 적용
- 인천광역시 및 자치구, 군 등의 건축물 및 시설물 공사장
- 도로에 접한 공사장
- 도심 및 변화가 등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장소에 위치한 공사장

공사가림막 (공사장 가설울타리)

공사현장의 먼지, 소음 등을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공사장 : 공사가림막이 설치되는 해당 공사현장
인접도로면 : 해당 공사장이 인접하는 자동차도로
인접도로폭 : 인접한 도로의 폭 (폭 20m를 기준으로 디자인 차등 적용)
보행로 : 해당공사장 인접 보행도로

가림벽

설치 가이드라인

이미지 및 그래픽 가이드라인

공사개요 및 조감도 가이드라인

공사장출입구

그래픽 가이드라인

설치 가이드라인

공사기간에 따른 설치 구성

-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본 가이드라인의 공사기간 기준을 설정
- 산정기준에 의하면 2층 이하의 건축물 공사기간의 기준은 230일로 규정
- 230일 (± 60일)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이하일 경우 단기간, 이상일 경우 장기간으로 설정

장기간 / 대규모 (290일 이상)	기준 / 중규모 (230일 ± 60일)	단기간 / 소규모 (170일 이하)
		
RPP	Steel, RPP 중 사용 가능	EGI, Steel, RPP 중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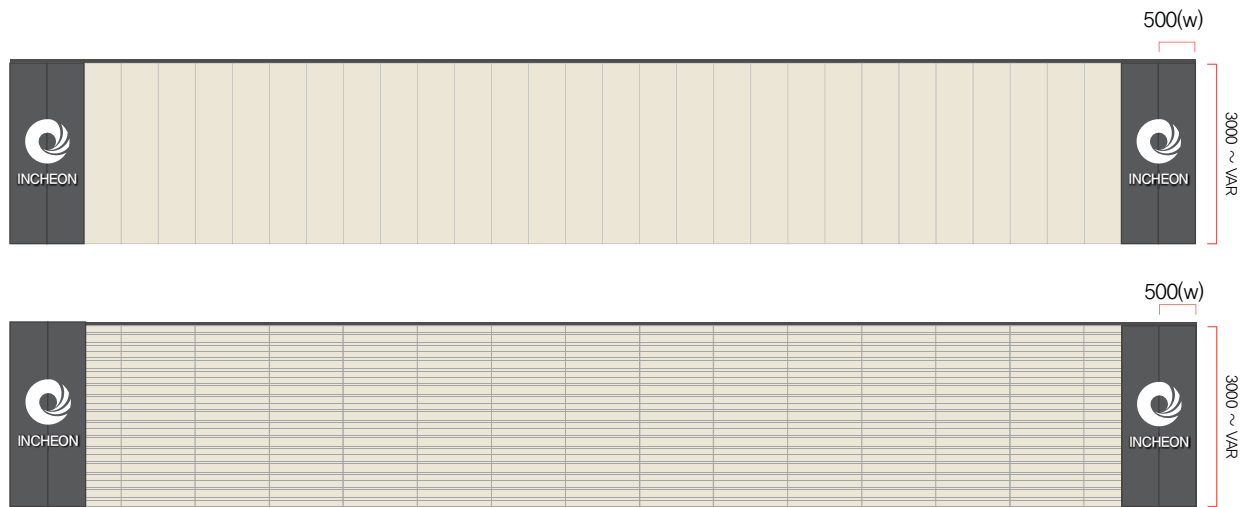
재료

- 가림막 설치 시 우선적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공사기간에 따라 재료를 선정
- 단,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이 지닌 브랜드 가치를 고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고가의 재료를 이용한 가림막 설치 가능 (예 : 고가의 제품을 다루고 있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을 230일 동안 시공해야 할 경우)

종류	RPP	Steel	EGI
			
특징	• 독립 sheet 패널 구조로 방음성능이 우수하며, 패널에 직접 인쇄 가능 • 경질 강압 PVC재질의 방음 패널로 광고 및 그래픽 작업에 용이 • 시트 및 도장에 의한 디자인 가능	• 상부 패널과 하부 패널의 결합 • 내구성이 우수 • 광고물 부착 시 미관 저하 • 도장에 의한 디자인 가능	• 시공이 간단하며 견고하여 안전 • 광고물 부착 시 작업비용이 높음 • 저비용의 자재이나 심미성이 낮음 • 시트 및 도장에 의한 디자인 가능
비용	고가	중가	저가
공통	•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방지 • 경량화, 간편화로 설치 및 해체 용이		• 재질과 색상을 다양하게 연출 가능 • 해체 후 재사용 및 이동 설치 가능

■ 중규모 이상의 현장 – RPP, Steel 가림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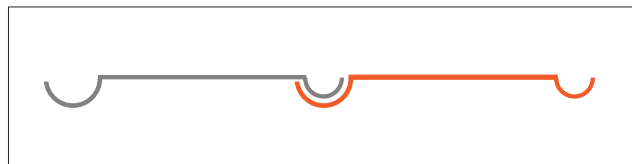
- RPP : 공사현장의 소음 흡음 및 차단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질 강압 PVC재질의 방음판넬로 광고 및 그래픽 작업에 용이
- Steel :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는 Steel 재질의 방음판넬로 무게로 인해 H빔에 고정하는 형식으로 시공이 되며 내구성이 우수



- ① 디자인을 전체 적용하거나 가로 적용, 세로 적용 등 다양한 패턴을 디자인 개발 시 활용 가능
- ② 사진 및 이미지를 활용하는 이미지 시트는 전체 면적을 활용하여 마감할 수 있음 (비율로 적용 가능)

■ 소규모 현장 – E.G.I 가림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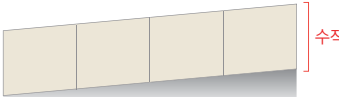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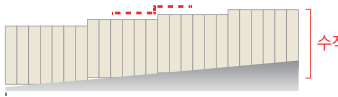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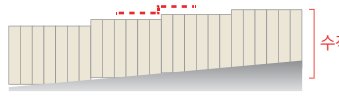
- 공사현장의 내부 관찰 및 출입통제, 보행자 안전 확보 목적으로 설치되는 저비용의 자재로 설치가 간편



- ① 이음부 위에 sheet 부착 불가
- ② 부분적인 패턴을 디자인 개발 시 활용 가능
- ③ 2단 높이로 구성되는 EGI 설치 방식은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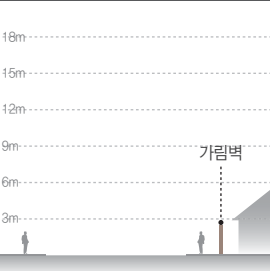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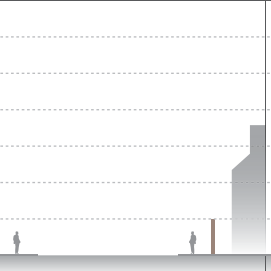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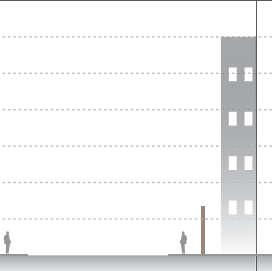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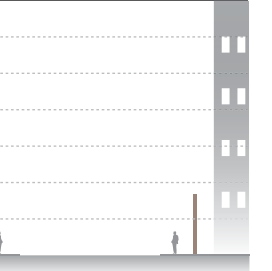
I 경사면

- 경사면 설치 시 재질별 물성을 고려하여 설치

종류	RPP	Steel	EGI
			
특징	• 커팅 용이	• 커팅 어려움	• 커팅 어려움
낮은 경사도			
높은 경사도			
설치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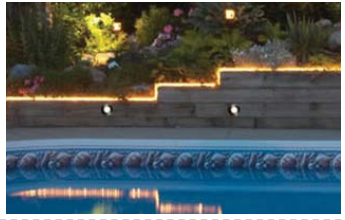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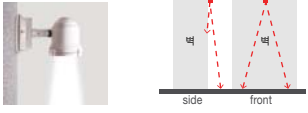
I 높이

- 가림벽의 높이는 공사 현장의 높이를 기준으로 설정
- 공사 현장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가림벽의 높이를 높여 공사 현장을 차폐
- 공사 현장의 높이 기준은 6m(단독주택), 12m(빌라), 18m(저층 아파트), 24m 이상(고층 아파트)를 이용
- 가림벽의 최소 높이는 2.5m로 규정하며 방음용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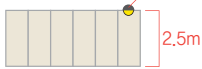
구분	6m (단독주택)	12m (빌라)	18m (저층 아파트)	24m 이상 (고층 아파트)
건물높이				
울타리 높이	2.5m	3m	4m	6m
사용 재질	RPP, Steel, EGI	RPP, Steel, EGI	RPP, Steel	RPP, Steel

야간조명계획

- 보행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을 위하여 조도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은 조명 설치 권장
- 다운라이팅 조명방식을 활용하여 구성 (라인라이팅, 스팟라이팅 활용)
- 단, 조명을 이용한 광고 효과는 지양하며 순수 안전조도 확보를 위하여 설치

조명 종류	사례 이미지
라인라이팅 	 
스팟라이팅 	 

- 조명 설치 시 조명의 높이는 가림벽의 높이에 따라 달리 적용
- 동일 구간의 조명 높이는 동일하게 적용
- 조명 높이에 따라 조명 간 간격을 설정
- 가림벽의 높이에 따라 조명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설치 위치에 전기선 연결을 위한 포트 설치 권장

가림벽	조명 높이	조명 간격
2.5m		
3m		
4m		
6m		

조도 물리량

- 과도한 조도로 인한 눈부심, 주거지 내부로 빛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도 물리량과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제시
- 조도 물리량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설정한 KS A 3011 조도기준을 따름
- 빛 방사 허용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따름

조도기준 적용범위 및 조도 분류

- 경기장
- 공공시설
- 공장
- 교통
- 병원
- 사무실
- 상점
- 옥외시설 건물
 - 굴착 공사 (C)
 - 일반 건축 (E)
- 주택
- 학교

조도 분류와 일반 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값

일반 활동 유형	조도 분류	최저값	평균값	최대값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A	3 lx	4 lx	6 lx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는 장소	B	6 lx	10 lx	15 lx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C	15 lx	20 lx	30 lx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D	30 lx	40 lx	60 lx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E	60 lx	100 lx	150 lx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F	150 lx	200 lx	300 lx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G	300 lx	400 lx	600 lx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H	600 lx	1000 lx	1500 lx
비교적 장시간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I	1500 lx	2000 lx	3000 lx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J	3000 lx	4000 lx	6000 lx
휘도 대비가 거의 안 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K	6000 lx	10000 lx	15000 lx

※ KS A 3011 조도기준, 한국표준협회

빛 방사 허용기준

구분	시간	제1종 관리구역	제2종 관리구역	제3종 관리구역	제4종 관리구역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100이하 (lx)			250이하 (lx)
발광표면 휘도	해뜨기 전 60분	500이하cd/m ²	4000이하cd/m ²	8000이하cd/m ²	10000이하cd/m ²

※ 제1종 관리구역 : 보전녹지구역 / 제2종 관리구역 : 생산녹지 / 제3종 관리구역 :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 제4종 관리구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

■ 시트 부착

- 외부 환경에 노출되므로 현장의 상황과 기후변화에 강한 시트 선택 권장
- 각 공사 현장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현장에 적합한 시트 선택 및 적용 권장

종류	솔벤트	UV	라텍스	열전사
장단점	• 냄새와 유기용제를 함유 수성처럼 품질은 다소 떨어지나 라미네이팅 후가공이 필요 없음	• 출력 가능한 소재의 제한이 없어 나무, 돌, 금속 등 평면에 프린트 가능	• 친환경적이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자체열 건조로 출력과 동시에 건조가 되어 다양한 소재에 이용	• 간편하고 작업 속도가 빠름 • 혼합 색상의 경우 잘 표현 되지 않음
특징	• 공사장 가림막과 옥외 인쇄광고물에 널리 활용 • 가격이 저렴하며 안정적인 품질을 지님 • 최근 친환경 솔벤트잉크가 개발	•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 자외선을 통해 순간적으로 잉크를 경화하는 방식 • 고가의 제품으로 대량 생산 할 경우 권장	• 고무잉크를 활용한 출력 방식으로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 • 전처리 없이 발색이 뚜렷 • 고가의 제품으로 대량 생산 할 경우 권장	• 열을 이용한 출력방식으로 대체적으로 천을 소재로 활용 • 습기와 직사광선에 강함 • 제작 시 후처리가 복잡하여 활용도가 낮음

I 불법 부착물

- 가림벽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와 깨끗하게 제거되지 못한 흔적으로 가로 경관 저해
- 가림벽의 그래픽에 불법 부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부착방지용 도로 또는 시트 마감 권장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전단지와 남아있는 제거 흔적으로 인한 미관 저해



부착방지용 시트

전신주와 버스승강장, 지상변압기 등
옥외시설물에 적용되며
전단지 부착이 예상되는 면에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시트를 부착하는 방식



부착방지용 도로

전신주, 지상변압기 등에 널리 적용되며
전단지 부착이 예상되는 면에
전용 컬러도료를 도색하는 방식



그래픽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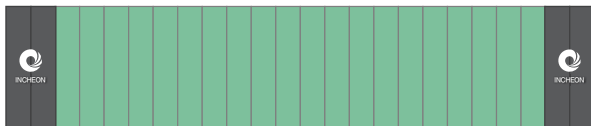
■ 그래픽 타입 규격

- 전면디자인은 이미지의 규격이 20m 이상, 부분디자인은 20m 미만일 경우로 정의
- 부분디자인은 A type(기본형), B type(정사각형), C type(직사각형)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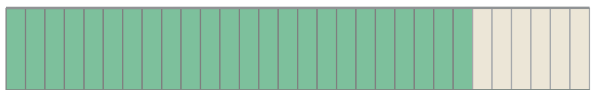
[전면디자인]



20m 이상



- 면의 시작과 끝은 인천시를 상징하는 문구를 이용하여 마감
- 그래픽은 면의 중앙정렬하여 배치
- 그래픽과 여백면의 비율은 [그래픽 : 여백면 = 8 : 2]로 설정
- 중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소규모 공사 현장에 국가 및 시정 홍보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의 디자인 게재 허락을 득한 후 설치



그래픽면 : 80%

여백면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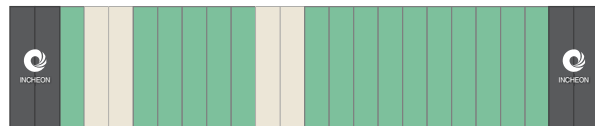
[부분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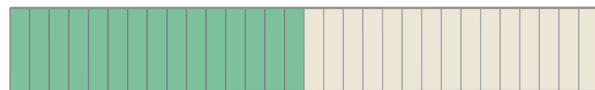
A type

B type

C type



- A type은 가림벽을 구성하는 모듈 하나를 원칙으로 함
- B type은 높이와 길이가 같은 정비례로 함 (높이 : 길이 = 1 : 1)
- C type은 길이가 높이의 2배인 비례로 설정 (높이 : 길이 = 1 : 2)
- 그래픽과 여백면의 비율은 [그래픽 : 여백면 = 5 : 5]로 설정
- 공사 규모의 제한없이 설치 가능



그래픽면 : 50%

여백면 : 50%

디자인 적용방식

- 그래픽 구성에 따른 적용 방식은 크게 전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으로 구분
- 공사 현장에 접한 도로의 폭에 따라 전면 또는 부분디자인 적용
- 도로의 폭 구분은 토지이용계획서에서 명기한 기준을 따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70m	50~70m	40~50m	35~40m	30~35m	25~30m	20~25m	15~20m	12~15m	10~12m	8~12m	8m

※ 토지이용계획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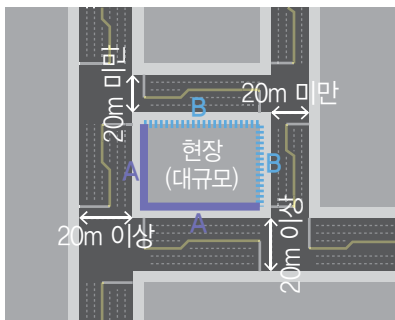
- 광로와 대로, 중로의 대규모 공사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가설울타리의 활용 디자인에 대한 심의 필요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전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택 1	전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택 1	전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택 1	부분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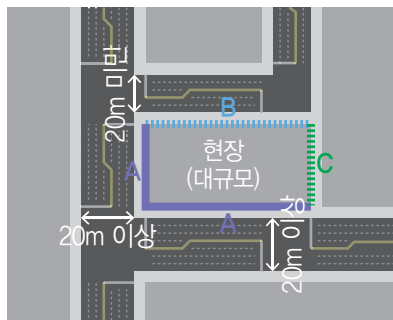
※ 전면디자인 적용 시 시건축위원회 심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도로폭에 따른 디자인 적용 기준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1차 개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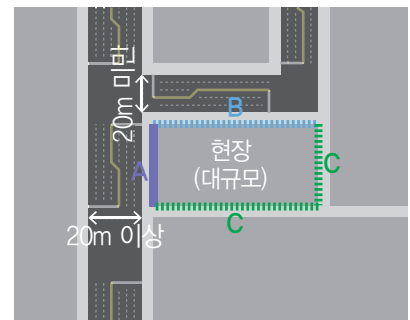
4면 도로인접 예시



3면 도로인접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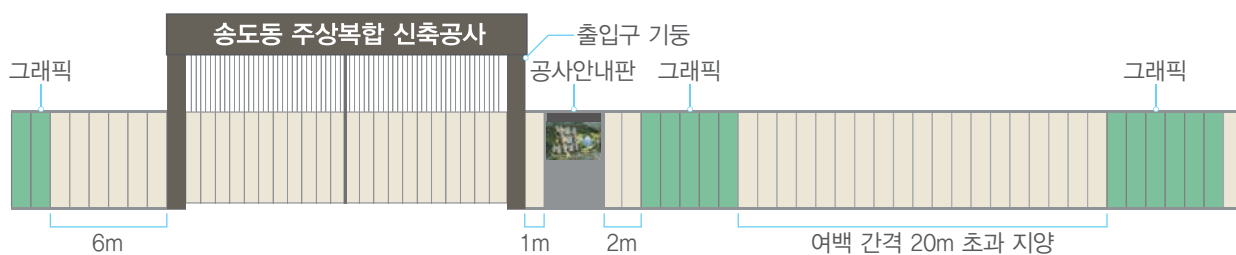
2면 도로인접 예시



A		B		C
폭 20m 이상 도로 & 대규모공사	폭 20m 미만 도로 & 소규모공사	폭 20m 미만 도로 & 대규모공사	폭 20m 미만 도로 & 소규모공사	인접 도로 없는 보행로
전면디자인 적용		전면디자인 권장 및 부분디자인 적용		부분디자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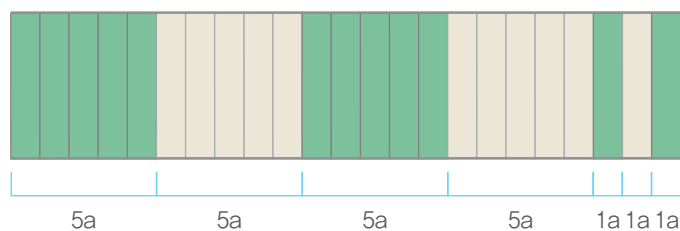
■ 그래픽 구성

- 출입문 기둥을 기준으로 측면 1m 이내에 공사안내판 설치
- 공사안내판을 기준으로 측면 2m 이내에 첫 그래픽 배치
- 공사안내판이 없을 경우, 출입문 기둥을 기준으로 측면 6m 이내에 첫 그래픽 배치
- 그래픽과 그래픽 간 여백 간격은 20m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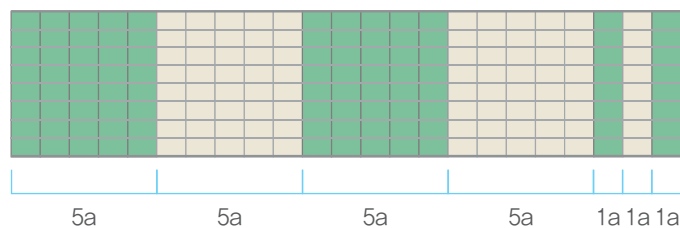


- 그래픽 간 최소 간격은 그래픽의 길이만큼 이격 권장 (그래픽 길이 : 여백 길이 = 1 : 1)
- 길이가 다른 그래픽으로 가림벽 구성 시 최소 간격은 길이가 긴 그래픽의 길이만큼 이격하여 배치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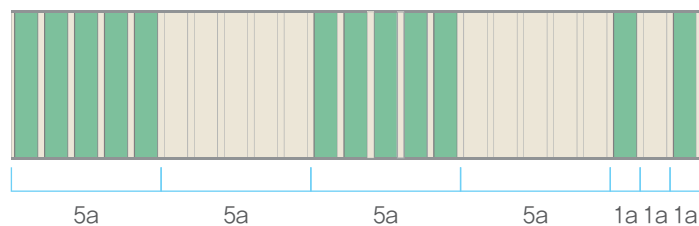
[RPP : 시트]



[Steel : 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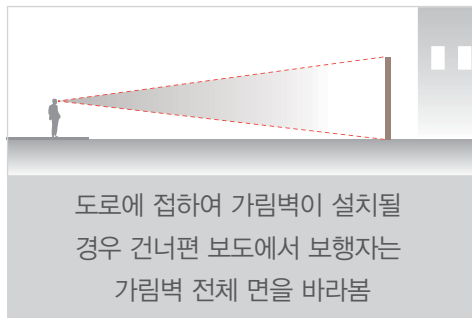
[EGI : 시트, 도장]



■ 가림벽 높이별 그래픽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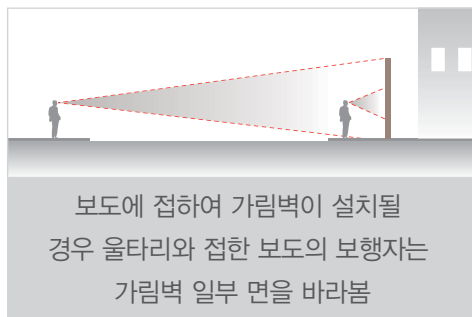
- 보행자가 가림벽의 그래픽을 원활히 접하도록 가림벽 설치 방식과 높이에 따라 그래픽 적용 높이를 설정
- 가림벽 설치 방식은 보도에 접한 설치 방식과 도로에 접한 설치 방식으로 구분
- 가설울타리의 높이는 설치기준에서 설정한 2.5m, 3m, 4m, 6m 활용

[도로에 접할 경우]



울타리	전면 디자인	부분 디자인
2.5m		
3m		
4m		
6m		

[보도에 접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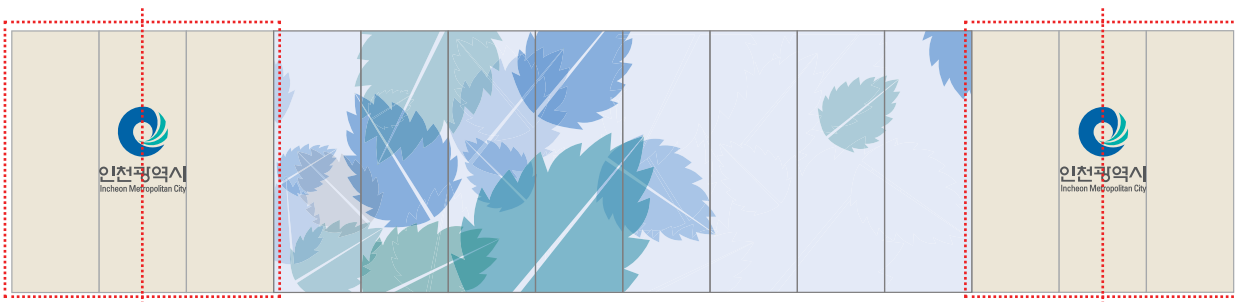


울타리	전면 디자인	부분 디자인
2.5m		
3m		
4m		
6m		

■ CI 및 슬로건, 상징아이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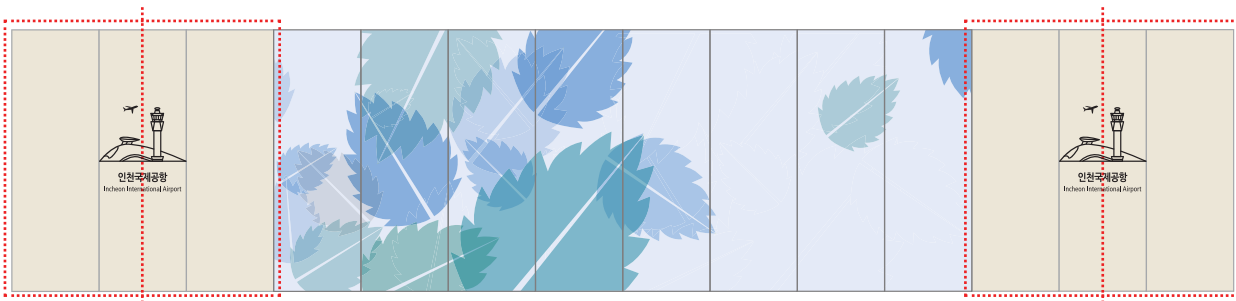
- 인천시 CI와 공사 현장이 속한 자치구 CI와 슬로건, 건설사 CI, 상징아이콘을 그래픽 요소로 활용 권장
- 설치되는 CI와 슬로건, 상징아이콘은 부분디자인 그래픽 타입 중 정비례 규격인 B type을 사용
- 로고가 세로형일 경우 최소 높이 0.5m 이상, 가로형일 경우 최소 폭 1m 이상으로 설정
- 상업적 성격의 광고 및 브랜드명 표기 금지

[표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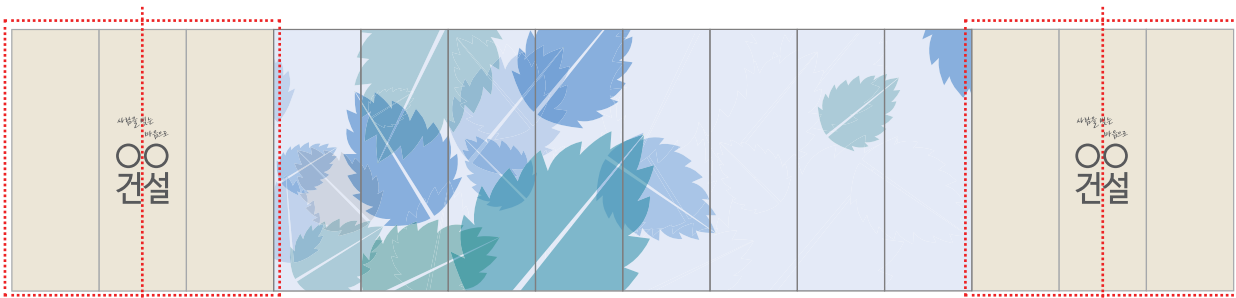
B type
(정사각형 비례)

B type
(정사각형 비례)



B type
(정사각형 비례)

B type
(정사각형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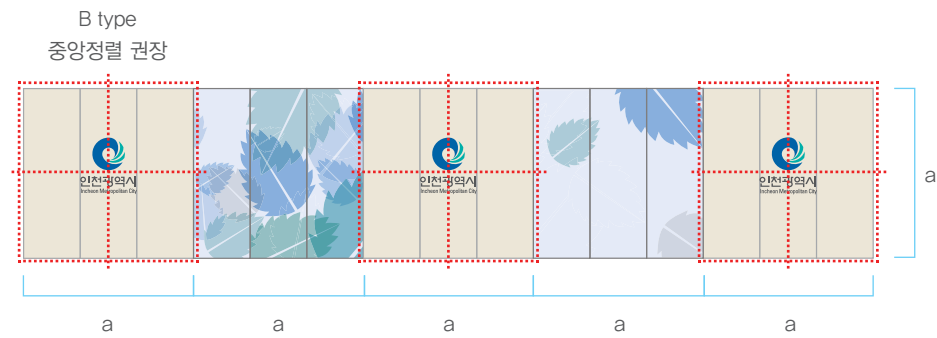


B type
(정사각형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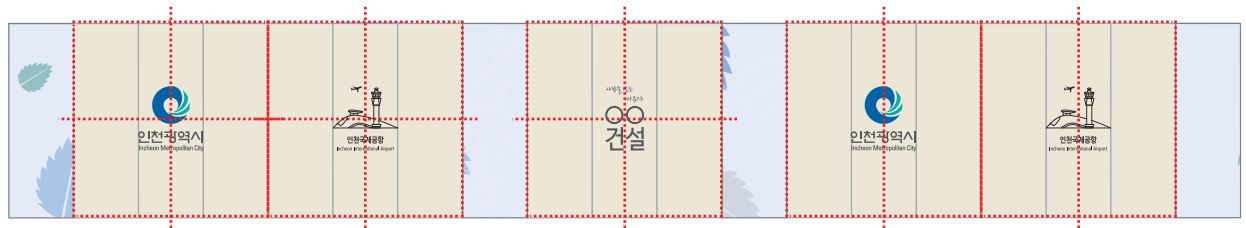
B type
(정사각형 비례)

- CI와 슬로건, 상징아이콘은 그래픽이 설치되지 않는 여백면에 설치
- 동일 그래픽 요소를 이용하여 그래픽 구성 시 영역 간 간격은 B type의 이격 거리와 동일 적용
- CI 및 슬로건, 상징아이콘은 설치 영역 내 중앙정렬 권장
- 시 및 자치구 CI, 상징아이콘, 건설사 CI의 배치 비율은 2 : 2 : 1로 설정

[동일 종류의 CI 배치 시]



[다른 종류의 CI, 상징아이콘 배치 시]



■ 적용 그래픽 이미지

[공공기관]

- 공사 현장 발주처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인 것에 따라 이미지를 다르게 적용
- 공공을 위한 정보 및 홍보 이미지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정홍보물, 공공의 정보를 포함한 공익홍보물,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공공미술 적용



[민간기업]

- 자사 홍보물 게재 시, 시청 옥외광고물 관련부서의 기업 홍보 이미지 사용 허락을 득한 후 이미지 게재 가능
- 공공기관 적용 그래픽 이미지와 상업적 홍보 성격을 제외한 자사 기업 홍보물 적용



시정홍보면 : 20%

자사홍보면 : 80%

■ 설치권역에 따른 색채 및 그래픽 적용 기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1차 개발 참조

[중심상업 및 개발권역]

전개방향	형용사 이미지
인천시의 상징성 및 국제도시 이미지 적용 예술가와 연계를 통한 창의적 표현 권장	다이나믹한, 모던한, 화려한, 내추럴한, 점잖은
바탕색 적용 Munsell N 9.5 Munsell 9.8GY 9.0/0.8	이미지 콘텐츠 방향 인천시 상징, 도시적 이미지
그래픽요소 적용 Munsell 1.6PB 7.0/6.0 Munsell 3.1B 6.7/4.9 Munsell 9.6B 8.0/3.7 Munsell 3.4BG 7.5/3.4 Munsell 7.4B 8.7/2.2 Munsell 6.3BG 8.2/2.3	색채 이미지 방향 

[일반 권역]

전개방향	형용사 이미지
밝고 편안한 이미지 CPTED를 기반으로 한 밝은 배색	우아한, 내추럴한, 온화한, 은은한
바탕색 적용 Munsell N 9.5 Munsell 6.2GY 9.4/1.2	이미지 콘텐츠 방향 인천시 상징, 도시적 이미지
그래픽요소 적용 Munsell 1.6PB 7.0/6.0 Munsell 6.3PB 7.0/0.8 Munsell 6.7Y 8.0/1.3 Munsell 3.5Y 8.1/0.3 Munsell 1.0Y 8.8/1.0 Munsell 8.0Y 8.7/0.6	색채 이미지 방향 

[자연경관 우세권역]

전개방향	형용사 이미지
산림 및 농경지, 바다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가림막 기본색인 Gray 색상 전면사용 금지	내추럴한, 온화한, 맑은
바탕색 적용 Munsell N 9.5 Munsell 6.5GY 9.4/1.2	이미지 콘텐츠 방향 인천시 상징, 도시적 이미지
그래픽요소 적용 Munsell 6.9GY 7.4/6.3 Munsell 0.7GY 7.5/7.0 Munsell 7.4GY 8.0/3.5 Munsell 2.3GY 8.2/5.4 Munsell 7.2GY 8.6/2.5 Munsell 1.6GY 8.9/2.8	색채 이미지 방향 

■ 권역별 그래픽 도안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1차 개발 가이드라인에 명기된 그래픽 도안
- 1차 과업 도서의 131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참조

[중심상업 및 개발권역]

1. Symbol Type



3. Nature Forest Type



6. Graphic Type 3



8. Landmark Type 2



11. Landmark Type 5



2. Nature Leaf Type



4. Graphic Type 1



7. Landmark Type 1



10. Landmark Type 4



[일반권역]

1. Symbol Type



3. Nature Forest Type



6. Graphic Type 3



9. Landmark Type 3



12. Landmark Type 6



2. Nature Leaf Type



4. Graphic Type 1



7. Landmark Type 1



11. Landmark Type 5



[자연경관 우세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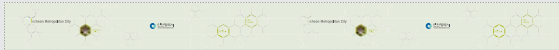
1. Symbol Type



3. Nature Forest Type



6. Graphic Type 3



8. Landmark Type 2



12. Landmark Type 6



2. Nature Leaf Type



4. Graphic Type 1



7. Landmark Typ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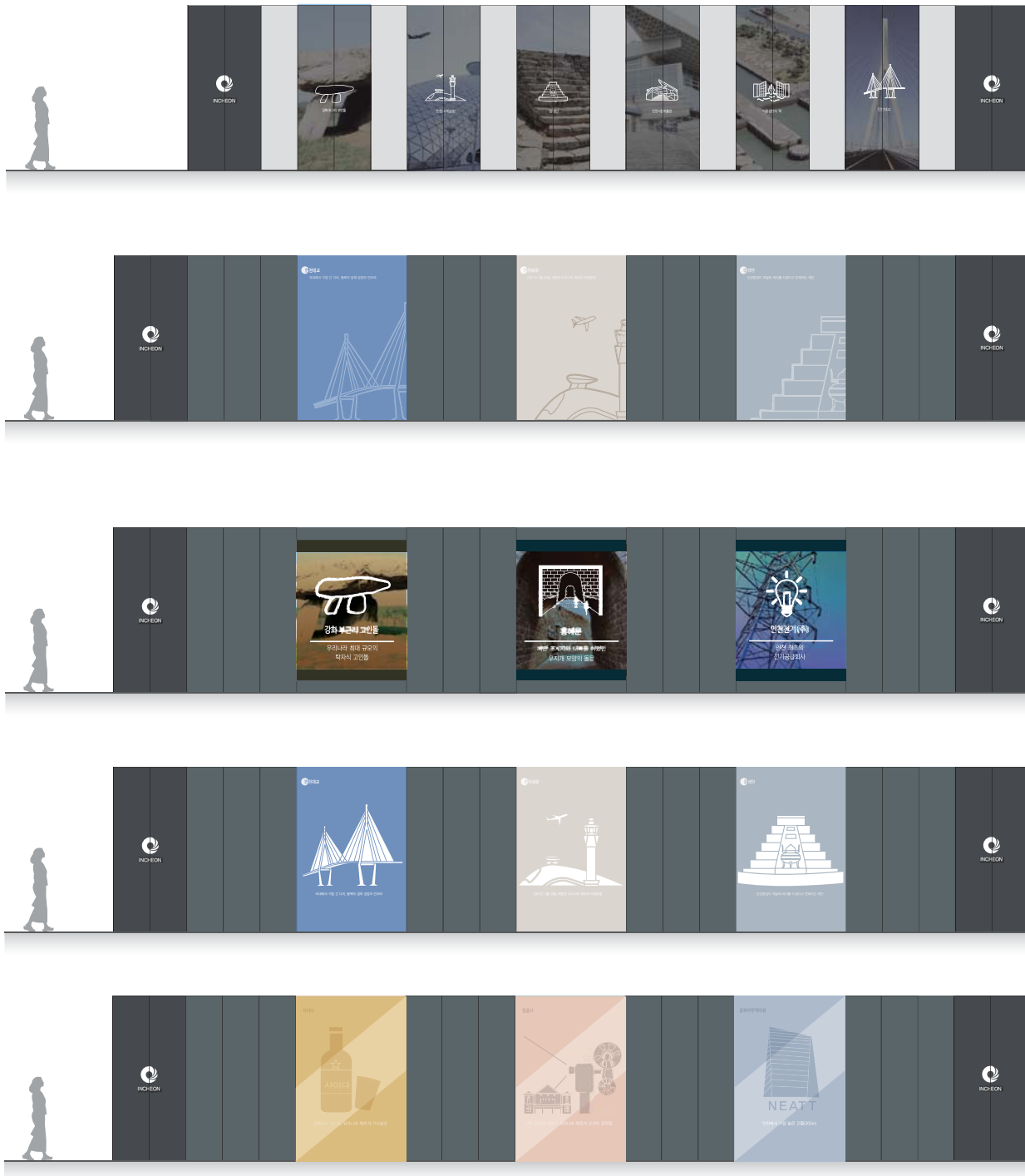


11. Landmark Typ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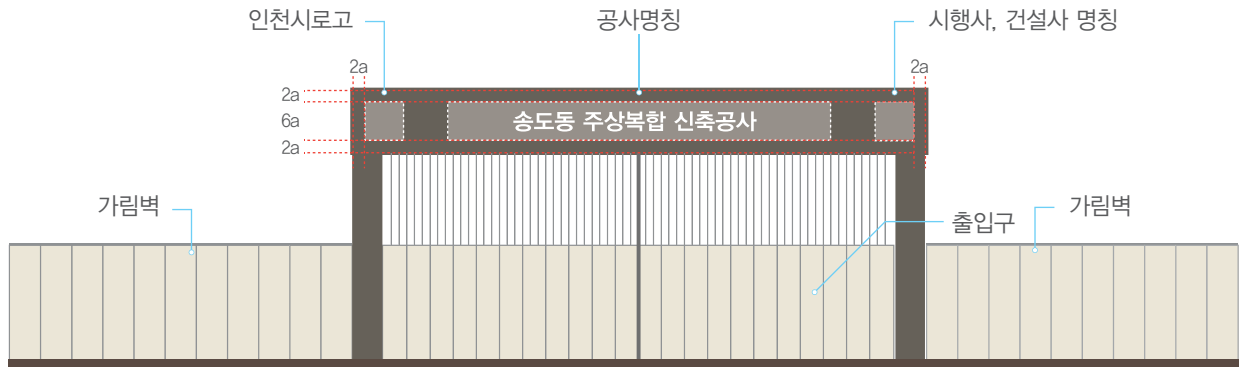
상징아이콘 활용 그래픽 예시

- 한국최초, 인천최고 100선의 상징아이콘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의 상징성 강화



I 공사장 출입구

- 공사 현장 출입경관을 일관되게 구성
- 공사 현장 출입구의 인지성을 향상시켜 안전성 및 미관 증진



색채 및 서체

- 서체와 색채를 통일하여 일관성있는 공사장 출입경관을 유지
- 서체는 가독성 및 인지성을 우선하여 고딕계열 서체 적용 권장
- 색채는 주변 도로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권장하되, 자극적인 고채도 색채 지양

■ 서체

- 고딕계열인 윤고딕 340과 윤고딕 330 적용
- 세로 장평은 110%로 설정
- 향후, 인천광역시 전용 서체 개발 시, 전용 서체로 대체

[제목]

윤고딕 340

한글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영어 : Aa Bb Cc Dd Ee Ff Gg Hh Ii Jj Kk Ll Mm Nn Oo Pp
숫자 : 1 2 3 4 5 6 7 8 9 0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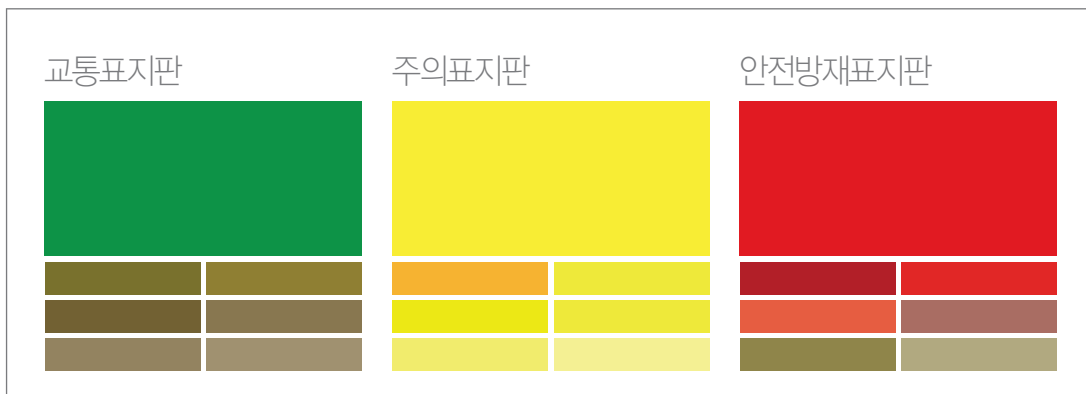
윤고딕 330

한글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영어 : Aa Bb Cc Dd Ee Ff Gg Hh Ii Jj Kk Ll Mm Nn Oo Pp
숫자 : 1 2 3 4 5 6 7 8 9 0

■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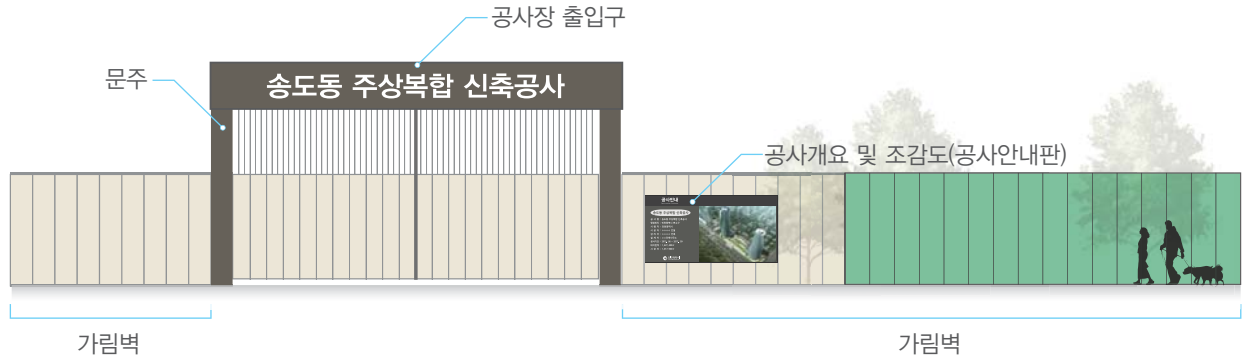
- 바탕은 저채도 무채색 계열 권장(예 : K = 50)하고 서체와 CI 색채는 흰색 권장
- 교통표지판과 유사한 색채와 안전방재 관련 색채 적용 지양

[유사색채 제한]



5.3.2 공사안내판

디자인 개요



기본원칙

-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라 부착형, 가설형,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개발
- 제작설치가 용이하며 인천시 아이덴티티와 연계한 디자인
- 무분별한 형태, 안내문구, 설치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공사안내판 간 시각적 통일감 및 안정감이 있도록 개발
- 안내표지판의 서체 및 색채계획은 가독성을 우선으로 함

디자인

- 공사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부착형 외 가설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디자인 개발
- 공사안내판은 부착형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착형

공사안내

Construction Guidance

송도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공 사 명 : 송도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시 공 자 : 0000 건설
 감 리 자 : 0000 건축
 설 계 자 : 00건축사무소
 공사기간 : 2015. 06 ~ 2017. 09
 대지면적 : 1,427,400㎡
 시 공 자 : 1,017,900㎡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부착형 소형

공사안내

Construction Guidance

한나루로 가로등 개량공사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개량공사를 2016년 1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중 도로 이용을 제한하오니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기간 : 2015. 06 ~ 2017. 09
 시 공 자 : 0000 건설
 감 독 청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시 행 자 : 연수구청 0000과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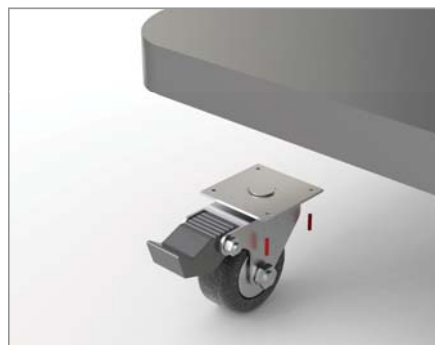
가설형



I 이동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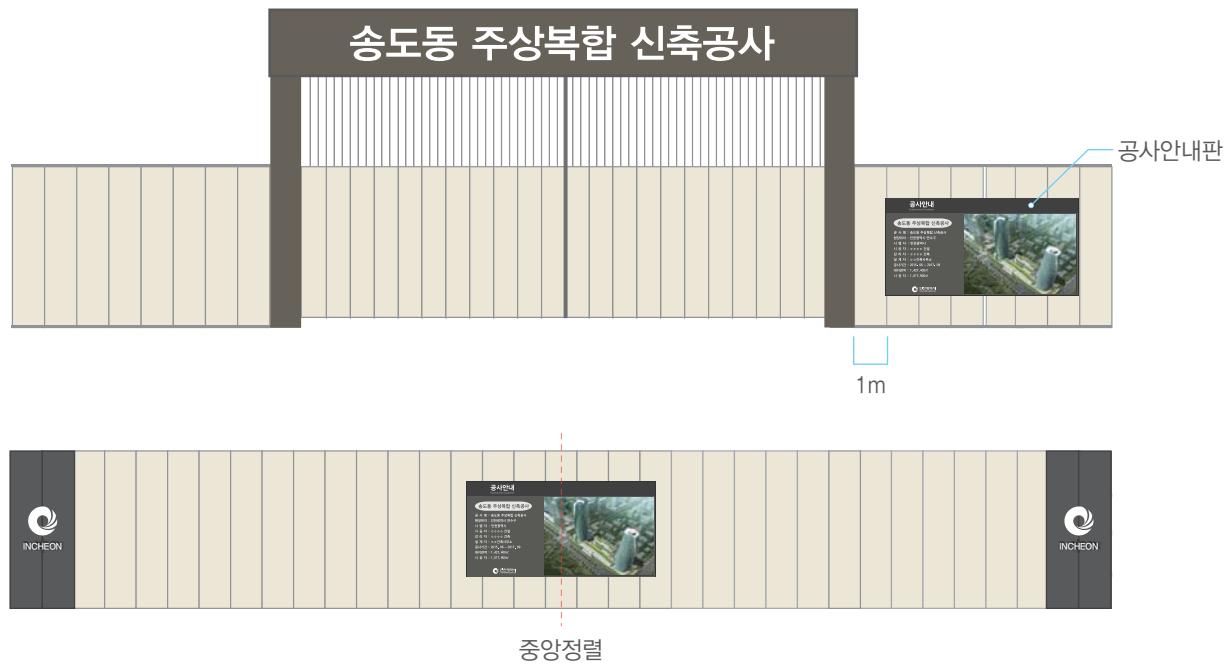
하단부 지주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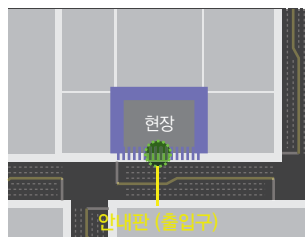
브레이크 휠 탈부착

부착형 안내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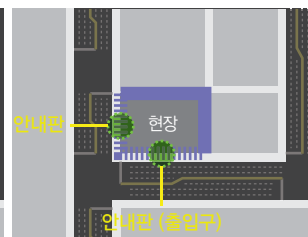
- 공사 현장이 보도 접함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함
- 부착형 안내판은 출입문 측면에 1개 설치 원칙
- 출입구가 위치하지 않은 면 중앙에 공사안내판 1개 씩 배치 권장
- 공사안내판과 그래픽 간격은 2m 이내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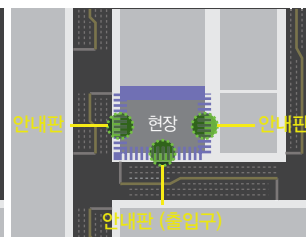
도로 1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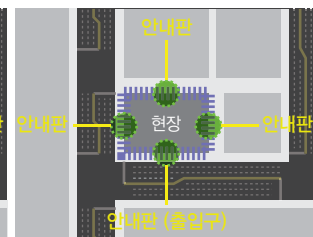
도로 2면 접함



도로 2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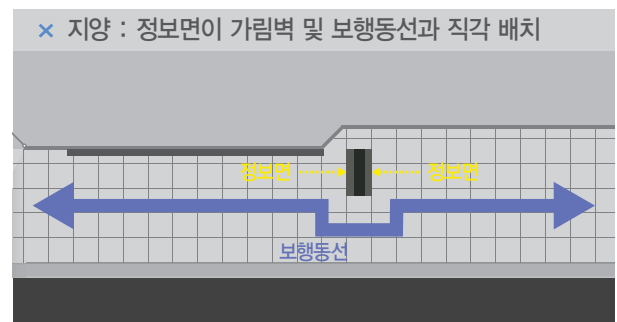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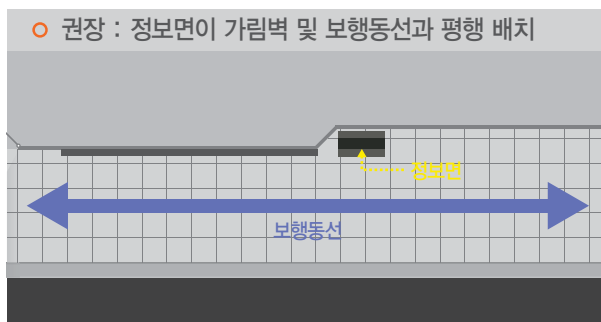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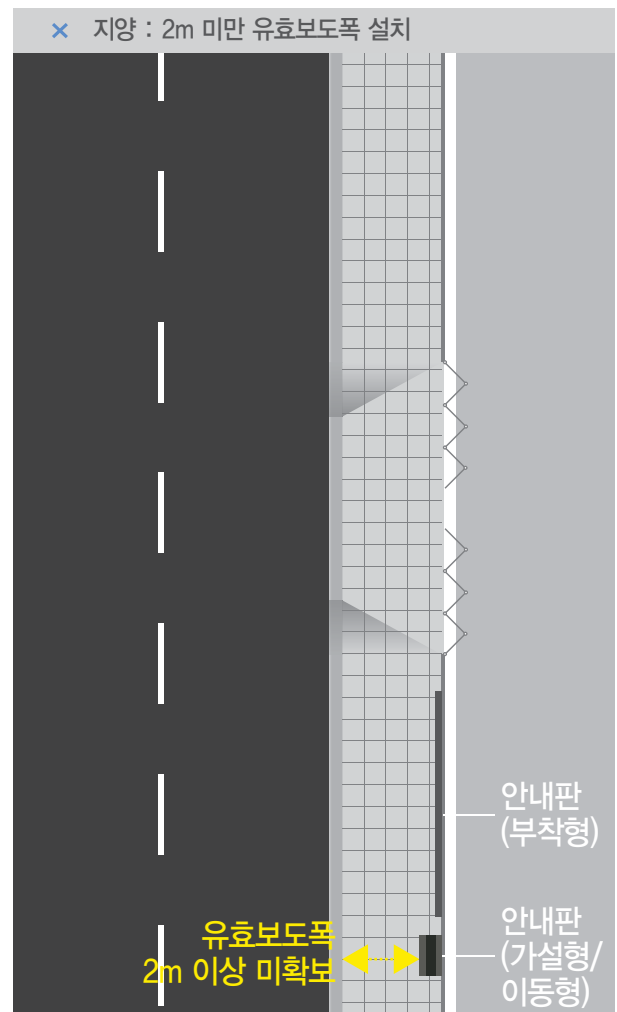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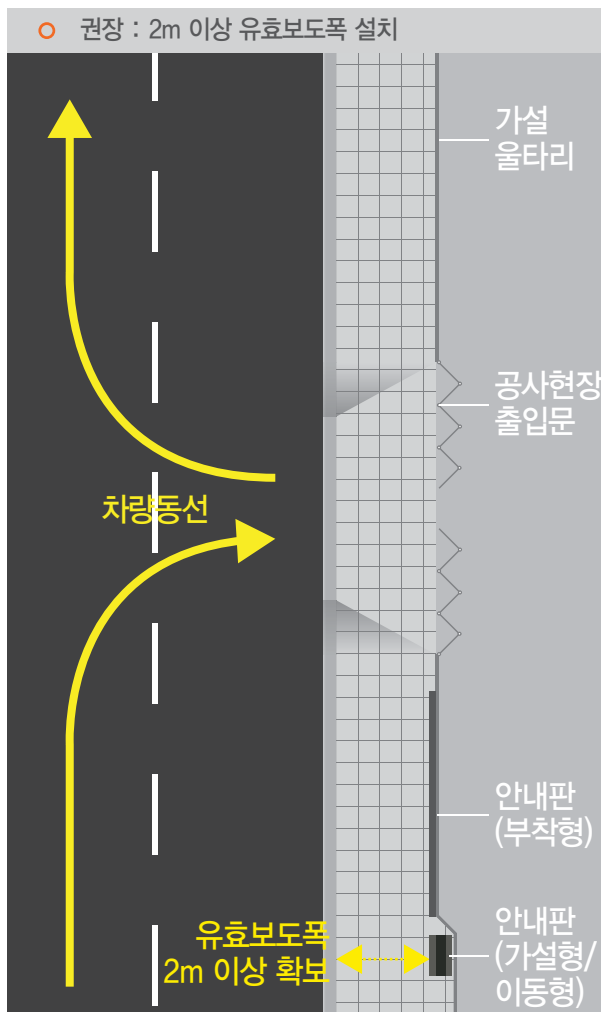


도로 2면 + 인도 2면



가설형 및 이동형 안내판 배치

- 공사 현장이 2m 이상의 유효보도폭과 접할 경우, 부착형과 혼합 설치 허용
- 단, 설치 시 보행 동선과 중첩되지 않는 유휴 공간에 설치
- 정보면은 가림벽과 평행되게 배치



안내판 종류별 규격

- 가림벽 높이에 따라 공사안내판의 크기를 달리 적용 권장

■ 부착형

- 2.5m : W 2,250 X H 1,500
- 3m : W 2,250 X H 1,500
- 4m : W 3,000 X H 2,000
- 6m : W 3,000 X H 2,000

■ 부착형_소형

- 2.5m : W 900 X H 1,500
- 3m : W 900 X H 1,500
- 4m : W 1,200 X H 2,000
- 6m : W 1,200 X H 2,000

■ 가설형

- W 600 X H 1,400

■ 이동형

- W 600 X H 1,400

정보 위계별 구성요소

- 시민 및 보행자에게 공사현장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정보 위계에 따라 구성요소 분류
- 필수 구성요소는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야할 공사현장 정보 구성요소를 말함
- 보조 구성요소는 시민 및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구성요소를 말함
- 선택 구성요소는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안내하는 정보 구성요소를 말함

■ 필수 구성요소

- 공사명
- 공사기간
- 공사위치
- 발주부서
- 공사업체 (건축주, 시공사, 감리자)
- 조감도

■ 보조 구성요소

- 공사개요 (사업목적, 활용계획)
- 공사범위
- 허가일자
- 사용승인 예정일자
- 민원신고 (부서명, 전화번호)

■ 선택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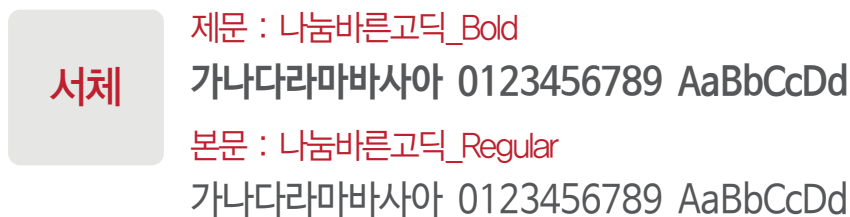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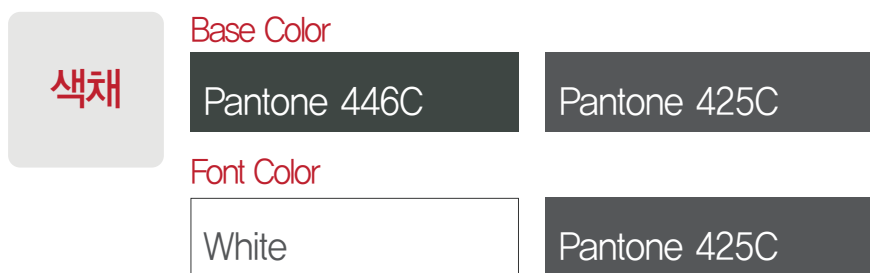
- 교통안내
- 보행자 통로 안내
- 공사중 안내

구성요소 배치

- 정보의 위계에 따라 순차 배치
- 안내판의 기능 정보를 최상위 위계로 배치
- 기타 정보는 필수 - 보조 - 선택 구성요소 순으로 배치
- 필수 구성요소와 보조 구성요소는 내용이 연계되도록 구성
- 필수 구성요소는 안내판에 모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 구성요소는 우선순위와 정보량에 따라 선택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
- 선택 구성요소는 별도의 안내판으로 구성하여 정보 제공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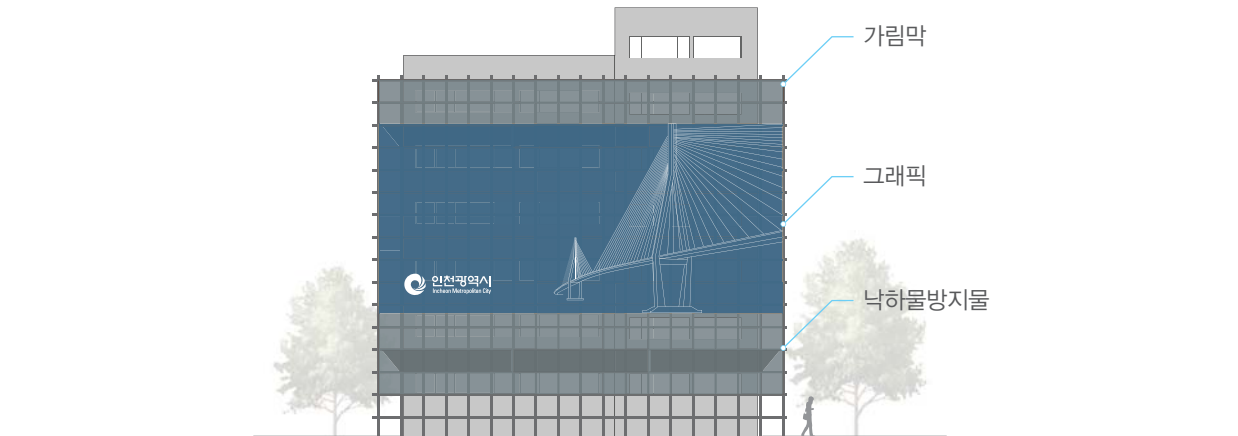


색채 및 서체



5.3.3 건물가림막

디자인 개요



기본원칙

- 디자인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디자인 개발방향 준수
- 과도한 그래픽 및 패턴적용을 지양
-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염처리된 소재 사용
- 내부공사 현장을 차폐시킬 수 있는 반투과성 재료 권장
- 공공건축물의 경우 시정 슬로건과 CI 표시
- 민간건축물의 경우 CI 표시

설치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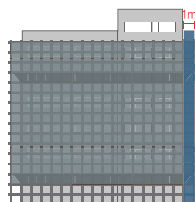
■ 건축물 규모에 따른 건물가림막 면적

- 건물에서 1m정도 떨어진 위치에 지지대용 강관파이프와 함께 설치
- 낙하물방지망 : 지상으로부터 8m이내에 첫번째 방지망 설치 후, 10m간격으로 추가설치

종류	20층 이상의 건축물	6 ~ 19층의 건축물	6층 이하의 건축물
디자인 적용 가능범위	전체 높이의 10% 2층— 디자인 적용면적 (전체의 75%)	전체 높이의 10% 2층— 디자인 적용면적 (전체의 75%)	전체 높이의 10% 2층— 디자인 적용면적 (전체의 40%)
• 전체 높이의 10%에 해당하는 상단부를 비워둬으로써 디자인 통일성 확보 • 보행자의 시점을 고려하여 2층 이상부터 디자인 적용 • 디자인 요소 (이미지, 서체 등) 적용 : 전체 면적의 75%, 45%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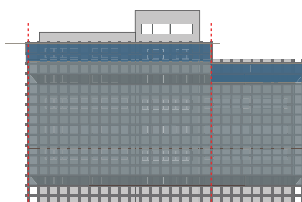
■ 구성

[좌우측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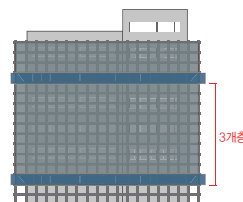
건물 좌우측 마감면에서 1m정도 떨어진 위치에 지지대용 강관 파이프와 함께 설치

[마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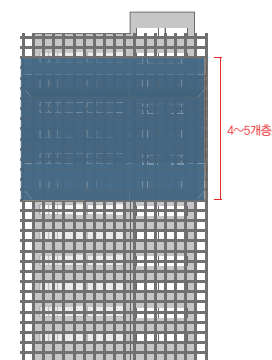
가림막의 마감부는 수직과 수평을 유지

[낙하물 방지망]



첫번째 낙하물방지망을 2층 시작부에 설치하고 3개층 기준으로 추가 설치

[고층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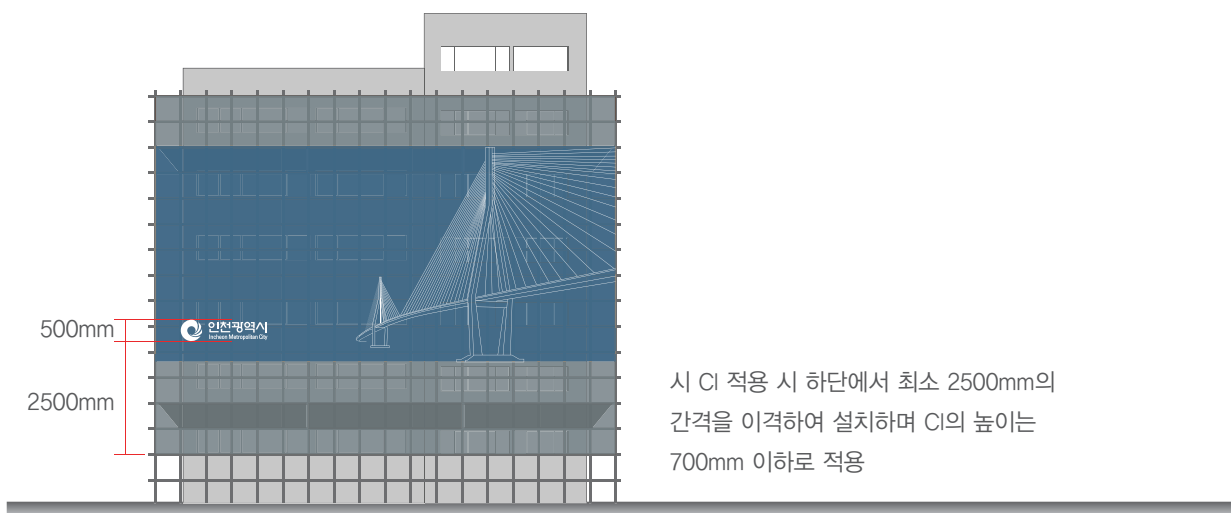


고층 건물의 경우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층의 4층~5층 정도의 범위로 가림막을 이동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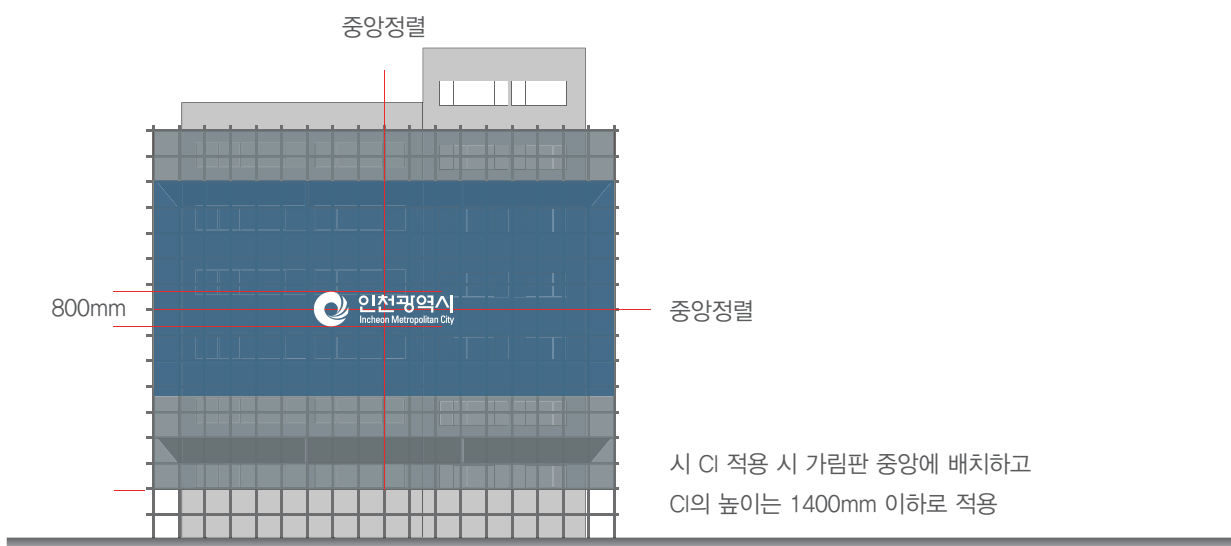
그래픽 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의 광역적 홍보를 위하여 건물가림막에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및 요소를 그래픽으로 활용
- 활용되는 그래픽은 인천광역시의 랜드마크와 역사적 장소, 사건으로 규정
- 본 가이드라인에서 개발하여 제시한 상징아이콘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
- 그래픽 미활용 시 인천광역시 및 자치구, 군의 CI 및 BI, 슬로건을 이용할 것을 권장

그래픽 적용 시



그래픽 미적용 시



VI 공공안내판

1. 개요	176
2. 조사 및 분석	
2.1 설치 현황	177
2.2 사례 분석	178
2.3 조사 및 분석 결과	179
3. 디자인 개발	
3.1 개요	180
3.2 디자인	181

6.1 개요

배경

- 심미성과 디자인적 연계성이 낮은 시설물로 가로 미관 저해 및 이용 편의성이 낮음
- 일관된 디자인 방향을 지닌 공공안내판 개발로 시설물 간 연계성 확보 필요성 인식
- 정보 위계에 따른 핵심 정보의 강조로 인한 이용 편의성 증대 필요

정의

- 시설물 고유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안내 시설물

목적

-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공공안내판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가로 미관 증진
- 공공안내판의 내부 그래픽 기준 정립을 통하여 이용 편의성 증진

6.2 조사 및 분석

6.2.1 설치 현황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판



-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보행 방해
- 정보전달이 어려운 정보면의 그래픽(색채, 서체)
- 스테인레스 등 재료의 과도한 노출로 심미성 저하

승용차 요일제 안내판



- 원색사용, 다른 크기의 서체로 시각적 혼란 초래
- 상이한 표기방식으로 인지성이 낮아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 부족

차 없는 거리 표지판



- 요일, 시간제로 운영 하고 있어 이동 용이 필요
- 과도한 재료 및 색채, 바퀴의 노출로 심미성 저하 및 주변경관과 부조화

6.2.2 사례 분석

일본



- 복합적 구성을 통한 간결한 레이아웃으로 사용편의성 및 시인성을 높임
- 간결한 디자인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음
- 간결한 디자인 및 포인트 색상으로 정보면의 시인성 및 주목성 향상, 통일성 확보



간결한 내부 그래픽 체계 정립으로 핵심 정보 전달·시설물 간 연계되는
디자인으로 일괄된 가로경관 조성

6.2.3 조사 및 분석 결과

설치 현황

- 일관성이 부족한 형태와 색채 적용
- 유광 재질의 금속재, 내구성이 약한 구조, 보행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
- 재료의 과도한 노출로 심미성 저하 및 주변경관과 부조화
- 표기방식과 서체 등 상이한 그래픽 체계로 인한 시각적 혼동 유발

지정계시대 현황

- 주변경관과 조화,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 사용자 중심의 그래픽 체계 활용
- 다양한 환경에서 실적용이 가능하도록 범용성을 고려한 안내판 타입 개발

시사점 도출

- 도시 및 가로구조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
- 안전성과 심미성, 범용성을 갖춘 표준디자인 개발
- 공공안내판 간 연계성을 지니도록 계획
-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 개발
- 사용자 중심의 그래픽을 적용하여 읽기 쉬운 인천광역시 도모

6.3 디자인 개발

6.3.1 개요

통합계획

- 일관된 그래픽 체계를 적용하여 각종 공공안내판의 통일성 강화
- 공공안내표지판의 서체 및 색채계획시 가독성을 우선으로 계획
- 정보교체와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분리체결이 가능하고 편의성(이동성, 고정)을 고려한 디자인



6.3.2 디자인

거주자 우선 주차

- 가로등 부착형, 폴형과 주차공간 부근에 설치할 수 있는 지주방식의 타입 개발
- 인천 표준디자인의 압출형식의 지주를 사용하여 공공시설물의 연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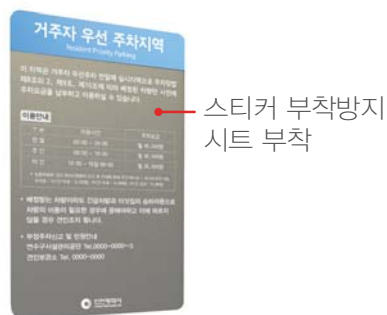
I 가로등 부착형



I 폴형



I 벽면 부착형



I 지주형



인천 표준형디자인 2차 압출사용



지표면 밑으로 기초부 매립



승용차 요일제

번호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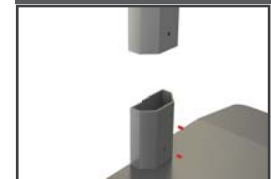
요일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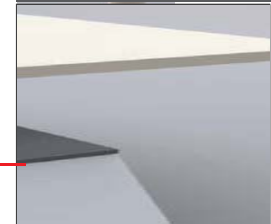
편의성을 고려한 교체방식



분리체결로 설치가 용이



지표면 밑으로 기초부 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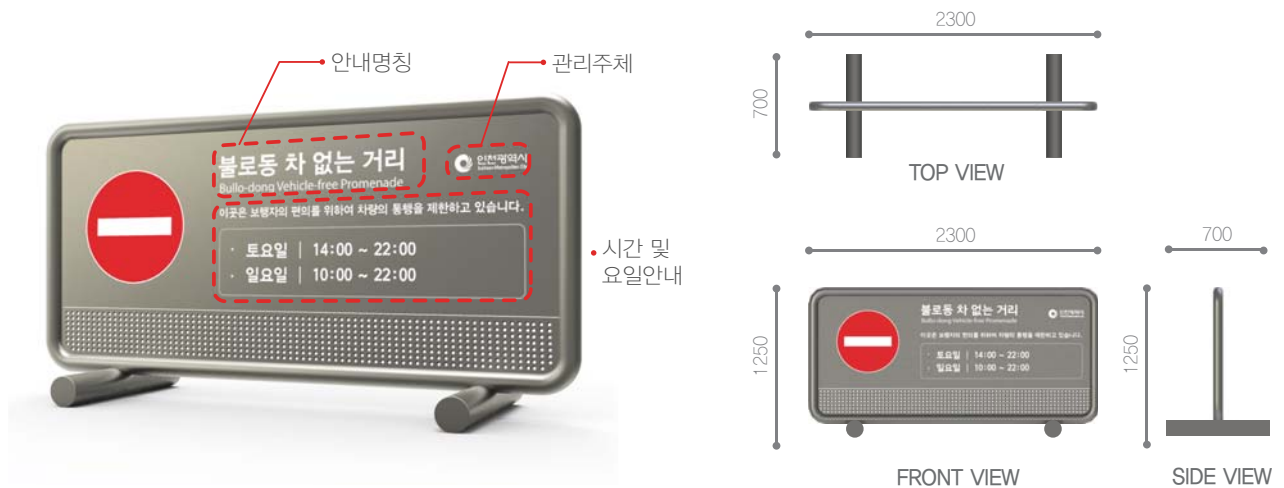


차없는 거리표지판

- 요일제로 운영되는 차없는 거리 안내판은 이동성 및 안전성 중요
- 보행자의 안전과 관리자의 유지관리 편의성, 풍압을 고려한 설계와 이동의 편의성을 위한 휠방식과 A보드 타입은 선택적으로 배치

가로형

- 설치 위치 : 차도
- 정보제공 및 차량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표지판으로 충돌을 고려한 원형 파이프를 사용하여 디자인



A보드형



횡고정형_가로



세로형

- 설치 위치 : 보도
- 보행자에게 차없는 거리 정보 제공



월고정형_세로



#. 부록

1. 과업 추진일정	186
2. 회의록	187
3. 설문조사 결과	194
4. 시민디자인공모전	212

1. 과업 추진일정

15. 07. 20	과업 착수	
10. 01~28	한국최초 인천최고 시민공모전 및 자문회의	■ 인천시민 및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민공모전 실시 ■ 시민공모전은 그래픽 분야와 시설물 분야로 나누어 진행 ■ 공모전 입상자 선정 및 상징아이콘 및 지정게시대 진행 사항 자문 실시
11. 06	시민공모전 시상식	■ 공모분야 : 상징 아이콘, 그래픽 부문, 공공시설물 부문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팀, 특별상 5팀 시상) ■ 대상 시상자는 그래픽 분야 입상자로 한국최초, 인천최고 100선의 항목을 대상으로 공모전 입상
11. 26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자문	■ 시민공모전 우수작 중 우수 사항을 선정하여 과업 컨셉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변경 ■ 위의 사항으로 진행된 상징아이콘 및 지정게시대 진행 사항 자문 실시
16. 01. 21	중간보고	■ 관련부서 및 군구담당자, 자문위원을 초빙하여 중간보고 진행
02. 25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 상징아이콘 및 지정게시대, 공사가림막, 공공안내판에 대한 심의 실시 ■ 실적용 가능한 지정게시대 디자인 변경 요청 ■ 안전성과 심미성, 범용성을 고려한 디자인 변경 요청
03. 24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재심의	
04. 15	최종보고 및 준공	

2. 회의록

2015. 07. 31 착수보고회

- 강화군의 경우 자연 경관 우세권역으로 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필요
- 인천 최고, 한국 최초의 상징 아이콘의 개발 범위(유형, 무형 문화재 등) 실무회의를 통한 범위 설정 필요 > 8월말 선정 완료 예정
- 용역사에서 제안한 현수막은 도로용 인데, 보행로에 설치되는 보행자용 개발 필요 (현수막의 폭을 좁고, 낮게 설치하는 방안 등)
-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필요
- 시민게시대는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설로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 되어야 함
- 신규 설치가 비용 부담이 크므로 기존 게시대 활용 및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좋겠음
- 각종 공공안내판을 신규 설치시 설치비용이 많으므로 부담되므로 경제성을 고려한 계획 필요
- 2030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이 새롭게 계획되므로 과업 진행시 참고 요망

2015. 10. 28 시민공모전 심사 및 자문회의

- 현수막 게시대는 나라와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형적인 게시대 디자인 틀에서 탈피 필요
- 세로형과 지그재그형, 독립형 등 디자인의 다양한 시도는 팔목할 만한 사항
- 현재, 전기를 활용한 옥외광고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적용되도록 전기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계획 도출 필요
- 현수막 내부 그래픽의 지침 제시와 동영상 기법이 아닌 정지된 화면의 전자게시대 지침 수립 등 대한민국 옥외광고물의 새로운 시도 진행 요청
- 현수막 게시대 내 하단부 현수막 설치 높이에 대한 지침 수립 필요 (지피류 등으로 시야 확보 어려움)
- 현수막 게시대 배치 지침은 단순 설치지침이 아닌,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지양 지침 도출 및 수립 필요
- 현수막 게시대는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물임에도 성형, 비노기과, 대부광고 등 부정적 이미지의 광고가 설치되고 있음
- 소상공인의 광고가 게재되도록 지침 수립 필요
- (예 : 게재 제한 광고 지정 / 병원 및 체인업체의 경우, 현수막 게재 제한 등)
- 게시대의 모듈화를 고려하여 게시대가 설치되는 공간 특성에 따른 디자인 타입 분류 필요
- (예 : 상가 간판이 가릴 경우, 모듈 개수 00개 등)
- 규모가 거대하지 않으며 심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시대 디자인 지양
- 도시 외곽 뿐 아니라 중심지에도 설치되는 심미성과 조형미를 갖춘 게시대 디자인 도출 필요
- 공사장 가림막과 건축물 가림막의 정확한 법적 명칭 확인
- 가림막 설치 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야간 조명 계획 수립 필요
- 공사장 가림막 설치 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 등 설치 전제조건 수립 필요
- 가림벽 내 공사안내판의 추가 설치에 대한 수량, 배치 지침 제시 필요
- 가림벽에 부착되는 불법 벽보에 대한 대책 고민 필요
- 상징아이콘은 현재 해당 항목의 상황 체크 후 수정 필요
- (예 : 갑문의 개폐 방식 수정 필요)
- 인천시의 CI를 훼손하는 방식의 상징아이콘 지양
- 월계수를 활용한 상징아이콘 디자인 방향 재수립 필요 (진부한 디자인이므로 현대적으로 개선 필요)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상징 아이콘의 선별 작업은 무엇보다 100항목이 전근대와 근대 및 현대에 골고루 이루어졌으면 좋을 듯 함
- 따라서 선별은 전근대와 근현대가 들어간 작품을 우선적으로 택함
-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1작품 외에는 비슷한 수준의 작품이 출품
- 차후 사업 추진 시 자문을 반드시 수반할 것을 요청

2015. 11. 26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자문

위원	의견내용	반영유무	조치계획
위원 1	- 현수막게시대는 사회 및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 도출 필요 (UD 개념)	부분반영	- 가이드라인을 통한 제시
	- 현수막에 사용되는 색상 중 도로표지판의 색상 제한 규정에 대한 제고 필요 (광고 정보 전달력 하락 예상)	미반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 · 교통안내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표기되어 있음
	- 현수막이 설치된 위치 파악 후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유형별 가이드라인 도출 필요	반영	- 유형별 디자인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배치 가이드라인과 특정 상황에 대한 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
	- 현수막게시대는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배치를 권장하는 방식의 지침 수립 지양	반영	- 배치 권장사항보다 지양사항을 중점적으로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 - 교통 흐름 및 경관 저해 등 상황에 대한 지침을 지양사항으로 제시
	- 공공성 측면에서 게시대 디자인 개발 필요 (규모 축소, 수량 축소, 배치 축소)	반영	- 옥외광고물 부서와 협의 후 각 자치구별 설치 수량 산출이 필요하며 광고 수익성과 공공성의 절충점을 도출하여 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시
	- 시민게시대의 강화유리는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반영	- 시민게시대의 추가 디자인 시안 제시
	- 시민게시대는 사회적 변화에 뒤처지는 시설물이므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물 강구	부분반영	- 법적 기준안에서 현실적 디자인 제시
위원 2	- 설문 목적은 명확화하여 질문은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 필요	반영	- 설문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성을 지니고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 작성
	- 표본 수는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인과 전문가를 구분하여 상호간 의식조사가 필요	반영	- 일반인과 전문가를 구분하여 설문조사 진행
	- 현수막 게시대 디자인은 도로 등급에 따라 차별화되도록 디자인	반영	- 도로 등급에 따른 규모 및 크기 산정
위원 3	- 랜드마크인 건축물 외형을 실루엣으로 아이콘화 할 경우 상징적 요소가 퇴색함	반영	- 랜드마크 상징요소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디자인
	- 아이콘 방향이 2D와 3D가 혼용되어 있어 한가지 방향으로 설정하여 디자인 필요	미반영	- 각 아이템별 특징이 달라 2D와 3D 표현의 혼용이 불가피함
	- 상징아이콘의 대상에 대한 상징을 파악하여 상징적 요소를 함축적이며 조형적으로 디자인	반영	- 랜드마크 상징요소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디자인
	- 현수막 게시대의 재료 검토 (예 : 스테인레스 스틸은 주재료로 부적합, 알루미늄과 혼용 시 도장색이 다름)	미반영	- 기능에 따른 재료 선택 - 마감 후 도장 시 이질적 색상은 나타나지 않음
위원 4	- 현수막게시대 적용색이 다양한 위치에서 조화되는 색상(Pantone 425U)인지 궁금하며 다양한 색상 적용에 대한 고려 필요	미반영	- 현재 적용된 Pantone 425U는 인천시 공공시설물 색채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상으로 시설물 간 통일성을 위하여 반드시 유지해야 할 색상
	- 현수막게시대의 실명제를 실시하여 유지관련 측면의 용이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반영	- 가이드라인에 명기
위원 5	- 13개의 현수막게시대를 하나의 형태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	반영	- 발주부와 협의를 통하여 시안 결정 필요
	- 인천시 내 다양한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간 특징에 따른 적합한 디자인 도출	부분반영	- 공간 유형별 디자인 분류
	- 가설울타리의 그래픽을 4개의 시안으로 인천시를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미반영	- 가설울타리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사항
위원 6	- 보행용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 사회약자의 원활한 보행권 확보에 대한 고려 필요	반영	- 보행권 확보를 위한 설치 위치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녹지 등)
	- 지주식 또는 매립 공정이 포함되는 공공 안내판은 지면으로부터 기초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	반영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하여 기초부는 매립하도록 지침으로 제시
	- 시민게시대는 양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필요 (예 : 타공 활용)	반영	- 타공형 디자인 제시

2016. 01. 26 중간보고

구분	내용
상징아이콘	상징아이콘 별 디자인이 도출되었지만 일부 항목의 내용 및 컨셉이 누락되어 수정이 필요
	상징아이콘은 이미지를 상기할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 필요
	현재 상징아이콘의 선 두께 및 개수 조정 필요
	디자인은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하며 상징 요소는 최소화
	참고 이미지는 되도록 과거 사진을 활용
	인천공항과 같은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관리주체의 의견 수렴 필요
	디자인 내용 및 컨셉이 누락되어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문화재과에서 수정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내용과 함께 용역사에 전달 필요
현수막게시대	2016년 1월 6일, 광고물법이 개정된 데 따라 2016년 7월에 시행 예정, 디지털 사이니지의 허용에 따라 혁신안에 대한 적용 검토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광고물법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각 자치구별 디지털 사이니지 법규 및 시행령, 규제가 마련되어야 함
	디지털 사이니지 세부 가이드라인 작성 시, 옥외광고물의 상업화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규제가 가이드라인에 마련되어야 함
	현수막게시대에 게시되는 광고는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물이 되도록 해야 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 재검토
	현수막게시대 상단 구성은 인천시 위주가 아닌 자치구를 위한 구성이 되도록 수정 필요
	차량용 현수막게시대 B Type의 중앙 지주를 보행용 현수막게시대와 같이 각을 주는 형식으로 디자인하여 설치 지형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되었으면 함
	혁신안 H Type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 검토 필요
공사가림막	혁신안 F Type의 높이가 높아 수정 필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중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공사가림막에 적용되지 않는 시설물이므로 삭제 요망
	야간에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조명 가이드라인 강화 필요
	상징아이콘을 공사가림막에 그래픽 요소로 활용하여 인천시 홍보 요망
	건축물 대지 면적에 따른 건물가림막 규정 검토 필요

2016. 02. 25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재심의

위원	의견내용
위원 1	유지관리와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입각하여 디자인 컨셉 도출 요망 공공안내판은 보행자의 안전과 관리자의 유지관리 편의성, 풍압을 고려하여 보완 필요
위원 2	인천시의 표준디자인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소통으로 지정 공공시설물에 인천시 색채를 담으려는 노력을 진행했으나 인천다움은 공공시설물 방향에서 양보 여러 자문 시마다 공공시설물의 방향은 튀지 않도록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됨
위원 3	디자인을 포괄하는 컨셉 키워드 부재, 인천시에 적합한 메인 컨셉 키워드를 도출하여 반영 상징아이콘 대표형 이미지가 진부함 상징아이콘 100개의 의미전달력이 약함 현수막에 대한 표준 그래픽 기준 제시 필요 무채색 대신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색채를 분석하여 지정계시대에 적용 바람
위원 4	인천시 상징성이 부족하므로 인천 상징 요소를 분석하여 반영 선진사례의 경우 인천과 비슷한 환경의 도시를 토대로 시사점 도출 필요 향후, 전기와 조명 사용을 대비하여 지정계시대와 가설울타리에 전기를 이어줄 수 있는 포트 보완 필요
위원 5	1차, 2차 표준디자인의 컨셉과 연계 필요 표준시설물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 상징아이콘 100개의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발 원칙 작성 상징아이콘을 설명하는 간략한 문구 표기 필요 이동형 공공시설물에 바퀴를 부착하는 것은 유지관리 상 부적합하므로 고정형으로 개선 필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컨셉 키워드는 '최소화' 와 같이 강한 느낌의 키워드 선정 필요 지정계시대의 야간 이용편의성을 위하여 조명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 공사가림막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프로세스의 카테고리를 세분화 필요 예로 상징아이콘의 경우, 무작정 반영하기 보다 지역에 맞춰 지역 특성과 적합한 상징아이콘 반영 (이를 위한 카테고리 보완 필요)
위원 6	현수막 뒷면에 대한 경관 보완점 필요

2016. 03. 24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재심의

구분	내용
지정게시대	C Type 게시대의 가변적 설치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현수막 뒷면은 타공에 의한 패턴 디자인을 진행하여 뒷면 경관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상징아이콘	샘플로 제시한 외곽선 정리 지침으로 100개의 상징아이콘 보완 진행 기본형 디자인 중 면처리 한 디자인은 부분적으로 강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선을 이용하여 디자인 진행 (예 : 강화도)
공공안내판	휠 고정형의 경우, 바퀴(캐스트) 하나 당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 필요 휠 고정형의 하부 구조는 가급적 바뀌가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 보완
공공안내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장식적 조명에 의한 광원 제한을 위한 것이므로 공사 가림막과 맞지 않는 기준 KSA 301 권장 조도기준 및 침해광을 참고하여 기준 보완 향후, 개정되는 법령에 포함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대비하여 디지털 사이니지를 위한 지침 제시 필요

3. 설문 조사 결과

상징아이콘

-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디자인과 이름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 [진행 대상] ▶ 일반 인천 시민 94명
- [진행 일시] ▶ 2015년 12월 15일~16일



* 설문 당시 개발된 이미지로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 이미지 수정되었음

Q1.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을 알고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Q2.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상징아이콘이 사진과 연상이 잘 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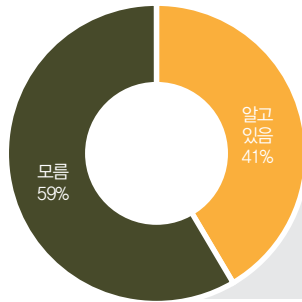
Q3.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상징아이콘 개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인천을 홍보하는데 좋을 것이다 ② 여러 매체와의 활용성이 좋을 것 같다
③ 쉽게 기억 할 수 있을 것 같다 ④ 인천에 대한 자부심이 커질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I 설문 분석

Q1.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을 알고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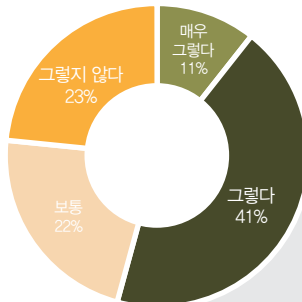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015년,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에서 발간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설문 참여 인원이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있음

Q2.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상징아이콘이 사진과 연상이 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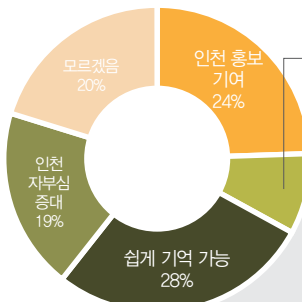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개발된 디자인과 항목의 명칭 간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렇지 않다 23%'를 제외하고 개발된 디자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Q3.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상징아이콘 개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인천을 홍보하는데 좋을 것이다 ② 여러 매체와의 활용성이 좋을 것 같다
③ 쉽게 기억 할 수 있을 것 같다 ④ 인천에 대한 자부심이 커질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상징아이콘이 개발됨에 따라 인천의 역사적 장소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쉽게 연상될 것이라는 기대와 인천광역시의 원활한 홍보, 자부심이 증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지정게시대

- 지정게시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설문 진행
- 관련 직종 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5회_전문가 2회, 시민 3회) 진행

■ 설문 항목

Q1.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대)를 주변에서 얼마나 보십니까?

- ① 자주 본다 ② 종종 본다 ③ 가끔 본다 ④ 한번쯤 본 것 같다 ⑤ 전혀 본 적이 없다

Q2. 우리 주변에 지정게시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3. 지정게시대를 보면 미관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나요?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못하다 ⑤ 매우 좋지 못하다

Q4. 지정게시대의 정보가 잘 읽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5. 지정게시대의 크기는 어떠한가요?

-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작다 ⑤ 매우 작다

Q6. 현수막 게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수막이 촘촘히 걸려 있어 복잡해 보인다
② 너무많은 글자들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③ 현수막이 너무 크다
④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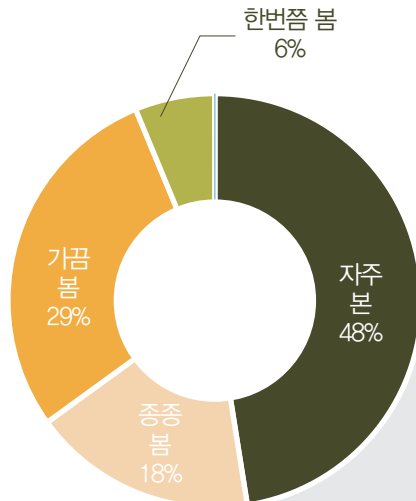
Q7. 현수막 게시대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Q8. 시민 게시대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I 설문 분석_전문가 집단

Q1.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대)를 주변에서 얼마나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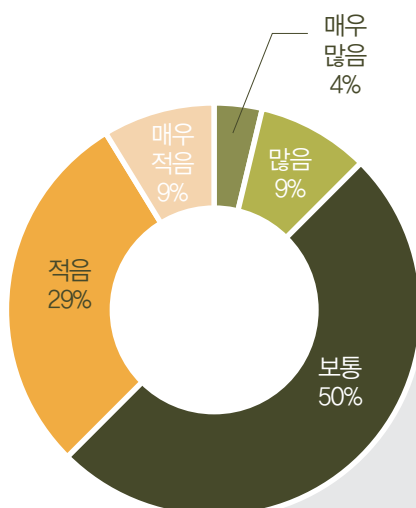
① 자주 본다 ② 종종 본다 ③ 가끔 본다 ④ 한번쯤 본 것 같다 ⑤ 전혀 본적이 없다



지정게시대 관련 업종 종사자의 특징으로 지정게시대에 대한 관심이 많음

Q2. 우리 주변에 지정게시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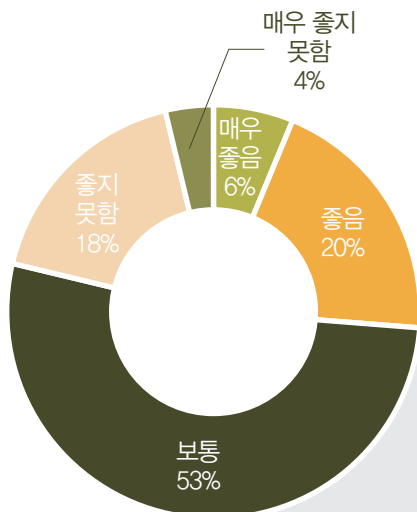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인천광역시 전역에 분포된 1413개(현수막게시대 549개, 시민게시대 864개)의 수량이 적당하거나 적은 수량으로 증설할 것을 기대

Q3. 지정게시대를 보면 미관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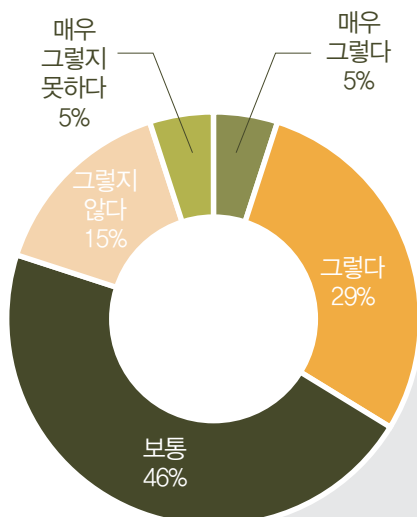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못하다 ⑤ 매우 좋지 못하다



평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좋다와 좋지 못함의 비율이 비슷하여 만족과 불만족 등 관련 업종 종사자의 의견이 갈림

Q4. 지정게시대의 정보가 잘 읽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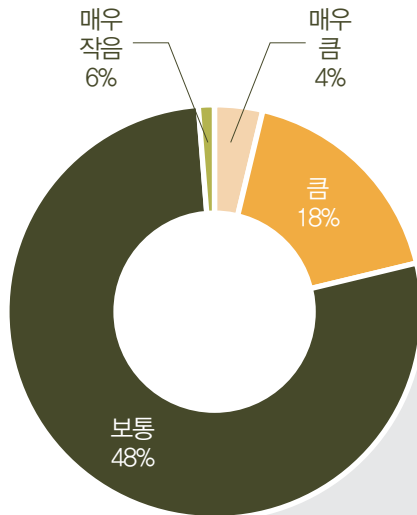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현재 지정게시대 내 현수막 정보가 잘 읽힌다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판단하고 있음

Q5. 지정게시대의 크기는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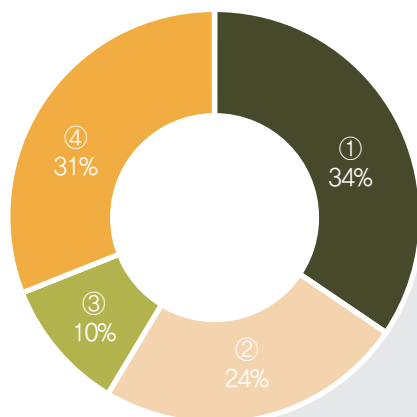
-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작다 ⑤ 매우 작다



지정게시대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종사자들은 현재 규모가 크다고 판단

Q6. 현수막 게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수막이 촘촘히 걸려 있어 복잡해 보인다
② 너무 많은 글자들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③ 현수막이 너무 크다
④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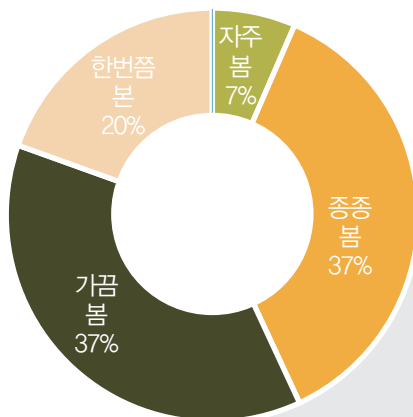


현재 현수막게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수막 간 간격이 좁게 설치되어 정보 상호 간 충돌이 일어나는 점을 꼽았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디자인을 꼽음 이 외에 글자가 너무 많이 표현되어 잘 읽히지 않는다고 함

설문 분석_인천시민 집단

Q1.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대)를 주변에서 얼마나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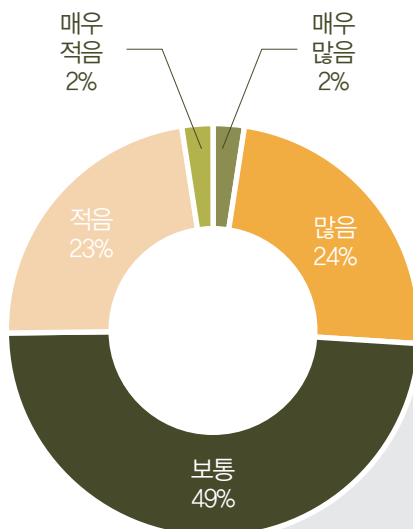
- ① 자주 본다 ② 종종 본다 ③ 가끔 본다 ④ 한번쯤 본 것 같다 ⑤ 전혀 본적이 없다



종종 또는 가끔 지정게시대를 보는 시민들이 대부분으로 지정게시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

Q2. 우리 주변에 지정게시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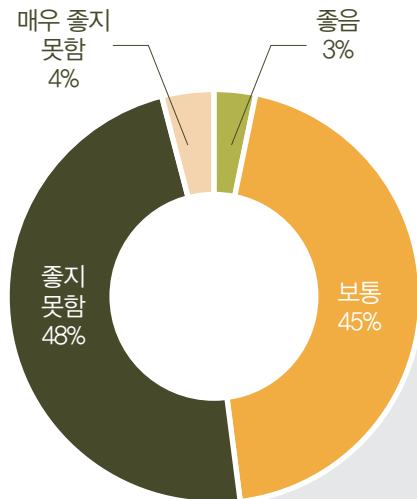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현재 지정게시대 설치 수량의 적고 많음이 유사한 비율로 조사

Q3. 지정게시대를 보면 미관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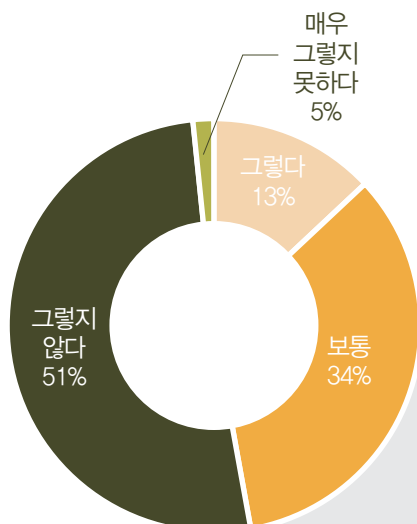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못하다 ⑤ 매우 좋지 못하다



지정게시대의 미관이 인천광역시 도시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고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시민이 대부분으로 조사

Q4. 지정게시대의 정보가 잘 읽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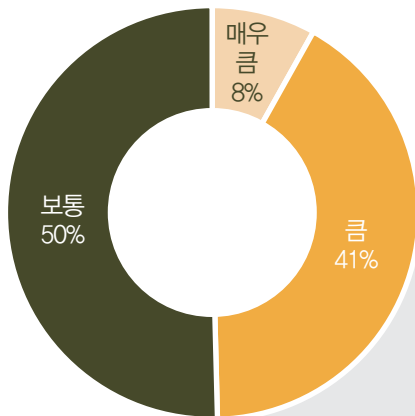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정보가 잘 읽히지 않고 정보의 습득력이 낮다고 조사

Q5. 지정게시대의 크기는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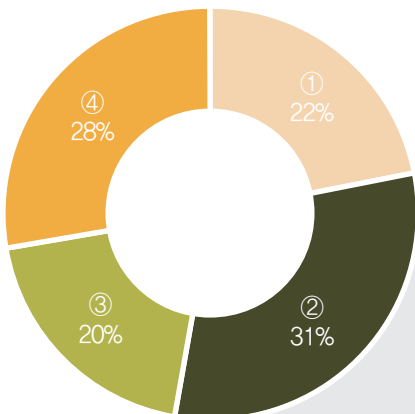
-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작다 ⑤ 매우 작다



지정게시대의 크기가 거대하다고 인식하는 시민이 대부분이며 작다와 매우 작다라고 조사된 인원이 없어 크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

Q6. 현수막 게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수막이 촘촘히 걸려 있어 복잡해 보인다
② 너무많은 글자들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③ 현수막이 너무 크다
④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 많은 글자가 표현되어 정보 전달이 안된다는 점과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의 간격, 현수막의 비대한 규모 순으로 문제점을 꼽았으며 항목의 비율이 유사

공사가림막

-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경관을 포괄하는 디자인 방향 설정과 공사가림막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은 부평역 및 계양역과 같은 역세권, 변화가를 중심으로 진행
- 2015년 12월 2일과 4일에 걸쳐 2번 진행하였으며 96명의 시민이 설문 조사에 응함

I 설문 항목

Q4. 공사가림막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본다 ② 종종 본다 ③ 가끔 본다 ④ 한번쯤 본 것 같다 ⑤ 전혀 본적이 없다

Q5. 공사가림막 중 가설울타리의 높이가 보도 폭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6. 높은 가설울타리가 보행 환경에 영향을 끼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7. 가설울타리의 부착된 그래픽이 가로 경관과 어울립니까? (부착되지 않은 경우 포함)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8. 가설울타리의 그래픽 크기는 적당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9. 야간에 가설울타리 주변이 걷기 편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10. 가설울타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도 폭에 비해 너무 높은 가설울타리로 답답하다
 ② 그래픽이 없거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③ 조명이 부족하여 야간에 걷기 힘들다
 ④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지로 쾌적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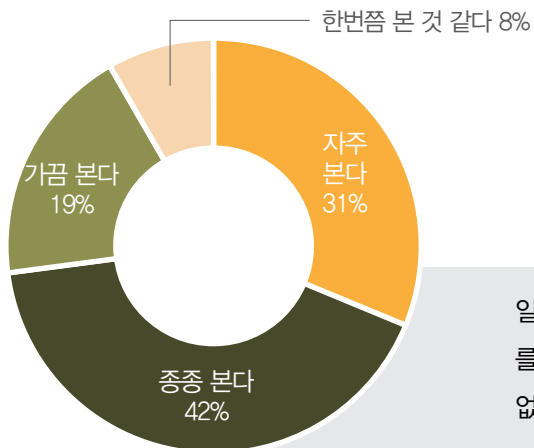
Q11. 공사 중인 건물을 가리는 건물가림막이 주변 환경과 어울립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I 설문 분석

Q4. 공사가림막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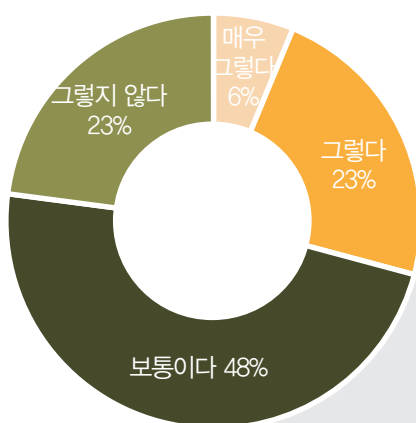
① 자주 본다 ② 종종 본다 ③ 가끔 본다 ④ 한번쯤 본 것 같다 ⑤ 전혀 본 적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공사가림막에 대해 ‘한번쯤 본 것 같다 8%’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수 본 것으로 나타나며 전혀 본 적이 없는 경우는 없는걸로 나타남

Q5. 공사가림막 중 가설울타리의 높이가 보도 폭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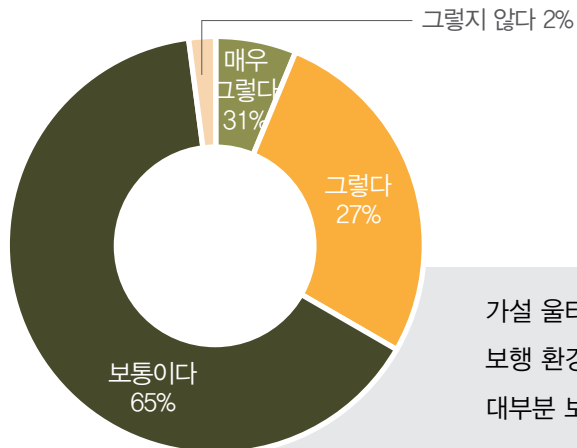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공사가림막 중 가설울타리의 높이에 대해서 보도 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의견인 ‘그렇지 않다 23%’를 제외하고 높이가 높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Q6. 높은 가설울타리가 보행 환경에 영향을 끼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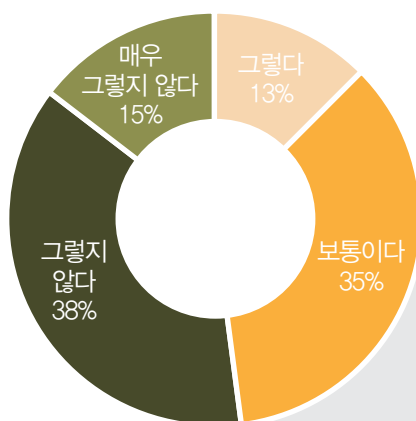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가설 울타리의 높이가 높다고 느낀 시민은 높이에 대해 보행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2%의 의견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행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Q7. 가설울타리의 부착된 그래픽이 가로 경관과 어울립니까? (부착되지 않은 경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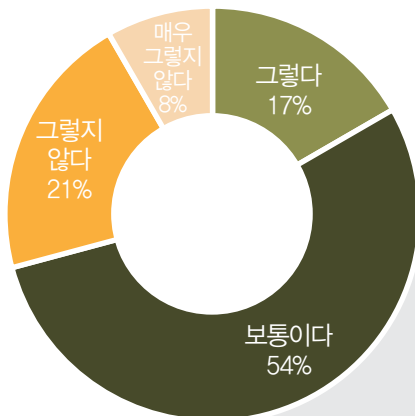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가설울타리에 부착된 그래픽이 가로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는 13%의 의견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관과의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Q8. 가설울타리의 그래픽 크기는 적당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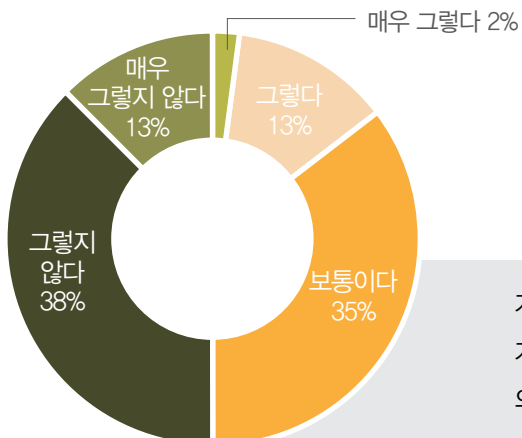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가설울타리의 그래픽 크기는 가로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그래픽의 크기만을 볼 때엔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차지함

Q9. 야간에 가설울타리 주변을 걷기 편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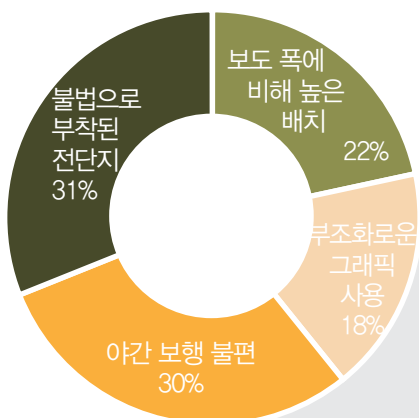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가설울타리 주변으로 어두운 저녁시간에 보행시 가설울타리 주변 보행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2%의 소수 의견을 제외하고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 차지함

Q10. 가설울타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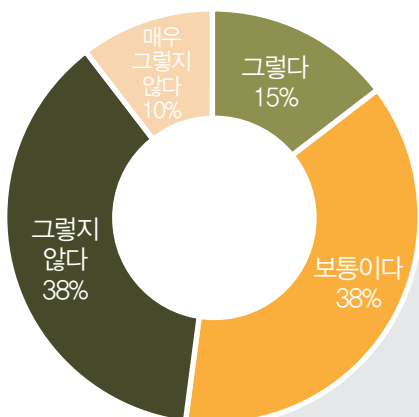
- ① 보도 폭에 비해 너무 높은 가설울타리로 답답하다
- ② 그래픽이 없거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 ③ 조명이 부족하여 야간에 걷기 힘들다
- ④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지로 쾌적하지 못하다



가설울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 폭에 비해 높은 높이,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로운 그래픽 사용, 야간 보행에 대한 불편함, 불법 부착된 전단지에 대해 고루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 불법 부착된 전단지와 야간 보행에 대한 불편에 대한 의견 다수 차지함

Q11. 공사 중인 건물을 가리는 건물가림막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 중인 건물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물가림막에 대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롭다는 의견 15%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차지함

공공안내판

설문 항목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 [진행 대상] ▶ 일반 인천 시민 94명
- [진행 일시] ▶ 2015년 12월 15일~16일

Q1. 공사장 주변에서 공사장 안내판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 ① 자주 본다 ② 종종 본다 ③ 가끔 본다 ④ 한번쯤 본 것 같다 ⑤ 전혀 본 적이 없다

Q2. 공사장 안내판의 위치가 눈에 잘 띄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3. 공사장 안내판의 내용이 잘 보이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4. 공사장 안내판의 크기는 적당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5. 어떤 내용이 잘 보이면 좋겠습니까?

- ① 공사명 ② 공사기간 ③ 공사위치 ④ 공사업체 ⑤ 공사범위



Q6. 위와 같은 공공안내판을 자주 보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Q7. 공공안내판의 내용의 크기가 적당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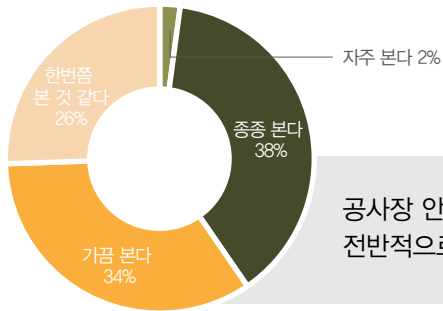
Q8. 현 공공안내판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② 글자가 작다 ③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④ 보행에 불편함을 준다 ⑤ 불안정해 보인다

I 설문 분석

Q1. 공사장 주변에서 공사장 안내판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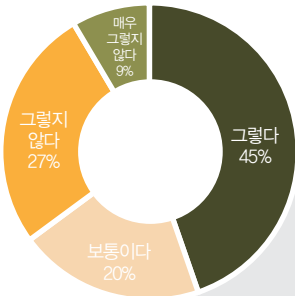
① 자주 본다 ② 종종 본다 ③ 가끔 본다 ④ 한번쯤 본 것 같다 ⑤ 전혀 본 적이 없다



공사장 안내판을 전혀 본 적이 없는 경험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종종 본다는 평가가 다수 나타남

Q2. 공사장 안내판의 위치가 눈에 잘 띄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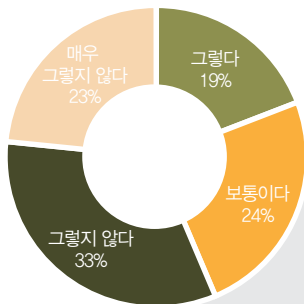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공사장 안내판의 위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9%의 소수의 의견을 제외하고, 대부분 안내판의 위치가 잘 보인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Q3. 공사장 안내판의 내용이 잘 보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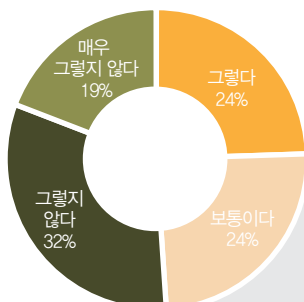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공사장 안내판의 위치는 잘 보인다는 의견이 다수 차지하고 있으나, 안내판에 씌여진 내용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남

Q4. 공사장 안내판의 크기는 적당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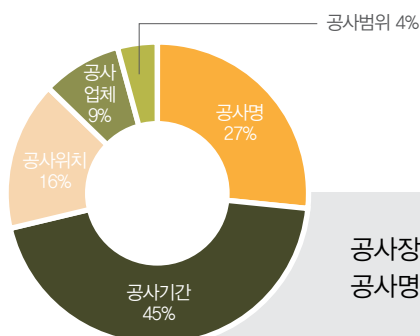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공사장 안내판의 크기에 대해 적당하다와 그렇지않다의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남

Q5. 어떤 내용이 잘 보이면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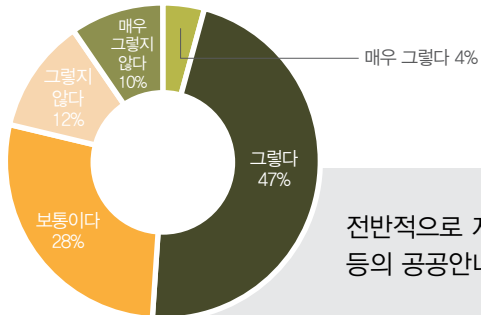
- ① 공사명 ② 공사기간 ③ 공사위치 ④ 공사업체 ⑤ 공사범위



공사장 안내판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에서 공사기간과 공사명에 대한 시인성 강화의 의견이 높게 나타남

Q6. 위와 같은 공공안내판을 자주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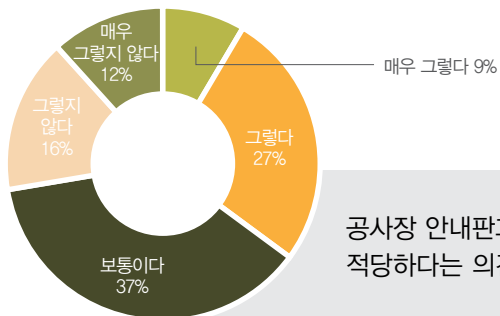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전반적으로 지주형의 차 없는 거리, 승용차 요일제 시행,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등의 공공안내판을 자주 본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남

Q7. 공공안내판 내용의 크기가 적당한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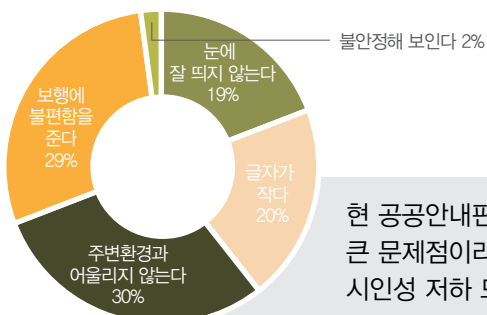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공사장 안내판과는 다르게 공공안내판 내용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Q8. 현 공공안내판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② 글자가 작다 ③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④ 보행에 불편함을 준다 ⑤ 불안정해 보인다



현 공공안내판에 대해 시민들은 주변환경과의 부조화와 보행시 불편함이 큰 문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내판과 안내판 내용의 시인성 저하 또한 비슷한 비율로 문제점이라는 의견이 나타남

4. 시민디자인공모전

시민디자인공모전 포스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한국최초 인천최고 디자인 공모전



- 공모 목적
- 공모 일정
- 응모 자격
- 공모 분야
- 응모 방법
- 시상 내역
- 주최 및 주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3차 개발에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유형 발굴 및 시민의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

접수기간 : 2015년 10월 1일(목) ~ 10월 21일(수) 18:00
심 사 : 2015년 10월 22일(목) ~ 10월 29일(목)
발 표 : 2015년 10월 30일(금)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게시 (www.incheon.go.kr)
시상·전시 : 2015년 11월 6일(금) / 장소는 추후 통보

※ 공모일정과 시상내역은 출품작 수량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에 귀속됩니다.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에 주소를 둔 인천 시민과 인천 소재 대학생/대학원생 (단, 기업 응모 불가)

그래픽
부문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상징아이콘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중에서 상징아이콘을 만들어 주세요

사회이슈 아이콘 스마일, 힐링, 안전, 금연 등 사회 이슈를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세요

공공
시설물
부문

지정계시대 디자인 기존 지정계시대(현수막계시대, 시민계시대)를 혁신적,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디자인**을 제안해 주세요

지정계시대 아이디어 기존 지정계시대(현수막계시대, 시민계시대)를 혁신적, 창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양식에 맞춰 자유롭게 서술형으로 작성해 주세요)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참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1명	부문별 1명	부문별 3명	10명
상장과 상금 100만원	상장과 상금 50만원	상장과 상금 20만원	문화상품권 5만원 상당

주최/주관 : (사)인천디자인기업협회, (사)인천산업디자인협회, (주)디자인팩토리, (주)이건창호
후 원 : 인천광역시

● 문의사항 그 밖의 사항은 공모전 진행기관 담당자 02) 3453-7767 또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경관과 032) 440-4794로 문의

공모전 개요

■ 참여 인원(팀)

- 총 인원(팀) : 200개 팀 참가
- 1차 합격 인원(팀) : 44개 팀 합격 (그래픽 부문 : 38개 팀, 공공시설물 부문 : 6개 팀)

■ 공모전 사진



수상작

대상 (한인에 · 인천시민)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상징아이콘

인천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다. 그 중 12개를 선정하였다.
이번 아이콘 디자인의 중점을 단순함과 인지성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각 유산들의 특징들을 잡아, 일정한 선으로 아이콘을 단순하게 표현하였으며,
어느 장소, 분위기에 적용 되어도 쉽고 빠르게 인지 될 수 있게 디자인 하였다.



인천대성당



고려왕릉군



고동함교



일본 제1은행



일본 제18은행



계동로구역부



담동성당



송도성당



월미도동대



대동후일



연원기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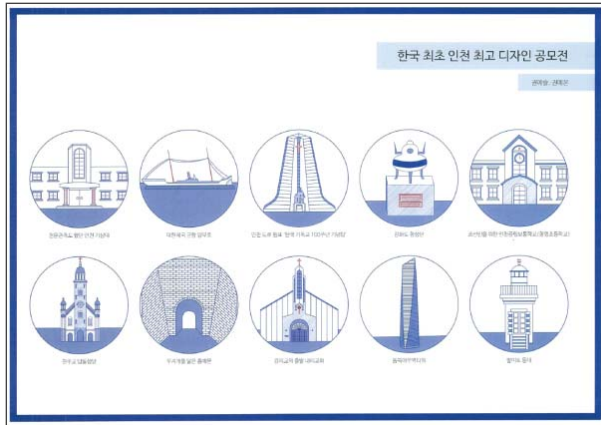
동북아 무역타워



■ 최우수상 (오윤아 외 2명 · 경인여대)



우수상 (권예슬 외 5명 · 경인여대)



특별상 (김민경 외 5명 · 인천시민)

한국최초 인천최고
디자인 공모전

1.전등사 2.담동성당 3.경안고속도로 4.민한국재공할
5.강화부근리고인물 6.인천상륙작전 7.홍명정음 8.대불호텔
9.동북아무익타회 10.각국공원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상징아이콘



INCHEON ICON DESIGN 10

1.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2. DAPDONG CHURCH
3. NEATT
4. G-TOWER
5. INCHEON BRIDGE
6. PALMIDO LIGHTHOUSE
7. INCHEON POST OFFICE
8. CHAMSEONGDAE
9. JAPAN 18TH BANK
10. YEONGHWA ELEMENTARY SCHOOL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부서	도시경관과
발행일	2016.04

인천광역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전성수 행정부시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
	안병희 도시경관과장
	임철희 공공디자인팀장
	안나름 담당자

연구수행기관	주식회사 디자인팩토리
	책임연구원 황규연
	연구원 김진섭 고동완 주학곤
	보조연구원 오승원 금민호 김재근 임혜리
